나무와 고인이 하나되어
자연과 함께… 수목장
대한불교조계종 전등사 수림원 032.937.0125

현대불교

신상품 LED인등
찬덕연등 031)792-6288/794-4055

붓다뉴스 동영상 제공 기사 ☎구독신청 02)2004-8211~2 buddhanews.com 불기 2550년 (서기 2006년) 10월 11일(음력 8월 20일) 수요일 (주간) 제 598 호

불교사상·역사·禪 다룬 연극과 무용

국제규모 예술제서 각광

'아름다운 남자' '선', 2006서울국제공연제 출품

부처님 가르침과 불교 문화를 근간으로 하는 공연예술이 속속 세계 무대로 진출하고 있다.

10월 7~29일 서울에서 열리는 '2006 서울국제공연예술제'에서는 26작품 가운데 불교소재 연극을 두 편 만날 수 있다. 지난해 초연한 연희단거리패의 '아름다운 남자'와 극단 완자무늬가 선보이는 '선(禪)'이 바로 그것.

이윤택씨의 극 '아름다운 남자'는 고려 무신정권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각기 다른 삶을 선택하는 세 학승의 운명과 사랑, 팔만대장경 조성기를 그린 작품으로 2006 서울연극제 대상 수상작이다. 20~22일 서울 드라마센터(02-745-3966)에서 공연된다.

깨달음을 찾아가는 선승들의 고뇌를, 사무엘 베케트가 쓴 '고도를 기다리며'의 기다림과 조우시킨 '선'은 서울국제공연예술제 주최측이 EBS와 함께 기획한 '라디오 희곡 읽어주기' 코너에 7일 소개되는 등 주목받는 작품이다.

선승들의 엽기적인 행동이 웃음을 자아내지만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는 인간 삶에 대해 불교적 성찰과 깨달음에 대한 열망으로 인생의 고민을 풀어나간다. 25~27일 서울 드라마센터에서 무대에 오른다.

연극만이 아니다. 이미 무용계는 더 큰 폭으로 세계로 나아가고 있다. 최근 무용계에서는 "동양의 사상을 몸으로 표현해내는 아시아의 무용가가 미래의 무용계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돌고 있다. 수많은 유럽 공연단이 일본 중국 한국을 비롯해 싱가포르 베트남 등 아시아 각국을 아주 매력적인 공연무대로 생각할 뿐 아니라 일본 중국 한국 무용수 들의 유럽진출도 두드러지고 있다.



10월 20~22일 서울국제공연예술제에서 공연되는 '선(禪)' 배우들이 서울 '낙산시어터'에서 연습에 몰두하고 있다. 사진=고영배 기자

10월 10~25일 서울서 열리는 제9회 서울세계무용축제 '시댄스 2006'은 아시아 전통에 눈을 돌리는 유럽 무용의 경향을 보여준다는 의도로 기획됐다.



'아름다운 남자'는 고려 무신정권을 배경으로 각기 다른 삶을 선택한 세 스님의 운명과 팔만대장경 조성기를 그린 작품이다. 사진제공=서울국제공연예술제

올해 5월 서울서 열린 국제현대무용제 '모다페 2006'에서 미국의 '쉔 웨이 댄스 아츠'는 불교의 선(禪) 사상을 현대무용과 조화시킨 '폴딩'으로 전세계의 시선을 끌었다.

정 중 동의 절묘한 배합이라는 찬사를 얻었던 '폴딩'은 미국인의 시각에서 동양의 선사상에 주목했다.

5월 초 아시아태평양 공연예술 네트워크 'APPAN'의 제7회 'APPAN-명상치유 공연예술 축제와 심포지엄'에서는 아시아 지역 명상춤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이선옥 교수(포천중문의대)의 선무를 비롯해, 범패 작법, 승무 등은 아시아 각국의 춤과 자리를 같이 했다.

이선옥 교수가 창시한 '선무'는 불교와 무용의 만남이 어떻게 세계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다. 이 교수가 1970년대 미국으로 건너가 록펠러 재단 내 공연그룹인 아시아소사이어티를 이끌면서 선무용을 창안한 이후 1980~90년대 미국에서만 300여 회 공연을 하는 등 선무는 미국인의 눈을 사로잡았다. 뉴욕 무대의 호평은 파리를 근거로 유럽무대에서 선무용을 알렸을 때도 이어졌다. 이 교수의 '선무'는 안무의 내용이 1996년 링컨센터 도서관에 영구 소장되는 성과를 올렸다.

7월에는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가 세계적인 무용축제 오스트리아 탄츠 좀머 페스티벌에 초청돼 눈길을 끌었다.

김향금 창원대 교수가 이끄는 코리아나예술단이 영산재를 공연예술로 승화시킨 '니르바나'로 탄츠 좀머 페스티벌에 한국 무용팀으로 첫 발을 내디뎠던 것이다.

2002년 'SIDance 2002'에는 에밀레 종의 전설을 모티브로 제작된 댄스 뮤지컬 '신 에밀레'가 선 보여 화제였다. 교방 살풀이, 영남춤, 승무, 선무도, 탈춤, 한량무 등을 기본으로 새로운 시공간의 춤이 서구의 움직임과 다양하게 접목시킨 '신 에밀레'는 댄스 뮤지컬이라는 새 장르를 이어갈 것이라고 평단의 인정을 받았다.

이렇듯 최근 불교문화·사상이 공연 소재로 활용되는 일이 서서히 늘어나고 있다. 한국만이 불교 소재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 세계의 문화 생산자들이 '불교'를 비롯한 동양 사상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프랑스 현대무용의 대모' 카를린 칼송(63)은 지난 7월 창무회 김매자씨와 합작공연 준비를 위해 내한한 자리에서 "불교적이며 영적인 지향, 내면을 추구하는 것과 선사상 등 동양의 가치에 유럽이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사상에 대해 동양과 서양이 서로 다른 기교로 동작을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그 궁극의 목표는 병든 세상을 치유하는 춤을 만들겠다는 뜻"이라고 불교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

'쉔 웨이 댄스 아츠'가 동양의 선사상을 기반으로 '폴딩'을 선보인 것처럼 미국 유럽에서도 불교 사상은 구미당기는 작업 소재임에 분명하다. 전통과 현대의 만남으로 불교문화를 널리 알릴 수 있는 토대는 다져지고 있다. 이제 불교 공연예술의 세계화를 위해 불교계가 무엇을 해야할지 고민해야 할 때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불교문화재 제자리에' 실현됐다

현등사 사리 · 사리구 삼성문화재단서 반환 받아

삼성 리움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현등사 사리와 사리구'가 원 소유자인 가평 현등사로 반환된다.

삼성문화재단 한용외 사장은 9월 25일 조계종 총무원을 방문, 반환의사를 밝힌 뒤 총무원과의 합동기자회견을 통해 "아무 조건 없이 사리와 사리구를 현등사로 반환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외 사장은 성명서를 통해 "리움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현등사 사리와 사리구는 불교신자들의 경배와 신앙의 대상임을 조계종 측과 인식을 같이해 본래의 위치인 현등사에 영원히 봉안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리 소유권 문제를 놓고 벌어질 '2심 공방전'과 '리움박물관 앞 사리친견법회' 등 양측의 대립국면에 종지부를 찍었다.

불교계로서는 '반환'이 주는 의미가 크다. 무엇보다 '불교 문화재는 원래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는 불교계의 오랜 열망이 실현되는 전환점이 됐다.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장 탁연 스님은 "많은 불교 문화재를 소장·전시하고 있는 국립박물관과 사립박물관들은 그동안 불교 문화재를 단순한 유물로만 여겨 '보존·관리하기만 하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성보의 정체성에는 무관심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박물관계가 불교 성물과 불교 문화재의 고유성을 인식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탁연 스님은 또 "사립박물관 중 규모는 물론 전시·보관 중인 유물의 수가 가장 많은 삼성리움박물관의 '사리 반환'은 '불교 문화재는 제자리로 돌아와야 한다'는 선례로 남아 앞으로 국·사립박물관에 보관돼 있는 '사리 찾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봉선사 총무과장 혜문 스님도 "동국대 박물관이 1960년대부터 용문사 부도군(정기국사 사리로 추정) 사리를 비공개로 소장하고 있는 것을 최근 확인했으며 이와 함께 국립박물관이 일제강점기부터 소장하고 있는 수종사 부도탑 사리도 반환받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면에서 계속

'선원청규' 제정·편찬 본격화

편찬위원장에 의정스님…자료집도 간행예정

선원 수행 풍토 진작을 위한 〈조계종 선원 청규〉(가칭) 제정 및 편찬 사업이 본격화된다.

전국선원수좌회 지도위원 고우스님과 상임대표 혜국 스님 등 수좌회 임원스님들은 9월 28일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면담한 자리에서 '조계종 선원 청규' 제정 편찬 사업에 지원을 요청, 이에대해 지관 스님은 "종풍 진작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총무원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불학연구소는 이날 증명, 고문, 자문위원, 편찬위원 등으로 구성된 편찬위원도 확정했다. 편찬위원장은 의정 스님(양평 상원사 용문선원장)이 맡았다.

편찬위는, 현재 법혜 스님이 번역하고 주석을 달고 있는 〈칙수 백장청규〉외 일타 스님이 한문에 토를 단 〈일용소청규〉 〈사분율장〉 〈범망경〉 등의 자료를 연구해 자료집을 간행할 예정이다. 또 내년에 '선원청규'에 관한 학술세미나 개최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10월 20일 오전 11시 대구 마하야나회관에서 〈조계종 선원 청규〉 편찬위원회 발족식 및 제1차 편찬위원회가 열린다.

남동우 기자

진각종 19일 총인 선출

진각종(통리원장 회정)은 제 10대 총인을 10월 19일 정기종의회에서 선출한다. 진각종은 현재 총인으로 있는 혜일 대종사의 임기가 10월로 만료됨에 따라 후임 총인 선거를 실시한다. 총인의 자격은 세수 60세이상 75세 미만으로, 종사 이상.

총인의 임기는 5년이며, 종의회의원 37명의 선거를 통해 선출한다.

김주일 기자



산문밖의 선 17면
조형주의 선구자 김흥수 화백
시방세계 9면
봉은사 영어뮤지컬 연습현장
진각종 '문화전승원' 건립 8면
범주스님의 '달마 결산전' 23면

추석연휴 관계로 10월4일자는 휴간하고 금주 신문을 10월11일자로 발행합니다.

보이차
진년보이차·진품자사호 직수입
紅茶園
02-744-3311
011-816-5555

'경전수행을 통한 깨달음' 10대 강백 초청
봉선사 강설대법회
응각 스님
아함경/10월 14일
봉선사 설법전, 031)527-1951~3

樹木葬
수목장
천년의 세월을 지켜온 나무처럼…
영원토록 기억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수목장은 나무와 고인이 하나되어
자연과 함께하는 가장 아름다운 장묘법입니다.
사람은 사대四大(지地, 수水, 화火, 풍風)와 오온五蘊(색色, 수受, 상想, 행行, 식識)으로
이루어진 한시적인 생명체이며, 죽음은 이것이 각각 흩어져 자연으로 돌아감을 의미합니다.
수목장은 자연장의 취지를 잘 구현하면서도 추모할 구체적인 대상이 존재하므로
한국 전통의 장묘문화를 가장 잘 계승한 장묘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창건된 지 1천6백년, 부처님의 가르침과 위신력을 통하여 국운의 융창과 국민의 행복,
조상들의 명복을 위하여 단 하루도 스님들의 염불과 목탁 소리가 끊이지 않은 지장성지
전등사 수림원에 선망 부모와 형제자매 등 인연 있는 영혼들을 모신다면 반드시 천당과 극락에
태어나서 영원한 해탈의 즐거움을 누릴 것이며, 후손들은 이생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다음 생에서는 극락왕생할 것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전등사 삼.랑.성

전등사 수림원
032.937.0125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635
www.jeondeunsa.org

조계종 · 정각회 공조 절실

이해봉 정각회장, 포럼서 "자연공원법 등 관계법 개정 위해 필요" 주장

불교관계법 개선을 위해서는 '조계종-정각회'의 공조가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각회 회장 한나라당 이해봉(사진) 의원은 9월 2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불교인재개발원(이사장 허경만) 정책포럼에서 "그동안 정각회가 단순한 신행조직에 머물러 불교계가 필요로 하는 정책과 관계법 개정에 조직적으로 나서지 못했다"고 반성하고 "조계종 기획실도 불교계에서 필요한 관계법 개정을 정각회에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에서 발의돼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불교관계법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일부개정법률안-개발제한구역 내 종교시설에 대한 진입도로관련 규정완화(최재성 의원 발의) △자연공원법중개정법률안-자연공원내 전통사찰의 건축물에 대해 복원 및 증 · 개축 허용(정병국 의원 발의) △자연공원법중개정법률안-전통사찰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아 건축물의 설치 및 토지 형질변경 등을 허용(안상수 의원 발의) △자연공원법개정안-국립공원입장료 폐지(장복심 의원 발의) 등 4건.

이 가운데 정각회 소속 국회의원이 발의한 불교관계법은 동국대 출신 최재성 의원의 '개발제안구역…'이 유일하다. 최 의원은 진입도로 확보를 못해 산중사찰이 화재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되어온 폐단을 막기 위해 반드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타종교 신자인 모 의원의 극렬한 반대 때문에 건설교통위에 회부만 된 채 상정이 미뤄지고 있다.

반대로 '자연공원공원법…'의 경우 전통사찰의 건축물 복원과 증 · 개축 허용은 가톨릭 신자인 정병국 의원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환경노동위에 제출한 건이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정각회가 사력을 다해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있지만 불교계 차원의 관심과 지원 없이는 개정이 불가능하다"며 불교계가 나서 법 개정 여론 주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안상수 의원이 발의한 '자연공원공원법…'도 개발제한구역이나 그린벨트 내 전통사찰의 경우 당국의 허가를 얻어 건축물의 설치 및 토지 형질 변경 등을 허용하자는 내용이 골자지만 녹지 훼손과 타종교와의 형평성문제로 아직까지 건설교통위에 계류된 상태다. 이에 대해 포럼 참석자들은 "전통사찰은 1000년 이상 한곳에서 신행활동을 하고 있지만 산림청의 반대로 형질변경이 되지 않아 요사나 화장실 하나도 마음대로 지을 수 없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전통사찰의 경우 종교시설의 역사성과 특수성을 감안해 종교용지로 토지형질 변경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최근 조계종의 현안으로 민감하게 떠오르고 있는 국립공원입장료 폐지를 담은 자연공원법개정안과 관련해 기획실 관계자는 "공원 입장료 폐지는 종단의 오래된 입장이며, 문화재보호법을 근거로 징수해온 관람료 감소에 대해 정부에 보상방안을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이 의원은 "내년에 정각회 차원에서 도시공원내 전통사찰의 복원 및 신축이 가능하도록 도시공원법개정안, 전통사찰의 산지전용 및 전용부담금을 완화하는 산지관리법개정안, 전통사찰명의 농지취득을 허용하는 농지법개정안을 발의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 참석한 조계종 기획실장 승원 스님은 "재가불자들이 종단을 정책적으로 외호할 수 있는 기회와 역할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오늘 포럼과 같은 시도가 일찍부터 있었어야 했다"며 "인재불사의 차원에서라도 정각회과 긴밀히 협조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말했다.

조용수 기자

총무국장에 혜경 스님

조계종 총무원 국장급 인사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9월 28일 각 부서 국장급 교역직 인사를 단행했다.

총무국장에 혜경 스님, 기획국장에 원철 스님, 감사국장에 경우 스님, 재정국장에 덕관 스님, 조사국장에 서호 스님, 상임감찰에 각주 스님을 각각 임명했다.

지관 스님은 이날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국장 소임은 부장과 재가 종무원을 연결하는 핵심적 업무를 담당하는 자리"이라며 "각자 맡은바 임무에 충실하라"고 당부했다.

조용수 기자

고침 본지 597호 2면 '미주 승가회 결성' 기사와 관련, 창립일은 10월 5일을 10월 15일로 고칩니다. 같은 면 통도사 종회의원 출마 예상자 보현 스님을 보화(울산 옥천암 주지) 스님으로 고칩니다.

14면 경운사 보연 스님의 자장면 보시 기사 중 홍천교도소는 홍성교도소가 맞습니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노진환
110-030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법장 스님 1주기 추모 다례재 봉행

제31대 조계종 총무원장 인곡당 법장 스님의 1주기 다례재가 9월 29일 예산 수덕사 황하정루에서 봉행됐다.

추모법회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다례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비롯해 원로의원 천운 · 동춘 스님, 중앙종회의장 법등, 교육원장 청화, 수덕사 수좌 설정, 백양사 유나 지선 스님, 김의정 중앙신도회장, 고건 前 총리, 이명박 前 서울시장, 심대평 前 충남지사를 비롯해 문도회 스님 등 사부대중 2000여명이 참석했다.

조용수 기자

불국사 주지후보 성타 스님

산중총회서 선출

조계종 제11교구본사 불국사 선관위(위원장 종상)는 9월 29일 산중총회를 열고 제24대 주지 후보로 단독 입후보한 성타 스님(사진)을 선출했다.

이날 산중총회에는 교구선거인단 총 95명 가운데 57명이 참석했다.



성타 스님은 1952년 불국사에서 월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뒤 조계종 포교원장과 불국사 주지를 역임했다.

경주=배지선 기자

"교계신문 · 인터넷 꼭 본다"

지관 스님 기자간담회서 언론관 피력

취임 1주년을 1달여 앞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9월 27일 오전 불교계 기자들과 만나 평소 불교계 신문과 인터넷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피력했다. 특히, 불교계 언론의 총무원 집행부와 종단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에도 항상 귀를 열어 놓고 있음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기자회견이 아닌 일로 기자들이 총무원장을 대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다. 한 기자가 교계신문이나 인터넷 기사를 읽느냐는 질문하자 당연하다는 듯 큰소리로 "교계신문 모두를 꼼꼼히 읽는다"고 답하는가 하면, 세랍 76세 고령이지만 "인터넷매체들도 빼놓지 않고 보고 있



으며 당연히 'e-메일'도 사용하고 있다"고 말해 기자들을 놀라게 했다.

지관 스님은 이날 대학자답게 정론직필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예부터 사람은 삼봉(三鋒)을 조심해야 하는데, 첫째가 필봉(筆鋒)이고 두 번째가 설봉(舌鋒) 세 번째는 검봉(劍鋒)이다'라는 고사를 인용했다.

조용수 기자

관음사 선관위 등 조사의뢰

중앙선관위 "산중총회 무효"

중앙선관위(위원장 도공)가 종법절차를 무시하고 주지후보선출을 강행한 제23교구본사 제주 관음사 교구선관위 · 종무원을 호법부에 조사의뢰하기로 했다.

중앙선관위회의는 9월 25일 제161회 회의를 열고 관음사 산중총회의 무효를 선언하고, 적법절차에 따라 조속히 산중총회를 소집을 명령했다.

한편 21일 관음사는 산중총회를 강행해 현 주지 용주 스님을 주지후보로 선출했었다.

조용수 기자

"한글통일법요집 사용을"

조계종, 해외사찰에 배포

미국, 인도, 유럽 등 130여 조계종 해외사찰에 <한글통일법요집>과 동영상 자료들이 배포된다. 조계종 포교원은 "<한글통일법요집> 완간을 기념하고 해외 각지에서 포교활동을 하고 있는 해외사찰의 포교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통일법요집을 배포한다"고 9월 27일 밝혔다.

포교원은 <한글통일법요집> 1, 2권과 함께 간화선DVD(한/영), 불자예절(한), Invitation to Korean Buddhism DVD(한/영)도 함께 발송한다.

남동우 기자

☞1면에서 계속

'현등사 사리반환'은 도난 문화재 불법유통 근절에도 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사립박물관과 개인들이 장물시장을 통해 불교 문화재를 불법거래하며 소유권의 정당성을 암묵적으로 인정받아 온 오랜 관행의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반환받는 과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불교계의 한 사립박물관장은 "불교계가 삼성 측으로부터 사리를 반환 받는 과정에서 '압력과 힘의 논리'가 작용한 것은 부정할 수 없다"며 "일부 문화재 소장가나 사립박물관이 비공개로 소유한 불교 문화재를 수면 아래로 감출 것이 자명할뿐더러 앞으로 도난 문화재가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1년이 넘게 법적공방도 불사하며 '현등사 사리와 사리구'의 소유권을 주장해온 삼성문화재단이 1심 재판에서 승소하고도 결국 '사리 반환'을 결정한 이유는 뭘까.

혜문 스님은 "불교계의 거센 반발로 인해 '삼성'의 이미지가 크게 훼손될 것을 우려한데다, 불심이 돈독한 삼성리움박물관 홍라희 관장의 결단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관장은 독실한 원불교 신자이면서도 현재 불교여성단체 '불이회' 회장으로 활동하며 스님들과도 많은 인연을 맺고 있다.

1981년 삼성문화재단이 구입한 것으로 알려진 현등사 사리구는 은으로 만든 사리합과 수정으로 만든 사리호(사리를 담은 조그만 항아리)로 구성돼 있다. 사리호 안에는 사리 2과가 들어 있다. 사리합 겉면에 '懸燈寺(현등사)'라는 글씨와 함께 1470년 사리합을 만든 배경 등을 기록했다. 조계종 측은 "삼성문화재단에서 즉각적으로 반환하겠다고 했지만 전시시설 마련이나 사리 친견 법회 행사 등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11월 중 반환받아 삼성 측과 공동으로 '사리 친견 법회'를 열 것"이라고 전했다. <현등사 주지 초격 스님 인터뷰14면>

노병철 기자

'현등사 사리' 반환되기까지

△2004.11
현등사, '성보문화재 일제조사' 중 당시 현등사 사리구가 삼성문화재단에 소장되었던 사실 확인함
△2005.08.22
현등사, 삼성문화재단을 상대로 민사조정신청
△2005.10.07
민사조정 결렬, 정식재판에 회부
△2005.12.05
사리구 도굴범 서모씨, 봉선사로 자백 편지 발송
△2006.03.24
문화재청, "사리자체는 문화재로 지정된 바 없다"
△2006.04.18
현등사, 삼성리움박물관 방문해 사리구의 현장검증
△2006.07.20
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
△2006.08.03
'현등사 사리 제자리 찾기 추진위', 서울 서부지방법원장에 항의 방문

석가모니불 · 사리불 · 아란존자 진신사리 친견법회

구원겁 전에 성불하시고도 중생제도라는 일대사 인연을 성취하기 위하여 사바세계에 오신 석가모니부처님!

지혜제일 사리불존자!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까지 25년간 부처님을 시봉하신, 그래서 가장 부처님의 법문을 많이 들어 다문제일 아란존자님의 진신사리 삼탑을 장엄하게 조성하고 있는 천호산 백운사에서는 평생을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에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이 시대 한국불교의 참 지도자이신 태공 월주 대종사님을 모시고 다음과 같이 대법회를 봉행한 후 마지막으로 진신 사리를 대중이 함께 친견한 후 사리탑에 봉안하오니 모두 오셔서 부처님을 친견하는 선근인연을 맺으시고 복덕과 지혜를 구족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일 시 : 10월 29일(음 9월 8일) 일요일 오후 2시
- 장 소 : 천호산 백운사 (☎ 063-836-8047)
- 증명법사 : 태공 월주 대종사(전 조계종 총무원장)
- 참고사항
  1. 사리친견은 법회 당일만 가능합니다.
  2. 오시는 길은 호남고속도로 익산 인터체인지로 나와 여산으로 오시다가 여산 송씨 문중산으로 오세요.
  3. 부처님 진신사리탑은 8각 9층 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7교구 천호산 백운사 주지 우성 합장

종회의원선거 감시 나선다

교단자정센터, 금품 제공 · 수수 제보 접수

참여불교재가연대 부설 교단자정센터가 14대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선거를 전후해 금품제공 · 수수 등의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교단자정센터(원장 김희욱)는 9월 27일 '사회범죄 및 특정 부정부패 행위 출가자의 조계종 핵심공직 진출을 허용해선 안된다'는 제하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에서 교단자정센터는 개혁청원 · 요구 위주의 활동을 중단하고 부패척결 · 사회범죄자 교단 퇴출 등 교단자정에 치중하겠다고 밝혔다. 또 조계종 14대 중앙종회의원 선거를 전후해 뇌물수수, 알선수재 등 청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감시활동도 벌인다.

이를 위해 교단자정센터는 금품수수 등의 감시하기 위한 제보전화(02-2278-3671)를 설치하고, 제보가 접수될 경우 확인절차를 거쳐 배임수재, 업무방해 등으로 사회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종단의 자정능력으로는 부정행위를 막기 힘들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교단자정센터는 부적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하기 위해 뜻있는 출가수행자 · 재가불자 지도자 공개연석회의를 제안했으며, 종단에 대해서도 자격 심사 강화, 총무원장의 청정선거 의지 천명 등을 촉구했다. 박봉영 기자

이황우 교수 · 보광 스님 총장후보 선출

동국대 교수회 · 직원노조

동국대 교수회 및 직원노조의 차기 총장 후보자 선거 결과, 이황우 교수(경찰행정학과)가 1위, 보광 스님(선학과)이 2위를 차지했다.

'제16대 총장후보선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영재)'는 "전체 유효 투표 중 176.2표(30%)를 획득한 이황우 교수가 1위, 149.8표(25.3%)를 획득한 보광 스님이 2위를 차지했다"고 9월 28일 발표했다.

투표에는 서울캠퍼스 교수 298명 중 257명(86.2%)이, 직원 245명 중 209명(85.3%)이 참여했다. 경주캠퍼스 또한 교수 269명 중 241명(89.5%)이, 직원 131명 중 126명(96.1%)이 참여하는 등 서울 및 경주 총 재적인원 943명 중 833명(88.3%)이 참여했다.

이와 관련 동국대 이사장 영배 스님은 "원칙적으로 이번 투표로 차기 총장에 추천된 후보자는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 후보에 포함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영배 스님은 또 "교수회는 임의단체로서 교수들의 자율적인 행위를 막을 생각은 없다"고 밝혀 교수회 집행부에 대한 징계는 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남동우 기자

새터민 통일체육축전 정토회 주관, 15일

남한에 정착한 9000여 북한이탈주민(새터민)들의 최대 체육축제인 '통일체육축전'이 10월 15일 서울 양천구 양강중학교에서 열린다.

행사 주관은 대북지원단체인 (사)좋은벗들과 정토회.

올해로 4회째인 통일체육축전은 새터민 자원활동가들이 직접 행사 준비에 참가하는 등 새터민들의 명절로 자리 잡고 있다.

이번 행사에도 1000여명의 새터민이 참가해 한겨레 한마음 체육대회, 새터민 노래자랑 등을 펼친다. (02)587-8754

박봉영 기자

권오춘 이사장, 동국대에 13억 상당 부동산 기증

초허당 장학재단의 권오춘 이사장이 용인소재 시가 13억 상당의 부동산과 소장품을 모교인 동국대에 기증했다. 1961년 동국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한 권 이사장은 2004년 12월에도 서울 양재동 소재 오피스텔 5채(시가 12억)를 기증하는 등 총 25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동국대에 기증했다.

동국대측은 "이번에 기증받은 부동산을 권 이사장의 뜻에 따라 학교 교육, 연수시설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권 이사장 이름을 딴 기념강의실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환경보존은 불자들의 의무"

'불교환경의제21' 선포 … 284개 실천과제 자세히 제시

"절에 가는 날을 승용차 안타는 날로 정해서 실천하겠습니다. 음식은 먹을 만큼만 간단하게 요리하겠습니다."

생명존중과 환경보존의 불교사상을 사회와 가정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범종단적 실천운동 '불교환경의제21'이 선포됐다.

조계종 총무원과 조계종 환경위원회는 9월 27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불교환경의제21 선포식을 열고, 2003년부터 4년여간 준비해 온 '불교환경의제21'의 실천을 다짐했다. 또 모든 사찰과 불자들이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지침으로 널리 알리기로 결의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우리의 지나친 욕망을 제어하지 않으면 환경재앙은 예상보다 빨리 현실로 다가올 것"이라며 "불교환경의제를 실천하는 일은 이 세상을 함께 살아가는 유정 · 무정의 일체중생에게 선한 공업을 짓게 해 그 공덕으로 궁극의 해탈로 인도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불교환경의제21은 8개 분야의 기본실천덕목을 선정, 각 덕목별로 종단, 사찰, 사부대중이 실천해야할 86개 기본과제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환경보존 실천운동이다. 또 이를 보다 심화해 △환경친화적인 생활과 수행 △생태사찰 만들기 △수행환경 지키기 △사찰과 지역공동체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총 284개 실천과제를 조목조목 제시했다.


지관 · 수경 · 혜자 스님 등 불교계지도자와 오세훈 서울시장 · 이치범 환경부장관 등 정관계 인사들이 9월 27일 환경의제21의 실천사업인 빈그릇운동에 동참 서약했다.

불교환경의제21 실천운동은 조계종 환경위원회와 중앙신도회, 불교환경연대, 사찰생태연구소, 에코붓다, 인드라망생명공동체 등 불교환경단체가 주관해 종단, 사찰, 사부대중의 참여를 이끌어 나간다.

특히 사찰생태연구소의 사찰생태 모니터링사업과 불교환경연대의 빈그릇운동, 환경5계 제정 · 실천, 인드라망생명공동체의 친환경 공양미 실천운동 등은 공동실천사업으로 추진된다.

이날 불교환경의제21의 실천사업 가운데 하나인 빈그릇운동 선포식도 함께 열렸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과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수경 스님, 이치범 환경부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선우용녀 빈그릇운동 홍보대사 등이 동참을 서약했다.

지관 스님은 불교환경의제21 선포식에 앞서 환경위원회 3기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 제3기 조계종 환경위원회는 사회부장 지원, 불교환경연대 집행위원장 진원, 용덕사 주지 성효 스님, 김재일 사찰생태연구소장, 이도원 서울대 교수, 이병인 부산대 교수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글 · 사진=박봉영 기자

7대종교예술제 시민축제로

'나눔 · 기부문화 확산' 주제 … 21일 서울광장서

불교 개신교 가톨릭 등 7대 종교계가 참여해 열리던 대한민국종교예술제가 시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문화축제로 옷을 갈아입고 10월 21일 서울광장에서 선보인다.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공동대표의장 지관, 이하 종지협)는 "지난 1997년부터 종교간 이해와 화합을 위해 개최해왔던 종교예술제를 올해부터 종교인 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참여하는 시민문화축제로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제10회 대한민국종교문화축제는 관람 위주의 기존 프로그램 대신 체험마당 위주로 편성된다. 또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을 이번 문화축제의 주제로 선정하고 외국인 이주노동자와 새터민을 대거 초청한다. 문화축제는 페이스페인팅, 전래놀이, 풍선 나눠주기로 분위기를 띄운 뒤 이웃종교 생활문화체험 '다름과 닮음', 환경체험마당, 종교별 의복전시회, 종교인 사회활동 사진전 '하나 되는 세상'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행사도 다양하게 펼쳐진다. 종지협은 7대 종교단체 대표자와 문화관광부 장관, 서울시장 등 사회 각계 지도자들이 참여하는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서약식'을 개최하고, 이들이 기증한 소장품을 전시하는 전시회도 개최한다.

축제의 마지막은 종교문화축제의 취지를 알리는 '무지개콘서트'가 장식한다. 콘서트에서는 유명 연예인이 대거 출연해 '생명, 평화, 사랑의 노래'의 메시지를 전하고, 새터민과 이주노동자들의 특별무대도 마련된다. (02)720-8776

박봉영 기자

'우물 파주기' 몽골 간다

지구촌공생회, 울란바토르 외곽 12개 마을서

지구촌공생회가 추진하고 있는 제3세계 우물파주기 사업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지구촌공생회(대표 월주)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2006년 테마기획으로 실시한 최빈국 및 해외동포 밀집지역 지원사업 공모에 지구촌공생회의 몽골 빈민촌 마을공동우물 파주기 사업 'Very Well' 프로젝트가 선정됐다"고 9월 26일 밝혔다. 지원금액은 1억2천만원.

지구촌공생회의 제3세계 우물파주기 프로젝트는 지난해 환경재단이 실시한 공모에도 선정돼 캄보디아 캄풋주에 94개의 우물을 파주는 성과를 거둔 바 있어, '인기 해외구호' 활동으로 자리잡고 있다.

'Very Well' 프로젝트는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 시외곽지역 빈민촌 12개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 4000여명을 대상으로 안전한 식수를 제공해주는 공동우물 건설사업이다. 공동우물은 동파 방지를 위해 보호시설과 함께 건립된다. 지구촌공생회는 보호시설 내부에 도서관을 만들어 한국어과 몽골어, 영어 등 서적을 비치하고, 세계문화를 접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02)455-9596 박봉영 기자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절차 간소화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가절차가 대폭 간소화 될 전망이다.

문화재청(청장 유홍준)은 9월 28일 국가지정문화재 주변에서 행해지는 각종 건설공사와 관련해 건축허가 등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을 위한 기본 지침안을 확정 · 발표했다.

이번 지침안에 따라 시 · 군 · 구청장은 민원인의 의견을 수렴해 현상변경허용기준안을 작성한다.

기준안이 시 · 도지사를 경유해 문화재청에 제출되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 · 고시하게 된다. 따라서 그 동안 국가지정문화재 주변에서의 각종 건설공사 허가 처리기간이 1~2개월 소요되던 것이 시 · 군 · 구에서 즉시 처리할 수 있어 민원처리기간이 3일 내로 단축되게 됐다.

문화재청 건조물과 안정열 과장은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가에 대한 기준이 이번 지침안에 따라 마련되면 문화재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병철 기자

목탁소리

뮤지컬 '갓바위'의 한계

뮤지컬 '갓바위'가 9월 25일 그 베일을 벗었다. 어머니를 지극정성 봉양하던 형구(의현 스님)가 어머니의 죽음으로 10여 년 간 폐인처럼 산 이야기를 구구절절하게 엮은 전반부는 효 사상을 강조한다. 감동을 장담했지만 관객들의 반응은 냉랭했다. 한 관객의 "재미가 없으면 감동이라도 줘야지!" 라는 질책의 말은 관객의 공감을 얻지 못한 전반부의 한계를 극명하게 드러낸다.

뮤지컬의 특성도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 음악에 묻혀 노래 가사가 거의 들리지 않은 것. 무대장치는 좋았지만 배우들의 노래연기와 지루한 극 구성에도 냉정한 비판이 쏟아졌다. 불교뮤지컬의 한계라는 질책도 나왔다.

그러나 후반부는 달랐다. 시작부터 법고가 현란한 두드림의 쾌감을 선사했다. 불전사물을 연주하는 4인의 스님에게 관객들이 몰두하며 호응하기 시작했다.

후반부의 하이라이트는 원광법사의 입적과 다비식. 그나마 강태기, 박웅 등의 베테랑 연기자들의 연기가 극 전체를 빛내는데 힘을 발휘했다.

뮤지컬 '갓바위'가 첫 공연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수많은 공연을 통해 벼려진다면 해외무대 진출도 멀지않은 미래에 가능할 것이다.

■강지연(취재부 기자)

개산 1513주년

동화사 개산대재

단혔던 마음이 열리는 것을 깨달음이라 부르고,
그 깨달음을 구하기 위해 산사의 절을 지은 첫 시작을 개산(開山)이라 부릅니다.
금번 팔공산 동화사에서는 개산 1513년을 맞이하여 큰 재(齋)를 올립니다.
옛날부터 재에는 사부대중이 함께 참석하여 공동의 번영과 행복을 추구하여 왔습니다.
참석하셔서 부처님의 묘심(妙心)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개산대재 법요식 | 10월 21일(토) · 통일대불광장
■ 극달조사 영정 이운식 (10:00~11:00) 봉서루 ➡ 통일대불광장
■ 기념법요식 (11:00~12:30) 통일대불광장

개산대재 전야제 | 10월 20일(금)
■ 일만 화합의 등 밝히기 탑돌이 및 점등식
대웅전앞마당 ➡ 통일대불광장 (18:00 점등)
■ 빛과 소리의 향연 (산사음악회) | 통일대불광장 (19:00~21:00)
※ KBS1 문화의달 특집(산사음악회) 방송예정
- 일교차에 대비할 수 있는 따뜻한 옷을 준비하세요.

개산기념 문화축제 | 10월 14일~21일
■ 금석문물전 및 탁본체험
- 탁본전시, 와당 조각 작품 전시, 탁본실습, 부적작품 서각 체험, 낙관 새겨주기
■ 차와 함께하는 명상 사진전
- 명상사진 100여점 전시, 신라차, 고려차 등 전통차 시음행사
■ 불교사진공모전 및 전시회
- 동화사 및 불교소재 작품으로 타 공모전 발표되지 않은 작품 공모 및 전시
■ 마음 전하기(엽서쓰기)
- 경내에 우체통을 설치, 자신이나 보내고 싶은 분들에게 엽서 보내기(엽서 비치)
■ 옛길 걷기 및 화해와 상생을 위한 산행 - 10월 18일(수) 오전 10시
- 주지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들과 천주교 신부님들이 함께 동화사 옛길과 팔공산을 산행하면서 자연과 인간, 종교와 종교간의 화해와 상생의 방안을 모색, 실천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본사 동화사 대구광역시 동구 도학동 35번지 (053)982-0101~2

상조회에 실망한 불자, 타종교로 발길 돌린다

불교계 상조회 현실과 활성화 대책

재정 투명성 확보 안돼 2~3년 버티다 사라져
통일된 의식교육 부재, 종합관리시스템 도입 필요
인적 네트워크 만들고 재(齋)보시 인식 자리잡아야



상조회가 활발한 서울 불광사 연화부의 염불봉사활동. 불광사 연화부는 각자의 직업과 전문성에 따라 요리, 운전, 의식 등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따라 봉사한다. 사진제공=불광사

▷상조회가 종교를 바꾼다

대구에서 30여 년 동안 열심히 절에 다녔던 강모 할머니(78). 강 할머니는 2년 전 아들의 죽음을 계기로 개종했다. 며느리가 다니는 성당의 신부와 교우들이 밤낮으로 빈소를 지키며 아들의 명복을 비는데 감동받았기 때문이다. 상조회 며칠간의 봉사가 몇 십 년 동안 믿어 온 종교를 바꾸는 위력을 발휘한 것이다.

호스피스 관련 논문을 쓰고 서울 수효사법인사무국에서 일하고 있는 황경자씨는 "임종을 앞두고 타종교의 자상함 때문에 주변 노인 불자들이 개종하자 복지대학에 다니는 노보살들도 개종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을 뒷받침했다.

수효복지대학에서도 장의봉사 신청자에게 염불봉사 및 수의지급 등 정신적 · 물질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황씨는 "이 정도 지원도 가톨릭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밖에 안 된다"고 털어놨다.

조계종 포교사단 전승평 사회복지분과 위원장의 이야기도 이와 비슷하다. 전 위원장은 "가톨릭의 경우 병원을 중심으로 상조회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지만 불교는 아직 걸음마 수준"이라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또 "기독교 계통 병원이 많다보니 기독교 상조회는 출입이 자유롭지만 불교 상조회는 출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현실적 어려움도 토로했다.

▷기독교에 비해 극히 미약

불교계 상조회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된 통계자료는 없다. 다만 서울 도심사찰 및 각 사찰 봉사회 등 주요 신행단체에 구성된 지장회, 염불회 등을 중심으로 상조회가 조직돼 있다. 이들은 주로 장례기간 동안 지속적인 방문과 독경으로 포교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상조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첫째는 일정금액 납부를 통해 장례발생시 금전적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이다. 대표적인 사찰은 부천 석왕사(주지 영담).

석왕사 '108 상조회'는 불자 및 일반인 1300여명을 회원으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기본회원은 2만원씩 5년간 총 120만원을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일시불 납부시 10% 할인, 12개월 납부시는 5% 할인 등 납부기간에 따라 별도의 혜택을 주고 있다. 제공서비스로 장의용품 일체를 지급하고, 장례비품을 무료 대여해주며, 직계에 상제용품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입관, 시다림 등 용역서비스 일체도 제공한다.

둘째는 염불봉사모임 형태를 띤 신앙공동체적 형태다. 대표적인 사찰이 능인선원(원장 지광).

'능인상조회'는 매 불교대학 기수 중 6개월 후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모집한다. 장례 발생시 상조회장은 해당 기별 연락을 통해 상조회원을 동원하며 염불봉사는 오전 10시, 오후 3시, 오후 7시 등 3~4차례 방문해 2시간씩 한다. 장례절차, 문상객접대 등 필요한 모든 절차를 도와주며, 상조회 정회원에게는 납골당인 영묘전 분양 우선권을 주고 있다.

이 외에도 서울 구룡사, 대구 영남불교대학관음사, 인천 영산정사, 부산불교복지상조회, 대구지장불교상조개발, 대전아미타상조회, 청주연화불교상조회 등 사찰 및 불교단체에 상조회가 조직돼 있다.

불교자원봉사연합회 산하 구품연대, 부산 불교TV염불공양회, 전국불교장의연합회에 소속된 전국 14곳 지부의 장례업체에서도 염불봉사단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은 타종교와 비교할 때 엄청나게 미약하다. 이는 단순히 상조회 활동 미약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도관리체계에까지 영향을 준다. 또한 상장례를 포교 차원에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도 된다.

▷왜 안되나?

상조회의 일차적 목적은 사찰 공동체의 결속력 강화에 있지만 이를 바탕으로 외형적 포교 확대도 꾀할 수 있다.

얼마 전 모 장관이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예방시 불교계에서도 타종교처럼 공동체 문화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말을 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지난 수년간 많은 사찰에서 상조회가 생겼지만 2~3년을 버티지 못하고 사라졌다. 5년 전 모 사찰에서 운영했던 불교상례봉사교육과정이 중단된 것도 투명하지 못한 '재정' 문제 때문이었다. 주지스님이 상장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일정 기간 모여진 회비가 투명하게 공개되며, 정해진 용도로만 활용돼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다반사다. 그래서 혹자는 "재정 문제가 상조회 문제의 전부"라고 말하기도 한다.

상조회가 활성화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종단의 지원부족이다.

가톨릭의 경우 종단 차원에서 상조회를 조직 · 운영한다. 이에 비해 불교계는 종단 차원의 재정적 지원은 물론이고 일선 포교현장 스님들의 인식 부족으로 인해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통일된 의식교육 부재도 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실제 많은 포교사들이 사찰별, 지역별, 지도법사별 의식의 차이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만 개선은 요원하다. 최근 조계종 포교원에서 〈한글통일법요집〉을 완간했지만 이를 현장에서 적용하기 위해선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전반의 의식부족도 불교계 상조회 운영의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염불봉사는 재적사찰 신도나 연고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경계를 넘어 좀 더 많은 대중들에게 염불봉사를 하려고 해도 유족들의 이해 부족과 금전적 부담 우려 때문에 거절당하는 경우도 있다.

▷활성화 방안

최근 상업적 상조회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이 가운데 80~90%는 기독교인들이 운영하는 기업형 상조회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은 철저하게 상업적 목적을 띠고 있고 불교와는 전혀 상관도 없으면서도 광고나 팸플릿에 스님 사진이나 연꽃 불화 등을 넣어서 손님을 유치한다.

상장례 문화가 발달한 불교가 이들의 장삿속에 무방비로 당한다면 불심을 갖고 장례를 맡긴 이들에게도 큰 피해를 입히는 결과다.

불교계 상조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인적자원을 잘 활용해야 한다.

일반 사찰에서는 각각의 다른 신도모임을 이용해 염불봉사 등 상조회 활동과 관련한 각기 다른 수준의 교육을 시켜야 한다.

종단에서는 종합적 감독을 통해 수준별 교육과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사찰별 교육이수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 취합해야 한다. 이를 통해 사찰별 지역별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다.

상조계 형식의 상조회 활동은 매달 회비로 인한 수입과 장례서비스 시 이익사업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비교적 재정확보가 용이하다. 하지만 염불봉사 형식의 경우 일정 수입이 없거나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재정확보를 위해 정부에 장묘문화 개선 대책 마련을 건의해 장례 시 화장을 조건으로 장려금을 지원받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포교사단을 비롯한 신행단체에 대한 종단 지원금을 늘이는 방안도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 납골시설을 운영하는 사찰의 경우 그 수익금을 상조회에 지원하는 방법도 있다.

기존 상조회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도 상조회 활성화 방법이다. 현재 사찰 신도모임은 각각 법회별, 연령별로 나뉘어 있다. 따라서 각기 다른 수준으로 교육함으로서 해당 소그룹 소속 신도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일 수 있다.

이 외에도 종단 차원에서 상조회와 관련한 웹사이트를 개설하거나 기존 홈페이지에 상조회와 관련된 콘텐츠를 생성해 정보를 교류하는 것도 상조회 활성화에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불교장의연합회 유재철 회장은 "사찰에서는 상장례 봉사단을 꾸려 철저하게 재보시 개념으로 가야하고, 상조회를 꾸릴 수 없는 작은 사찰이라면 여러 사찰이 공동으로 상조회를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주일 · 남동우 · 조용수 기자

▷우수 상조회 운영 노하우

서울 불광사(회주 지홍)에는 '연화부'가 있다. 광덕 스님때부터 오랫동안 교육받은 전문적이고 조직적인 단체다.

회원은 일종의 재보시 성격으로 각자가 가진 직업과 전문성에 따라 요리, 운전, 의식 등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따라 봉사한다.

할 수 있는 역할 찾아 봉사
저렴한 비용에 납골당 제공

신도회 간부가 되기 위해선 3년 이상의 연화회 봉사경력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연화회 팀장은 누구보다 존경받는 신도로 인식된다.

부천 석왕사(주지 영담)의 경우 상조회를 비롯해 장례식장과 납골당 등이 유기적으로 조직돼있는 종합장례시스템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불자 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많이 이용한다.

서울 봉은사(주지 원혜)는 최근 주지스님 의지로 상조회 통장을 누구도 손댈 수 없게 사찰회계에서 완전히 분리시켰다. 상조회가 돈을 만들면 삐걱거리기 일쑤이기 때문이다.

은정학술상 및 은정장학금 선발계획 공고

(재)은정불교문화진흥원(이사장 자승)은 불교학 관련 학술연구자 및 불교단체 종사자 자녀들을 대상으로 은정학술상 및 은정장학금을 지급하고자 대상자 선발계획을 공고합니다.

분 야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선발인원
은정 학술상	▸ 불교학 관련 학위논문 및 저 · 역서를 은정학술총서로 출간	▸ 불교학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이상 연구자	○명
학술연구인력 장학금	▸ 각 300만원 지원	▸ 불교학 관련 박사과정 이상 연구자	○명
불교단체 자녀장학금	▸ 각 100만원 지원	▸ 불교언론, 신행단체, 불교시민단체 등의 종사자 자녀 중 초 · 중 재학생	○명

▮ 전형방법

서류전형

- 기간 : 2006년 10월 16일 ~ 10월 20일까지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 : (재)은정불교문화진흥원 ☎(02)515-9351
  137-906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42-2번지 은정빌딩 601호

※ 개별접수 및 우편에 한함

▮ 기타사항

- 구비서류 및 자세한 내용은 (재)은정불교문화진흥원 사무국으로 연락바랍니다.
- 서류전형 합격자는 개별통보를 해드립니다.

재단법인 은정불교문화진흥원

한국불교 근본수행법 다시 묻는다!

육바라밀 · 팔정도 대법회 강좌

매주 목요일 오후 7시(2006년 10월 ~ 11월)

불교는 붓다의 가르침을 말하고 있으며 불교의 중심교리에 의한 수행을 요하고 있다. 불교는 허상에 헤매지 않고 정확한 실상을 보고 연기법을 깨달아 갖가지 수행을 통하여 원만한 생활과 불보살의 길을 가는 종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불교는 염불 · 참선 · 진언 · 절 등의 수행에 그치고 있어 본도 수행인 팔정도 육바라밀이 널리 행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시대 중생의 고(苦)를 해결하고 생명의 존엄과 지구촌의 평화를 위해서는 붓다의 대(大)가르침인 육바라밀과 팔정도를 널리 알리고 실천해야 한다.

한국불자들이여! 육바라밀과 팔정도의 불국토 세상을 건설하자.



활안스님 법륜스님 지운스님 정엄스님 진옥스님 보각스님 금강스님 무진장스님

일 자	제 목	실천내용	법 사
10.12	팔정도	여덟가지 바른길	활안 스님
10.19	보 시	보시를 실천합시다.	법륜 스님
10.26	팔정도	여덟가지 바른길	지운 스님
11. 2	지 계	지계를 생활화 합시다.	정엄 스님

일 자	제 목	실천내용	법 사
11. 9	인 욕	인욕의 삶을 만들어 갑시다.	진옥 스님
11.16	정 진	정진의 열매를 얻읍시다.	보각 스님
11.23	선 정	선정의 지위에 들어갑시다.	금강 스님
11.30	지 혜	지혜의 세상을 펼쳐갑시다.	무진장 스님

※11월 30일 보살계 다짐 수계 (계사 무진장 큰스님)

● 개강일시 10월 12일(목) 오후 7시 ● 장 소 동산불교회관 ● 동참금 60,000원 (교재제공)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산반야회 · 동산불교대학

본대학 사무국 ☎ 02)732-1206~8 (우)110-140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한가위…그들이 있어 행복했네

대한적십자사 불교봉사회, 독거노인에 온정 손길



대한적십자사 불교 봉사회는 추석을 앞둔 9월26일 지역내 독거노인들을 찾아가 온정의 손길로 '행복'을 전했다.

어김없이 추석이 돌아왔다. 불과 6개월 전만해도 윤순자(65) 할머니에게 이번 추석은 꿈에도 그리지 못한 시간이었다. 몸이 아파 거동조차 할 수 없고 3명의 자녀들은 자신을 돌볼 수 없는 딱한 처지가 되자 죽고만 싶었다. 죽을 작정을 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고 죽음을 기다리며 시체처럼 누워만 지냈다.

화려한 아파트촌의 그늘에 가린 판자집에 누워 쓸쓸히 죽음을 기다리고 있을 때, 대한적십자사 불교봉사회(회장 박추자) 봉사자들이 할머니를 일으켜 세웠다.

대한적십자사 불교봉사회의 단위회인 하나단위회(회장 심금조)의 한정자(50), 배운자(60) 봉사자. 지금 이들은 할머니에게 새 생명을 준 은인이 되었다.

"맨 처음 할머니 집에 와보고 너무 놀랐다"는 한정자 봉사자는 "상위에 먼지가 3cm 두께로 쌓여있고 그 위엔 곰팡이까지 피어있어 사람이 사는 곳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그 당시를 회고했다.

장마철이라 지붕에서 새어 들어온 빗물에 흠뻑 젖어있는 요위에 할머니는 누워 있었다. 방안의 모든 가재도구를 들어내고 곰팡이가 덮여있는 물건들을 치우는데 며칠이 걸렸다.

죽을 끓여 할머니의 기운 회복을 도우며 일주일에 두 세 번씩 꼬박 꼬박 찾아왔다. 하루가 멀다하고 안부 전화를 드리고, 비

쓸쓸한 노후 비관하는 노인들
정기적으로 찾아가 '자식노릇'
식사·집수리 등 생활고 해결해줘

가 오면 할머니 집을 먼저 걱정할 정도가 됐다. 한달에 한번 목욕탕에도 같이 가고 시장을 보러갈 때도 할머니를 부축해 함께 다녔다. 외로움과 무관심속에 죽음을 생각하며 술로 세월을 보내던 할머니는 술 대신 밥을 끊여 먹으며 삶의 의지를 되찾았다. 요즘은 경로당까지 걸어갈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이 좋아졌다.

아직 비가 올 때마다 새는 지붕이 큰 걱정거리지만 무허가집인데다 집주인이 따로 있어 수리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수리하다 집이라도 무너지면 오갈 데 없는 처지가 되고 말기 때문이다.

지붕 때문에 걱정을 하던 배운자 봉사자는 "그래도 요즘 할머니 생활은 확 달라졌다. 밥솥에 밥이 있으니 기분이 너무 좋다. 할머니 집에 쌀 들고 올 때가 우리 집에 쌀 살 때 보다 더 즐겁다"고 봉사의 보람과 기쁨을 들려줬다.

"할머니, 차례상 차릴 장 보러 언제 갈까요? 목욕하러 같이 가셔야 하니까 내일은 어디 가지 말고 기다리세요." 봉사자들과 이런 저런 계획들을 세우는 할머니의 얼굴에 웃음이 슬며시 지나간다.

"내가 다시 살아났죠. 모두 고마운 봉사자들 덕분이지. 고맙고 미안하고. 이제 봉사자들 일손 좀 들려고 불편한 몸이지만 조금씩 방 청소도 하고 그래요."

대한적십자사내의 유일한 불교봉사조직인 불교봉사회의 이러한 활동은 대한적십자사가 지원하는 1,000세대 중 우수 사례로 뽑혀 적십자사 회보인 '인정의 샘터'에 소개됐다.

박추자 대한적십자사 불교봉사회 회장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자비행은 먼데 있지 않다"며 "어려운 분들에게 손을 내밀어 마음을 나누는 일에 보다 많은 불자들이 동참했으면 하는 원력 하나로 봉사현장에서 뛰고 있다"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개신교 망발' 강력 대응 재확인

진상조사위 2차 실무회의서, 자료 배포해 심각성 알릴것

부산지역 개신교 청년연합회의 기도회에서 사용된 '사찰이 다 무너지도록'이라는 기도 문구와 관련돼 9월 18일 꾸려진 진상조사위는 27일 2차 실무회의를 열였다.

범어사 총무국장 범산 스님, 포교국장 무관 스님, 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 손정현 회장, 왕선자 부산불교여성불자회 회장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해 불교계 내부의 힘을 결집해 강력 대응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한 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를 중심으로 우선 부산시내 모든 사찰에 지난 6월 4일 열린 부산 개신교 청년연합회의 기도회 자료를 시디로 만들어 배포해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는 한편 타 종교단체, 정치인 등에도 자료를 보내기로 했다.

특히 이명박 前 서울시장이 이 행사에서 축사를 한 것에 대해서는 항의서를 작성하고 불교법조인회등과 연계, 부산개신교 청년연합회에 대한 법적 조치도 강구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10월 2일 3차 회의에 이어 지속적으로 모임을 가지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내년 초쯤 대규모 법회를 열어 불교계 내부의 뜻을 한데 모아나갈 방침이다.

범산 스님은 "이번 사태는 간과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라며 "내 종교만 옳고 다른 종교는 존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종교인으로서는 있을 수도 없는 사고방식인만큼 올바른 종교관을 바로 세우는데 불교계 전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천미희 기자**

남해 화방사 14일 산사음악회

남해 화방사(주지 효천)는 10월 14일 오후 5시 화방사 대웅전 큰마당에서 '2006년 화방사 산사음악회와 연등축제'를 연다.

남해군민과 화방동산 자원봉사자, 후원자를 비롯 관광객 등 2천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보이는 이번 음악회에는 장사익, 마야, 성전 스님, 남해 출신 가수 태수, 남해성당 성가대 등이 출연한다. **천미희 기자**

"불교 바탕으로 교류 활발하길"
한일불교 여성부교류대회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주최로 9월 26일부터 29일까지 제2차 한일불교 여성부교류대회가 열렸다. 한 · 일 대표단은 27일 부산 삼광사 및 삼랑진 정토원 효심추모관을 참배하고 28일에는 언양 석남사 예불에 참석한 후, 부산 코모도 호텔서 여성교류대회를 가졌다.

한국 여성부 백대일심회장은 "26년동안 양국간의 교류를 해왔다"며 "앞으로 내실있는 문화교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범어사, 개산문예대제전 성료



부산 범어사(주지 대성)는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범어사 개산 1328년을 기념하는 개산문예대제전을 개최했다(사진).

'범어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범어사 개산문예대제전은 22일 의상대사 개산대재 법요식을 시작으로 길놀이 등으로 진행됐다.

22일 열린 법요식에서 범어사 주지 대성스님은 "이번 행사는 여러분과 스님 우리모두가 함께하는 축제의 자리"라며 "우리가 함께 어울려 화합을 노래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발원하는 자리로 만들자"고 말했다. **이은아 기자**

지역불교현장을 찾아서

"밝고 맑게 키워야죠"

부산진구 청소년지원센터

자녀를 잘 키우고 싶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을까? 그러나 양극화와 가정불화 등으로 가출, 학업 중단 등의 청소년 문제는 날로 늘어만 가고 부모들도 두 손을 놓고 마는 경우가 허다하다. 청소년문제는 이제 더 이상 한 가정이나 특정 부모만의 아니라 전체 사회가 떠안고 가야 할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부산진구청소년지원센터(소장 김금순)가 9월 28일 양정청소년수련관 4층에서 연 CYS (Community Youth Safety)-Net 출범식(사진)은 이런 관점에서 매우 주목받는 행사였다. 지역의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역 내 유관 단체나 전문가들이 힘을 모으겠다고 한자리에 모였다.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체계로 청소년들을 내 아이처럼 보살피겠다는 것이다.



이번 출범식은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을 뜻하는 CYS-Net의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부산진구에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보살필 커다란 사회적 울타리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산진구청소년지원센터가 위치한 부산진구는 전체 부산 청소년인구 85만명 가운데 10만5천명의 청소년인구가 몰려 있는 구인데다 서면 등 유흥가가 인접해 유동 청소년 인구는 더욱 많은 지역이다. 청소년 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CYS-Net 출범이 갖는 의미가 더욱 크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는 청소년문제는 지역 내에서 적극 해결한다'는 취지로 출범한 CYS-Net에는 범산 스님과 이승훈 부산진구청 복지사업과장을 비롯해 교수, 교장, 복지원 원장 등 10명의 운영위원과 각 복지관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로 구성된 16명의 실행위원, 44개의 협약기관이 손을 잡았다. 청소년들에게 적극 손을 내밀어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을 돕겠다고 나선 곳은 학교 17곳, 공공기관 7곳, 경찰서 산하 지구대 2곳, 사회복지 및 청소년 관련 유관기관 15곳, 의료기관 3곳 등이다.

양정청소년수련관 관장 범산 스님은 "청소년 사업은 금방 성과가 드러나는 사업이 아니라서 더욱 어렵다"며 "그러나 모든 형식을 벗어버리고 진솔하게 청소년들을 밝게 키우겠다는 마음 하나로 아이들이 행복해지는 길을 찾아 나가도록 지역내 구성원들이 힘을 모아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향 후 부 산 진 구 CYS-Net는 위기청소년을 빨리 발견하는 일부터 관심을 기울인다. 학교, 동사무소,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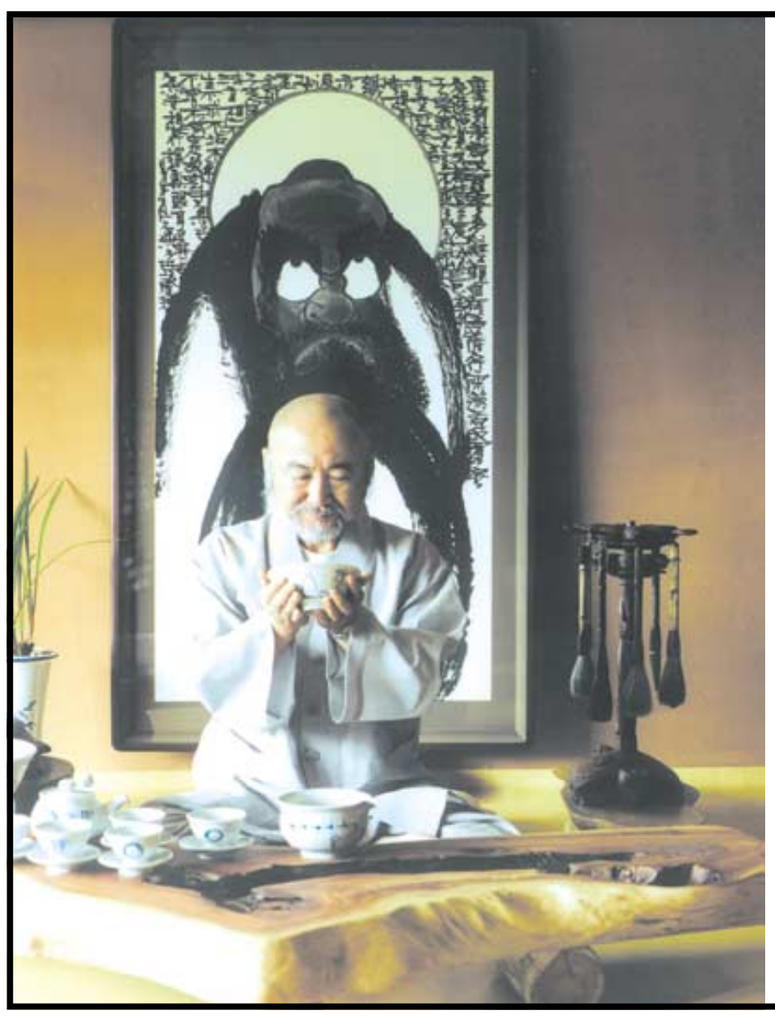
CYS-Net 출범시켜 청소년 문제 해결 나서
유관기관과 연계 법률 등 실질적 도움 줄 것

담기관 등이 유기적인 연관을 가지고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청소년들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 나가고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구체적인 지원 서비스를 펼치게 된다. 법률적, 의료적, 경제적, 환경적 서비스를 보다 섬세하게 펼치게 되며 민간단체 연계기관, 지역사회 연계기관, 청소년 위원회 지원기관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주게 된다. 청소년들이 도움이 필요한 시점에 즉시, 또 지속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9세부터 24세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펼치게 되는 CYS-Net는 2006년을 구축 기초 단계로 2007년에는 내실화 및 안정화를 기하고 2008년 활성화를 목표로 연관단체나 전문가 참여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천미희 기자**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경남남부지국 : (011)571-5316
울산지사 : (052)272-0909



범주스님 선묵(禪墨) 30년전

40여년의 광음의 흐름속에 참선과 예술을 하나로 참다운 나로 살기 위한 선묵일여(禪墨一如)는 나를 붙잡고 있는 변함없는 화두가 되었습니다. 선묵은 나의 수행방법이고 포교의 방편이 되었습니다. 이번 전시회가 본성의 마음을 나누는 마당이 되기를 합장 기원합니다.

서울전시회

제1전시장 - 조계사 국제선센타 건립을 위한 선묵화전
장 소 :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 전시장 (02-732-2183)
일 시 : 10월 13일 - 23일 / 개막포퍼먼스 13일 오후 2시

제2전시장 - 선차 발전을 위한 선차, 다기, 선다화전
장 소 : 사간동 법련사 전시장 (02-733-5322)
일 시 : 10월 13일 - 31일 / 개막포퍼먼스 13일 오후 6시

부산전시회

장 소 : 부산국제신문사 화랑 (051-500-5144)
일 시 : 11월 10일 - 20일 / 개막포퍼먼스 10일 오후 3시
연락처 : 속리산 선문화예술원 (달마선원 054-535-0378)

● 주 최 : 조계사
● 주 관 : 선문화 예술원
● 후 원 : 총무원(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대한불교조계종), 불교 TV, 불교신문, 현대불교신문, 한국차인연합회, 명원재단, 한국차문화협회, 효당본가 반야로 차문화원, 범어사, 부산차인연합회, 숙우회, 부산차인회, 여천차문화원



온 가족 참석하니 법회 분위기도 좋아

대구 관오사, 신행활동 활성화 위해 '이달의 가족' 선정



대구 관오사가 선정한 '9월의 가족'인 우태양(맨왼쪽)씨네. 오른쪽은 관오사 주지 지도 스님.

10월 1일, 대구 관오사 가족법회에 참석한 우태양(33)씨 가족에게는 특별한 날이었다. 관오사 가족법회가 선정하는 '이달의 가족'으로 뽑혔기 때문이다.

할아버지 김종한(62) 할머니 최태옥(58) 아들 김동수(34) 며느리 우태양(33)씨와 손자 민석(4)군이 한집에 사는 우태양씨 가족.

지난해 11월부터 매월 첫째 일요일마다 열리는 가족법회에 꾸준히 참석해 따뜻한 가족의 정을 나누며 모범적인 불자 가족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평을 받았다. 우태양씨 가족은 이날 300여 불자들의 축하 속에 관오사 주지 지도 스님으로부터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긴 불서 한 권을 상으로 받았다.

7월부터 시작, 인기 상승
신행정도 등 꼼꼼히 따져 선정

"일요일 온 가족이 법회에 함께 동참하면서 더욱 화목한 가족이 됐다"는 우태양씨는 "혼자 법회에 참석하다가 시부모님을 모시고 가족법회에 참석하게 됐는데 이젠 시어른들이 법회 날을 더 기다리신다"고 말했다. 시어머니 최태옥 씨는 "일요일에 온 가족이 함께 절에 가서 삶에 유익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어 감사했고, 온 가족이 두루 참석하는 법회분위기가 좋다"고 말했다.

관오사는 급변하는 현대사회, 세대간의 골이 깊어지고 문화와 가치관의 변화가 심각할수록 가족간의 정신세계 공유가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지난 7월부터 가족법회를 시작했다. 한 달에 단 하루만이라도 온 가족이 함께 법회에 참석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매개로 하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마련된 가족법회는 박완일, 목정배 교수, 묘허 스님 등 유명초청법사의 법문이 이어지면서 평균 300여명의 불자들이 참석한다. 그러나 냉정히 따져보면 여전히 가족이 함께 법회에 참여하는 비율은 늘어나기 않았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이달의 가족'을 선정하는 것.

'이달의 가족'은 총무 무일 스님과 종무실장, 사무장으로 구성된 종무팀과 가족법회 준비팀에 의해 선정되는데 선정기준이 까다롭다(?).

관오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일요가족법회에 정성으로 동참하는가, 신행생활에 모범이 되고 봉사활동에 앞장서는가를 꼼꼼히 살펴 선정한다.

첫 번째 영예를 안은 가족은 장옥이(69)씨 가족. 8월에는 김혜옥(48)씨 가족이 선정됐었다. 그러나 관오사 측은 "가족법회에 가족이 참가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 이를 내세워 상을 준다는 것 자체가 오늘날 신행의 현주소"라며 상을 주지 않아도 가족법회가 활성화 되길 바랐다.

물론 관오사는 '그 날'을 위해 가족이 자연스럽게 법회에 동참할 수 있는 가족단위의 신행활동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있다. 관오사는 장차 부부모임이나 이달의 가족으로 선정된 가족들이 함께 모여 서로의 신행생활을 공유하는 가족별 프로그램을 시행해 정착시켜나갈 계획이다.

배지선 기자 jjsun@buddhapia.com

본말사 성보 모아 과학적 보존

불국사 성보박물관 기공식 … 지하 1층 지상 1층 최첨단 시설

경주 불국사는 9월 26일 경내에서 성보박물관 기공식을 거행하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국비22억원을 포함해 총 74억원이 투입되는 불국사 성보박물관은 한국문화의 특성을 살려 지하1층 지상1층 연면적 459평 규모의 단층 목조 한식기와로 건립되며, 지하층은 수장고와 기계실을 갖추고, 지상1층은 전시관과 휴게실 등의 공간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또, 'ㅁ'자 건물로 지어 관람을 편하게 하고 최첨단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

불국사는 2009년 9월 박물관이 완공되면 본 말사에 흩어져 있는 문화재를 모아 과학적으로 보존 전시할 계획이다.

월산 대종사 추모 다례재에 이어 열린 기공식에는 불국사 회주 성타 스님을 비롯한 문도들과 백상승 경주시장 등 사부대중 250여명이 참석했다.

글 · 사진/경주=배지선 기자



9월 26일 열린 불국사 성보박물관 기공식. 작은 사진은 성보박물관 조감도.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영주지국 : (054)634-3429

찬불가 독창 CD 음반 제작
송림사합창단 백영숙 회장



20년 가까이 대구지역에서 불교합창단원으로 활동했던 불자가 최근 찬불가 독창 CD음반을 만들었다. 전문 성악인도 만들기 어렵다는 찬불가 독창 음반을 과감히 제작한 주인공은 대구 송림사 법희선열합창단회장 백영숙(53 · 사진)씨다.

백씨는 "20년 가까이 불교합창단원으로 활동한 기념으로 가슴 울리는 아름다운 선율과 부처님의 지혜가 담긴 찬불가를 보다 많은 불자들에게 알릴 수 있게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음반을 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백씨가 제작한 음반 백영숙 애창찬불가집 '사랑탑 화택세계'에는 백씨가 가장 좋아하는 찬불가 '사랑탑'과 '화택세계' 등 찬불가 15곡이 수록돼 있다.

백씨는 이번에 제작한 찬불가 음반 1000장을 모두 불자들에게 배포해 찬불가 보급에 힘 쓸 예정이다. 배지선 기자

추석 체험 다양한 행사 마련
대구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시어머님께 하는 큰절입니다. 공수(오른손이 위로가게 포갠다)! 손을 코끝까지 올리고, 배례! 왼 무릎 꿇고, 오른 무릎 꿇고, 머리를 숙입니다. 하나 둘 셋"

9월 27일, 베트남 몽골 중국 등지에서 온 외국인 결혼 이민 여성 16명이 불교사회복지회 부속건물 '심원'에서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조심조심 큰절 하는 법을 배웠다. 추석명절을 앞두고 불교사회복지회(대표 이사 지도) 산하기관인 대구광역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소장 김태화)가 한국추석 명절 경험하기 행사를 가진 것.

행사에 참가한 외국인 결혼이민 여성들은 선생님의 가르침에 따라 절하는 법도 배우고 송편도 만들었다. 또, 가족들을 부르는 다양한 호칭에 대해서도 배웠다. 아직 한국말이 서툴러 선생님의 설명을 놓칠 때도 많지만 선생님의 행동 하나하나를 주의 깊게 보면서 열심히 따라했다.

절하는 법을 지도하기위해 봉사활동을 나온 관오사 중국 다도반 권경자(59) 교사는 "언어소통이 다소 힘들 때가 있지만 너무 예쁘게 잘 따라한다"고 말했다.

한편 추석을 맞아 마하부다 구미보현의 집(대표 진오)도 10월 1일 송편 만들기와 한복입어보기, 제기차기 등 한국문화를 체험하는 다양한 행사를 갖는 등 8일까지 지역외국인 근로자 100여명을 초청해 추석 큰잔치를 벌였다.

배지선 기자



이번 소조불 주제 전시회에서는 그동안 학계에 보고되지 않았던 경주 석장사지 유물이 대거 전시된다. 사진은 석장사지 탑상문전.

흙으로 빚은 '깨달음'

동국대경주캠 건학100주년 기념 '래여애반다라' 展
국내 최초 … 삼국~조선 아우르는 소조불 100여점 전시

동국대 경주캠퍼스 박물관(관장 이점원)이 건학 100주년을 기념해 흙으로 빚은 소조불 특별전을 개최한다. 9월 19일부터 10월 20일까지 동국대 경주캠퍼스 박물관 전시실에서 열리는 "래여애반다라(來如哀反多羅)"전이다.

삼국시대에서 조선시대를 아우르는 소조불 100여 점이 전시되고 있는 이번 특별전은 소조불을 주제로 한 국내 최초의 전시회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지금까지 한국불교조각연구의 공백으로 남아있는 소조불에 대한 이해와 연구의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이번 전시회는 그동안 학계에 보고 되지 않았던 경주 석장사지 유물이 대거 전시되고 있어 주목된다.

1986년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박물관의 발굴조사결과 발견된 다량의 탑상문전(탑과 불상이 새겨진 전돌)과 소조상들은 우리나라 역사에 기록된 최초의 조각가 양지 스님의 작품으로 추정되는 것들로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있던 양지 스님의 진면목을 살펴볼 수 있는 보살상과 신장상 등 서역풍의 조각품이 포함되어 있다.

또, 탑상문전에 새겨진 불상들은 비록 소품이지만 국내에 유례가 없는 고행상을 비롯해 통일신라시대의 불교조각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다양한 도상이 출현하고 있어 우리나라 고대 불교조각의 내용을 풍부하게 해주는 귀중한 자료로 주목된다.



석장사지 소조상편.

따라서 동국대 경주캠퍼스 박물관은 이번 전시회의 테마를 양지 스님이 영묘사의 장육상을 만들 때 도성의 남녀들이 진흙을 나르며 불렀던 향가의 구절을 따 '래여애반다라'고 붙였다.

동국대 경주캠퍼스 박물관은 이번 전시회를 준비하면서 소조불 관련 도록을 만들어 관련기관에 배포했다.

배지선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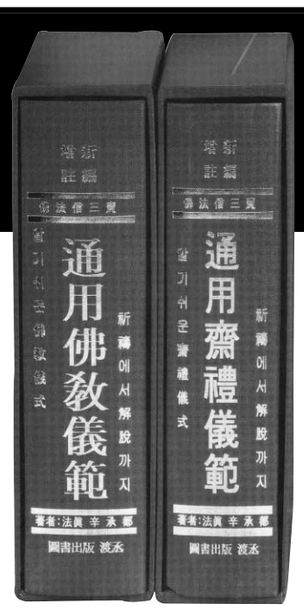
음정 박자 틀려도 '즐거워'
법왕사 경로잔치 30회 맞아

"나이는 77, 칠땡입니다. 범어동에서 왔다는 언니야, 울어라 열풍아 이어집니다."

사회자의 재담에 청춘으로 돌아간 할아버지 할머니의 열창이 이어지고 여기저기서 춤사위가 펼쳐졌다. 멋들어지게 구수한 옛 가락을 뽑아내는 어르신이 있는가 하면 음정 박자 하나 맞지 않은 채 불러대는 야릇한 곡까지 이어지면서 경로잔치가 무르익었다.

대구시 파동 법왕사가 30회째 경로잔치를 9월 23일 열어 지역 어르신 500여명이 흥겨운 하루를 보냈다. 배지선 기자

알기쉬운 佛敎 儀式
新刊 通用佛敎儀範 案內





귀의삼보하옵고
불교란 어떤종교인가? 깨달음의 종교이다.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업과에 의한 윤회를 믿고 보살행을 실천하여 성불하기를 염원하는 종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봉하는 불제자로서 의식법전의 순서의 어려움이 많아 수행하는데 우왕좌왕 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는 것을 실감하고 모든 불교의식집을 참고로 하여 의식을 간편하게 편집하여습니다.
의식이란 보는 이에 따라 甲論乙駁이 있겠으나 수행 초심자가 어디서 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막막할 때 이 의식집을 펴면 딴 페이지를 찾지 아니하고 모든 의식을 집전할 수 있도록 편집되어 있습니다.

▶총 1099페이지 법보가 ₩45,000

▣ 통용불교의범 특징
불보살 모든 불공의식은 불공의식 대로 편집되었으며 제목만 찾으면 모든 불공을 모실 수 있는 것이 이 책의 특징인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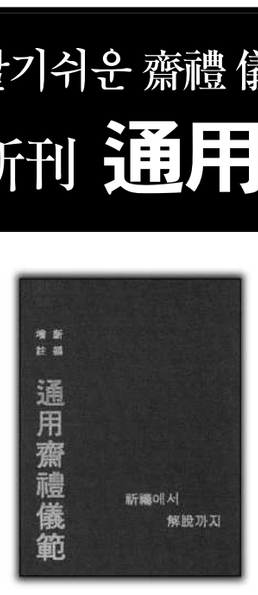
제1장 송 주 편 | 제2장 예 경 편 | 제3장 전각예경편 | 제4장 불 공 편
제5장 모든법회 | 제6장 방 생 | 제7장 제불보살복장단의식 | 제불보살 파불의식
제8장 점 안 편 | 제9장 이 운 편 | 제10장 수 계 편 | 제11장 고 사 편



編 · 著者
法眞 辛承都

대한민국 불교 교단에 계시는 모든 스님들께 소승 법진이 합장하고 고개 숙여 인사를 올립니다. 소승이 2년동안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2권의 불교의식집을 출간하여 모시오니 사용해 보시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나무 마하반야 바라밀

알기쉬운 齋禮 儀範
新刊 通用齋禮儀範 案內



천지지간 만물지중에 유인이 최귀하고 유 만물지 중에 유인이 最上最貴하니 사람이 있으면 예(禮)가 있고 예(禮)가 있으면 의식(儀式)이 필요한 것입니다.
불교의 1700년 역사속에 祖師님께 집필하신 의식집이야 말로 참으로 고귀하고 완벽한 의식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한문으로 된 의식집을 가지고는 어느 것을 먼저하고 어느 것을 뒤에 하는지 순서를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때가 비일비재(非一非再)합니다.
또한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빠르게 변해가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제례의식을 현실에 맞도록 모든 불교의식집을 토대로하여 초보자라 하더라도 집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총 1180페이지 법보가 ₩45,000

제1장 시 식 편 | 제2장 장 의 편 | 제3장 다 비 편 | 매 장 埋 葬
제4장 四十九齋 입재(入齋) 삼우재(三虞齋) 초재(初齋) 이재(二齋) 삼재(三齋) 사재(四齋) 오재(五齋) 육재(六齋) 칠재(七齋)
제5장 재 공 편 상주권공 삼정례 천수다라니 지장청 영산대재 괘불이운 건회소 영산작법 영산각배 운수상단 운수중단 배송(拜送) 예수십왕생칠재(預修十王生七齋)
제6장 기 제 사 | 제7장 靈魂結婚埴

■ 주문처 : 호국불교효예종 총무원 출판부 ■ 발행처 : 도서출판 도 승 ■ 편 · 저자 : 법왕불교대학장 신 법진 합장
☎ 02) 963-0607, H.P:017-361-1131 ☎ 043) 264-3008, H.P:011-9607-2199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2동 421-3번지 ■ 국민은행 : 027701-04-060958 ■ 우체국 : 013409-01-001220 예금주 : 호국불교효예종 총무원

사찰마당서 춤추고 노래해요

광주 파라미타, 무각사서 음악놀이 경연
1000여 청소년 열광… 연합팀 '리미트리스' 대상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사찰 경내에서 마음껏 끼를 발산했다.

파라미타 광주 청소년협회(지부장 광민, 이하 광주 파라미타)가 무각사에서 펼치는 음악놀이 경연대회가 화제의 현장.

올해에도 광주 파라미타는 9월 23일 무각사 경내에 무대를 마련하고 '제4회 광주청소년 음악놀이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광민 스님은 대회사에서 "열린공간에서 마음껏 자신이 간직하고 있는 꿈과 끼를 발산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경연대회에는 광주지역 30여개 중·고교에서 댄스, 밴드 등 15개 팀이 참가해 열띤 경연을 펼쳤다. 이날 무대에 오른 팀들은 지난 16일 실시한 예선에서 36개팀, 102명이 참가한 가운데 경합을 펼쳐 당당하게 본선에 올랐다. 공연 중간에는 지난해 댄스 수상팀 '소울라스틱'과 지허 스님 등이 초청되어 찬조공연을 펼쳤다.

광주 파라미타 이동배 사무국장은 "광주지역에서 예선에 30여개에 이르는 팀과 1000여명의 관중이 참여하는 청소년 놀이마당은 광주 파라미타 음악놀이가 유일하다"며 "금년에는 최고상이 국가청소년위원장상으로 승격되어 전국대회 수준이다"고 밝혔다.

이날 청소년 음악놀이를 관람한 지각 스님(동원사 주지)도 "1천여 학생들이 사찰에서 놀이마당을 펼치는 것만 보아도 신심이 난다"며 "청소년 포교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주는 것임을 실감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경연대회에서 광주공고, 세종고, 동일전자정보고 학생들의 연합팀인 '리미트리스'가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파라미타청소년협회 광주지부 주최로 1천여 청소년들이 무각사 경내에 마련된 무대에서 '음악놀이 경연대회'를 펼쳤다.

글 · 사진=이준엽 기자

지금, 우리 절에서는… 익산 백운사

천호산에 부처님 진신사리 봉안

익산 미륵사지 북동편에 천호산이 자리해 있다. 예로부터 보현(백운암), 문수(문수암), 관음보살(백련암)이 상주하는 부처님 땅이다. 각각 500m 거리를 두고 자리한 이들 암자에는 천년 전부터 보살을 친견코자 찾아오는 불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이러한 불교성지에 석가모니 부처님과 아난, 사리불 존자가 함께 상주하게 됐다. 보현도량 백운사(주지 우성)가 '부처님 진신사리탑'을 조성하기 때문이다. 도량 왼편에 마련된 70여 평의 사리단에는 중앙에 13m 높이의 8각9층 부처님 진신사리탑이 건립된다. 좌우에도 각각 9.5m 높이의 4각5층탑에 아난과 사리불의 사리가 봉안된다.

"이곳에 봉안하는 부처님 사리는 본래 미국에 모셔졌던 사리입니다. 이 땅에 불법이 다시 성행하게 될 인연이 었는지 희유하게도 부처님이 천호산으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4년 전, 미국에서 부처님 사리를 모셔온 우성 스님은 "지금도 부처님이 이곳에 오게 된 인연을 생각하면 희유하다"고 회고한다.

우성 스님이 모셔온 부처님 진신사리는 본래 미국에 거주하는 미얀마 의사 산야(San aye) 씨가 모셔왔다.

불자인 산야 씨는 미국에 탑을 세워 봉안하고자 했다. 그러나 아직 미국에 부처님 사리탑을 세우기에는 인연이 성숙되지 않았다. 결국 한국 교포불자와 인연이 맺어졌고 우성 스님에게 연락이 닿게 된 것이다.

백운사 주지 우성 스님은 늦깎이

20년 공들여 폐허에 대가람 중창
사리탑 조성 앞두고 29일 친견법회

그런데 공부에는 마장이 따르기 마련이었다.

불의의 화재로 그동안의 불사가 잿더미가 됐다. 백일기량 했던 기도를 멈추고 다시 천일기도를 입재했다. 대웅전, 약사전, 관음전, 삼성각, 미륵전, 종각, 요사채 등 10여동의 전각이 들어서고 도량이 일신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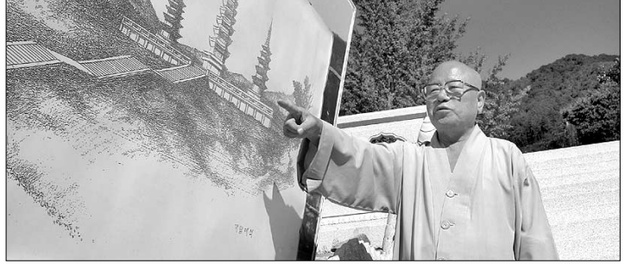
암자였던 가람이 규모가 커짐에 따라 백운사(寺)로 거듭났다.

이렇게 1만일간의 기도가 끝나고 미국에서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셔오게 된 것이다.

"물론 처처(處處)가 다 부처님 땅입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근기가 부족해 부처님을 가까이서 느끼고 싶어합니다. 부처님이 곁에 계신다는 것만큼 든든한 것이 없습니다. 정진하는데 힘이 부족하면 언제든 찾아오세요. 천호산에는 불 보살님이 두루 상주하고 계시니까요"

한편 백운사는 탑신을 세우기에 앞서 10월 29일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법회를 갖는다. (063)836-8047

글 · 사진/익산=이준엽 기자


익산 백운사 주지 우성 스님이 진신사리탑이 세워질 곳을 안내하고 있다.

특별자치 계기로 제주문화 발전 기원
제주 관음사, 한라산 영산대재 봉행

제주발전을 기원하고 제주특별자치 시작을 알리는 '제7회 한라산 영산대재'가 열렸다.



제주 관음사(주지 용주)와 제주도(도지사 김태환)는 9월 28일 관음사에서 천도제와 기원제, 경신공양제를 올렸다(사진).

이날 영산대재에는 지역 사암 스님과 관내 기관장, 도내 마을 대표, 제주도민 등 3000여명이 참석했다.

또한 이번 영산대재에는 고려 태조 왕건으로부터 성주 작위를 하사 받은 탐라국왕의 '조복'과 관직자들의 '공복'이 복원되어 의식을 더욱 장엄하게 했다.

한편 한라산 영산대재는 일제 강점기에 중단된 제주도 각 마을의 민중제례를 되살린 제주 토속신앙이자 전통문화로 제주의 군관민이 관음사에 모여 도민화합과 제주발전을 기원하고 있다.

아이와 단풍 즐기고 은행 줍고
천진암, 29일 '온가족…' 법회

아이들과 함께 애기단풍을 감상하며 마음껏 은행을 주워가는 특별한 법회가 열린다. 장성 백양사 산내 암자인 천진암(주지 해만)은 백암산의 자랑인 애기단풍이 절정을 이루는 10월 29일 '온가족이 함께하는 은행줍기 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천진암은 경내에 있는 수령 500년 가량의 아름드리 은행나무 세 그루 아래에 야단법석을 마련하고 사찰음식 공양과 함께 은행줍기 행사를 갖는다.

해만 스님은 "해마다 은행나무에서 10여 가마에 이르는 은행을 수확해 사찰운영에 큰 도움을 받았으나 올해부터는 대중들에게 회향하고자 한다"며 "가족이 함께 은행을 주우며 화합을 도모하고, 아이들에게 자연을 체험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준엽 기자

광주 북구청 불자회 창립



광주 북구청 불자회(회장 김희진)가 9월 27일 창립됐다.

이날 북구청 관내에서 근무하는 불자 70여명은 광주사암련 회장 혜향 스님과 송광운 북구청장, 김상용 북구의회의장 등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북구청 회의실에서 창립법회를 봉행했다(사진).

북구청 불자회는 매달 정기법회와 사찰순례를 갖고 지역민을 위한 봉사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이준엽 기자

재소자들의 사은 예술제

대전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회장 진공)는 9월 27일 대전 평송청소년수련원 대강당에서 '제2회 갇힌 자의 사은 예술제'를 개최했다.

예술제에서 재소자들은 청주여자교도소 합창단과 천안소년교도소 충의소년단 타악 퍼포먼스, 대전교도소 악대 등 교도소 특별반의 공연을 무대에 올려 종교위원과 교정위원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혜철 대전 충북 지사장

광주 · 전남 불교합창예술제

광주불교사암연합회(회장 혜향)는 9월 27일 5 · 18기념문화센터에서 '제10회 광주 · 전남 불교합창예술제'를 개최했다.

이날 예술제에는 광주불교사암, 증심사, 금광사, 백양사, 향림사, 원각사, 원효사, 보리살타, 전남천태종불교합창단 등 9개팀이 참가했다.

광주불교사암연 회장 혜향 스님은 인사말에서 "찬불가를 부르면 번뇌가 끊어지고 마음이 평화로워진다"며 "부처님 향이 가득한 불교음악이 온 세계에 퍼지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준엽 기자

광주불교방송
BBS FM 89.7 MHz
www.kjbbs.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호남지사 : (062)375-9986
대전충북지사 : (043)732-5560
충남동부지국 : (010)3069-3170

중관(中觀) 가관(假觀) 공관(空觀)
3관(三觀)의 법-
2000년 대승불교,
최상의 법(法)을 공개한다.


한치선 지음
각 권 11,000원


그가 주먹으로 눈물을 훔치며 산을 벗어날 때 공기를 타고 날아온 부처님의 목소리가 꽃향기처럼 그의 귓가를 스치었다. '너는 나를 버리고 가는 것이 아니다. 나 역시 너를 버린 것이 아니다. 먼 훗날 나의 일을 도울 날을 위해 너는 지금 고통의 길을 떠나는 것이니라. 그날이 오면 아니루다여, 너는 나의 가슴 뜰 위에서 천만의 사람들에게 거대한 종을 울리리라.'
-이천오백년의 회한 中에서-


전생의 막역한 도반으로써…이 생의 임무를 서약한 친구로서…원효는 그에게 어느 세상의 아버지보다 더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었고 설총 역시 자신의 사명을 무의식 속에서는 잊지 않고 있었다. 원효는 어찌 보면 설총을 자식 이라기 보다는 친구로서 대하고 있었다. 그와의 인과를 알고 있었기에…
-파계승의 노래 中에서-


파란만장한 전생과 중음의 삶을 지나 그렇게 아기도인은 태어난 것이다. 구선이 그 의식을 살펴보니 바라밀은 날 때부터 2선정(禪定)의 경지였다.
아기는 놀랍게도 4개월 동안 울지 않았다.
-아기도인 바라밀 中에서-


권 오임은 처음으로 구선을 보는 순간-깜짝 놀라고 말았다.
'언젠가 뵈었던 분이야! 먼…옛날부터..난 이 분을 알았었어…!'
그녀는 설법을 들으면서 더욱 확신할 수 있었다.
'이 분이다! 이 분이야말로…내 긴 수행여정의 종착역이다!'
그것은 수십 년을 수행해오면서 얻어진, 거의 본능적인 직감이었다.
-수행의 미로 中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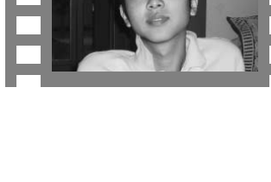

스승이 다녀간 후에 치선은 서예의 목적이 생겼다.
아니, 인생의 존재목적이 생긴 것이다.
붓글씨로써-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내리라…
-마음길을 담은 노트 中에서-

"네가 보현이라고? 지운큰스님의 후생이라는 보현이가 너였어?"
정오는 놀라움과 반가움에 어쩔 줄을 몰라 했다.
그녀는 보현의 가녀린 어깨를 부둥켜안고 토닥이며 조그맣게 속삭였다.
"스님…이렇게 또 뵙게 되는군요…진작 말을 하지 그랬어…요… 내가 지운스님이었던 보현이라고…"
-소녀로 돌아온 옛 스승 中에서-

'연화사는 숲이로구나…새도 와서 지저귀고 승냥이도 와서 쉬어가고…사람도 와서 열매를 따는구나. 천 가지 벌레소리가 아늑도 하구나….그렇게 더불어 끌어안고 가는 품이…나의 품보다 훨씬 더 넓은 것이로구나.'
-마음빗장을 열어라 中에서-







그의 가슴 중심에는 그러한 비젼의 씨앗이 움트기 시작했고, 무색계의 신명들이 이미 광대한 호응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생명을 사랑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장엄하려는, 빛과 소금 같은 사람들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다. 그들이 깊은 잠의 행성인 지구를 깨우러 올 것이다.
-금강삼매경의 인연 中에서-

그것은 구선에게 주어진 엄청난 선물인 동시에 엄청난 숙제이기도 하였다.
'아! 이것은 참으로 고귀한 수련법이로구나! 어찌해서 이런 법이 여태껏 인간세계에 봉인 된 채로 드러나지 않았던 것일까…'
-태백산용신과 옴수련법 中에서-

중심….근본…
아무렇지 않다…
그 순간에는 버스도 사람도 시영도 도로도..천지도 아무렇지 않을 뿐…그 어떤 것도 그를 흔드는 것은 없었다.
-어둠의 끝을 본 눈 中에서-

그 죽음의 시간 언저리에서-
아들인 시우의 전신은…지금의 아버지의 전신에게 씻기 어려운 불만을 가지게 된 것이다.
'당신의 판단은 옳지 않았어요! 우린…당신 때문에 죽게 된거야…!' 라고.
-지옥에서 만난 인연 中에서-

‘밀교종합문화센터’ 건립

진각종, 진각문화전승원 내년 착공… 역사 재현 · 체험공간으로

진각종(통리원장 회정)이 한국밀교문화의 역사를 조감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대규모 밀교종합문화센터를 진각종 현 총인원 청사 자리에 건립한다.

진각종이 밀교중흥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 건립 추진중인 대한불교진각문화전승원(가칭 · 이하 진각문화전승원)은 600여평의 대지에 지하3층 지상 6층(연건평 4천평) 규모로 내년 상반기경 공사에 들어가 2009년 12월에 완공될 예정이다.

내부는 한국밀교의례재현관(1층) 대한불교진각문화전승관(2 · 3층), 한국밀교복지원(4층), 한국불교문화콘텐츠센터(5층), 진호국가 근본도량(6층) 등을 갖춰 명실상부한 밀교종합문화센터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성된다.

특히 4천여평에 달하는 전승원 전체를 삼국유사에 근거, 신라시대 호국 밀교도량인 사천왕사가 들어섰던 신유림 공간 원형 배치를 재현한 신(新) 신유림 방식으로 설계할 방침이다.

1층에 들어설 한국밀교의례재현관은 신라, 고려, 조선의 밀교의례를 재현할 수 있는 전시장 겸 행사장으로 사용된다. 또한 이번 전승원에 주 공간이 될 진각문화전승관은 한국밀교문화의 역사를 한 눈에 조감할 수 있도록 박물관 형식으로 꾸며지며 아울러 공연장 시설도 마련된다.

한국밀교복지원에서는 고려시대 밀교복지기관인 ‘진각혜민서’를 고증 재현해 놓고 각종 불교복지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한국불교문화콘텐츠센터도 눈여겨 볼만한 시설이다. 이 곳에는 밀교문화체험실을 비롯해 밀교의례를 디지털화시켜 밀교문화를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최첨단 시설을 갖춰 관광체험관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맨 꼭대기층에는 대법당 성격의 도량을 만들어 밀교법회 의식과 진각종의 행사를 개최하는 공간으로 사용된다.

이외에도 한국밀교문화의 국제화를 통한 세계밀교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세계밀교우의회 사무실도 별도로 마련한다.

200억원이 소요될 총 공사비는 종도들의 성금 등 종단 부담금(70%)과 국고지원금(30%)으로 메워진다.

진각종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다는 차원을 넘어 한국밀교의 정통성을 보존하고 문화복지에 중심이 될 종합도량을 조성하는 대작 불사”라며 “세부적인 사업 계획은 10월 열리는 종의회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9월 24일 단양 광법사에서 봉행된 ‘소백산 지킴이 운동본부 결성법회’에서 정산 천태종 총무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소백산 지킴이 운동본부 결성

천태종, 생태파괴 감시 · 멸종위기종 보호 등 결의

천태종(총무원장 정산)이 소백산 보호에 발 벗고 나섰다.

천태종은 생태파괴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자연보호에 대한 범국민적 운동 전개를 위해 9월 24일 단양 광법사(주지 경혜)에서 1천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소백산 지킴이 운동본부 결성법회’를 봉행했다.

소백산 지킴이 운동본부(본부장 무원 스님, 이하 운동본부) 결성법회에서 상임고문 정산 스님은 축사를 통해 “산 지킴이들은 본분에 걸맞는 전문지식과 훈련을 쌓고, 소백산 동물과 서식생물의 생태연구도 병행해 환경문제의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본부장 무원 스님은 창립선언문 낭독을 통해 “환경과 생명을 살리는 보살의 서원을 세웠으니 헌신과 봉사의 마음으로 소백산을 지키자”고 당부했다.

발대식을 마친 후 지킴이 회원들은 소백산 연화봉에 올라 쓰레기를 줍는 등 자연보호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운동본부는 △생태파괴 감시 및 저지 △환경생태 보호 및 멸종위기종 보호 △환경교육 및 생태교육지도자 양성 △생태 연구조사 및 세미나 △지역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와 연대 △출판사업 등을 전개할 계획이다.

김주일 기자

법화경 사경 독송대법회

세계대각법화회, 부처님 세안의식 봉행

<법화경> 사경과 독송을 통해 한반도는 물론 세계 평화를 발원하는 대규모 법회가 열린다.

세계대각법화회는 10월 15일 오전 10시부터 경기도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 광장에서 ‘법화경 사경 독송 대법회’를 개최한다.

특히 이번 법회에서는 만델라이 사원 마하무니파고다에 봉안된 4m 크기의 ‘마하무니’ 세안 직책을 맡고 있는 예도 스님 집전으로 미얀마 전통 불교의식인 부처님 상호 세안의식도 함께 봉행된다.

마하무니 파고다는 1854년 민돈왕때 건립됐으며 만달레이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국보급 탑이다.

세계대각법화회 회장 도림스님(법화정사 주지)은 “<법화경> 사경과 독송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의 당면 과제인 평화 통일을 발원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법회에서는 다양한 부대행사도 펼쳐진다. 서예가 1000여명이 쓴 <한글 궁체 법화경>과 <한문 예서체 법화경> 전시회를 비롯해 호국 영령을 위한 추모제, 통일기원 음악회 등도 열린다.

한편 이번 행사의 수익금 전액은 남북한 수재민 돕기와 국제연합아동기금에 전달된다. (02)326-1331

김주일 기자

태고종 백련사 산사음악회

태고종 홍은동 백련사(주지 설산)는 10월 11일 오후 6시 30분부터 산사음악회를 개최한다.

태고종단의 후원으로 주민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코미디언 남보원씨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음악회에는 주현미, 설운도, 김종환, 이수나, 리미티드, 임석범, 바라솔리스트앙상블(남녀혼성중창단), 강태선(해바라기 객원싱어) 등이 출연해 찬불가와 대중가요, 가곡을 선사한다.

대승종 수륙재 · 방생 법회

대승종(총무원장 청화)은 10월 29일 오전 10시30분 대전 중구 뿌리공원에서 ‘종단 수륙재 및 방생대법회’를 봉행한다. 이번 행사는 영산재 시연에 이어 총무원장 법문, 방생 순으로 진행된다.

백련사는 식전 행사로 대중스님이 직접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를 시연하고 백련사 감로합창단이 찬불가 음성공양을 올려 백련사와 지역주민과의 만남의 장을 연출한다. (02)302-0288



민간인 최초 군사찰 주지 탄생

군종교구, 국방대 법당주지에 토진 스님 임명

민간인 성직자 가운데 처음으로 군사찰 주지가 탄생했다. 민간인 성직자는 군에서 종교활동을 허가받은 민간인으로 그동안 군법사가 상주하지 않은 군사찰의 법회를 주관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하지만 사찰 운영 및 관리 등 전반적인 권한을 갖는 주지 위촉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계종 군종교구(주지 일면)는 9월 28일 국방부 호국 원광사에서 신설 예정인 국방대학원 법당 주지에 서울 수국사 주지 토진 스님을 위촉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 부주지 계성 스님은 토진 스님(왼쪽)을 국방대학원 법당 주지로 위촉하고 9월 28일 임명장을 수여했다.

“창고 건물 리모델링 연내 낙성법회 열 계획”

군포교 새 활력소 기대

국방대학원은 정예 고급 장교의 육성을 하는 대학원 개념의 군교육기관으로 현재 육해공군에서 파견된 소령급 이상 고급 장교 1,100명이 재학중이다.

고급 장교가 되기 위해서는 이곳을 거쳐간다는 점에서 군포교 거점이지만 그동안 법당조차 없었다. 그러나 이번 토진 스님 주지위촉으로 국방대학원 법당 신설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대학원 법당은 현재 부대장이 창고 건물을 활용해 법당 건립을 허락한 상태. 토진 스님은 연말까지 건물을 리모델링해 낙성법회를 봉행한다는 계획이다.

민간인을 군사찰 주지로 임명하는 것은 그동안 군법사의 손길이 미치지 못해 관리가 되지 않았던 군사찰에 대한 운영 관리가 가능해지고 군사찰 신설에도 주인의식을 갖고 동참할 수 있어 군포교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계종 군종교구에 공식 등록된 법당은 모두 406개, 군승은 136명이다. 하지만 비공식적으로 750개정도가 될 것으로 군종교구는 추정하고 있어 군법사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군법당이 대다수다.

신임 국방대학원 법당 주지 토진 스님은 “군법당을 사찰에서 후원해 보았지만 후원 가지고는 군불교 활성화에 한계가 있는 것 같다”며 “향후 도량을 잘 꾸며서 수국사 신도회와 함께 법당을 운영해 지역 사찰과 군사찰 간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교구와 협조해 군포교에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 부주지 계성 스님은 “향후 지속적으로 지역 사찰 주지 스님을 군사찰 주지로 위촉해 군포교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두식 기자

누구나 동참할 수 있어요

■어떻게 진행되나

‘2006 군포교 합시다’ 캠페인은 ‘군법당-사찰-기업(학교 · 불교단체 포함)’을 하나로 연결,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군법당 후원체계를 갖춤으로써 군포교 활성화를 이끌어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군장병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등 미래불교의 씨앗을 심는 소중한 불사로 추진됩니다. 종단, 사찰, 기업, 단체, 학교, 개인 등 누구나 동참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동참하나

▷**결연** : 사찰-군법당-기업을 연결.
▷**군법당 건립 후원** : 낡은 군법당 재건, 신축 지원.
▷**법사 지원** : 법사 없이 진행되는 군법회를 지원.
▷**군법회 위문** : 소외된 군법회를 위문.
▷**정기적 물품 전달** : 군법당, 군불자에 후원품 전달.
▷**동참 및 문의** : 조계종 군종교구 (02)797-7266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02)2004-8291
▷**후원 계좌안내** : 006-25-0023-989 (국민은행,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477401-01-092896 (국민은행, 예금주 군종특별교구)

신설 군법당 부처님 무료로 모셔드립니다 불모 허길량씨 후원 석가모니불상(재료:銅) 문의 : 02-2004-8291

만 인 동 참 ARS : 060-700-0108 당신의 후원이 군불교를 살립니다

세계평화 3방안 제시!!

우리나라 국민 여러분! 전 세계인 여러분!
인류의 화합과 세계평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종교분쟁을 없에야 합니다. 지금 미국의 9.11 테러와 보복전쟁이 난 후로 자살 폭탄테러가 끊이지 않고 있으니 왜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이슬람교와 기독교 간의 천 4백년을 이어온 앙숙관계 때문입니다. 이 싸움은 그대로 두면 영원히 계속되며 세계평화를 항상 위협하고 중동지역 뿐아니라 전 세계로 번질 우려가 있습니다. 더구나 테러 리스트들은 핵무기를 가지겠다고 하니 이런 지구촌의 큰 위험을 방치해도 되겠습니까? 하루빨리 종교분쟁을 없에야 합니다. 이 종교분쟁의 핵심이 무엇이냐고 할 때 서로가 갖는 창조주 유일신 사상끼리의 충돌이 그 원인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두고 양측 종교가 세계평화를 외칠 자격이 있다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원인의 척결을 양측은 수긍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을 믿는 시대는 지났다고 보아야 합니다. 아마 예수님이나 모함마드님도 오늘날 태어났다면 종교전쟁이 수반되는 유일신교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음 둘째로는, 핵무기 확산방지 문제인데 세계의 핵무기를 가진 나라와, 갖고자 하는 나라가 세계평화와 인류공동 번영을 위한 일이니 합의하여 ‘핵 평화헌장’을 만들어 세계가 평화용으로만 공동사용, 공동관리토록 UN기구를 통해 실행하기를 제의합니다. 이 방법이 6자회담보다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 셋째로는, 한국에 "세계평화 중심센터"를 건립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한 반도는 지정학적으로 강대국에 둘러싸인 동북아의 화약고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지리적 불리함을 보완하고 국제분쟁의 예방차원에서 세계평화 중심센터가 꼭 필요합니다. 거기에 국민의 의식수준을 높히고 세계의 교육장이 되는 등 좋은 점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백층짜리 건물도 좋지만 이것이 더 시급하지 않을까요)

● **인류화합 세계평화를 위한 계몽 강연** 기독교(천주교, 개신교)와 이슬람교의 유일신 충돌만 분쟁원인이 아니라 성경 교리에도 타종교에의 침략적 분쟁요소가 많은 것도 시정대상임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예를 들면 이슬람인은 항상 <칼>을 차는 것이 침략자임을 보임이요, 기독교 역시 교주가 신자에게 <검>을 주어 싸우게 하러 왔다(마태복음 10장34절)는말씀 자체가 분쟁원인이니 종교간 화합 세계평화가 있을 까닭이 없으므로 이것까지 시정치 않으면 안되는 것을 세상이 모르기 때문에 계몽강연을 하려는 것입니다. 만약 기독교계에서 이를 부인한다면 이 강연을 들으시고 토론하기를 청합니다. 더욱 예를 들자면 카톨릭 성전 마태오 10장34절에도 내가 세상에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왔다 하고, 또 35절에는 아들은 아버지와, 딸은 어머니와,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서로 맞서게 하려고 왔다 라고도 하였으니 맞선다 함은 부모가 타종교를 믿을 때 그 칼을 들이대며 자기 교를 믿으라고 맞서 믿지 않거든 그 칼로 부모를 해치라는 말과 같은 것이 되니 이는 부모에 불효막측한 짓을 신자에게 가르치는 것이 되고, 37절에서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사람이 될 자격이 없다 라고 하였으니 이러한 교리들이 결국 전통 부모조상에 대한 효도사상 등 미풍양속을 파괴해 왔다 하겠고, 또 자기교를 펴기위해 칼을 쓰라고 할 때에는 필요하면 총이든 대포든 미사일이든 어떤 무기라도 사용하여 이 세상을 기독교세상으로 만들라는 것이 되어지고, 심지어 예수는 아마겟돈이라는 무서운 세계전쟁 또는 우주전쟁까지 일을키게 되어 있다니 예수는 성경 해설에서 ‘평화의 왕’ 이라지만 오히려 전쟁왕 그것도 우주 전쟁(광?)왕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런지? 그렇다면 완전한 평화종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강연을 받아들이신다면 외람되오나 여기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습니다.

● **宇宙的 新 淨土法門**
1. 정토삼부경의 극락세계 2. 극락세계와 천국 설법
〈상기 강연이나 설법을 요청하는 곳이 있으면 어디든 가 드림〉
日本國のお寺法會でもご要請 あれば參上お話(說法)して上げます.

● **본회가입 안내** : 성명, 연락처를 알려주시고, (영어숙달자 환영) 집회 추후 통지.
● **목적** : 세계평화 센터를 건립, 평화와 인류복지를 위해 세계적 활동을 하려 함.
이 일을 국내외 유지분들께서 주인이 되시어 함께 하시기를 간곡히 원합니다.
<찬조 및 광고성금 뜻이 있으신 분> 농협 811013-51-044560 사명정사(세계평화 정토회)

세계 막강
기독교계에 비판강연과
토론을 신청하는 法天스님!
자아! 기독교계가 어찌 나올까?
점잖게 응해올 것이냐?
꼬리를 빼 달아날 것이냐?
흥미진진!! 폭류도도!! 호호탕탕!!
세계 최초의 쟁론
기대하시라 천하가 주시하리!!
〈저 실론의 ‘파아나두라 대논쟁’ (기독교와 불교)은 세계평화문제가 아님〉
세계평화 정토회 일동 백

세계평화정토회 대표 법천 학산 합장
• 서울사무소 : 서울시 마포구 대흥동 22-67 402호 • 접수 : ☎ 02)3273-0841 / 팩스 02)3273-0840 • 직통 011-9230-2192

대구불교방송
문의) 053-427-5114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FM 105.5MHz
www.dgbbs.co.kr

BBS 춘천불교방송 FM100.1MHz
음악이 있는 오후 오후 3:05 ~ 4:00
감자바우 황금바우 오후 4:10 ~ 4:45



"애벌레가 된 자신을 상상해 보라"며 선생님이 영어단어 카드를 칠판에 붙였다.

기고…눕고…나뭇잎 갉아먹고…

"온몸으로 영어해요"

봉은사 영어 뮤지컬 프로그램 가보니…

9월 24일 오후 1시 서울 삼성동 봉은사(주지 원혜). 교육국장 선업 스님이 보우당에 올랐다. 시간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저질러놓은' 어린이 영어 프로그램이 잘 되어 가고 있는지 살피기 위해서다.

봉은사 보우당에서는 여느 법당에서는 볼 수 없는 진풍경이 펼쳐진다. 아이들이 법당에 누워 있는가 하면, 어떤 아이들은 큰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댄다. 법당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아이도 있고, 춤을 추기까지 한다. 부처님을 모신 법당에서….

온 법당을 누비던 모습은 간데 없고, 언제 그랬냐는 듯 낭랑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어 내려가는 아이들.

"I'm a caterpillar. Munch Crunch. I'm getting bigger."

애벌레가 된 아이들 각각의 상상력을 발휘한다. 애벌레의 동작이라며 법당을 기어 다니는 용준(거원초교 5년)이, 하늘을 보고 드러누운 근준(청담초교 6년)이, 화분에서 곱게 자란 나뭇잎을 갉아 먹는 흉내를 내는 경란(아주초교 5년)이….

아이들은 똑같은 자세로 누워 있으면서도 서로 자신이 진짜 애벌레 같다고 으스댄다.

엄숙한 법당이 상상놀이터로

상상력을 키워주는 연습을 하는 이 아이들은 다름 아닌 영어와 표현력, 상상력을 길러주는 교육을 받는 아이들이다. 그것도 뮤지컬로 영어를 습득하는 일종의 집체 프로그램이다.

발성과 춤, 연기까지 연습해야 하는 뮤지컬은 법당을 아이들의 상상놀이터로 바꾸어 놓았다. 아이들의 발칙한(?) 행동을 뒤에서 지켜보는 선업 스님의 표정에는 흐뭇함이 배어있다.

아이들을 두 조로 나누어 줄넘기 실력을 겨루는 시간으로 이어졌다. 보우당 벽화에서 힌트를 얻어 지은 이름인 청룡팀과, 근준이가 조장이 된 포켓몬스터팀은 팀원의 힘을 모으기 위해 작전을 짜면서 금새 친해졌다.

실력 견주기에 앞서 연습시간, 조장 원일(봉은초교 6년)이의 구령에 맞춘 청룡팀이 우세했다.

그러나 실전에선 포켓몬스터팀이 이겼다. 팀원들의 실수를 비난하던 포켓몬스터팀이 서로를 격려하며 집중력을 발휘한 것이다. 처음엔 어색해하던 아이들의 마음이 어느새 열려 있었다.

봉은사의 '어린이 영어 뮤지컬'은 전국 사찰을 통틀어 최초로 시도된, 뮤지컬을 통한 영어배우기 프로그램이다. 처음인 만큼 힘든 일도 많았다. '도심사찰로서 어린이 영어교육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당위성과 사명감으로 시도는 했지만,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여러 난관에 부딪혔다.

40명이 뮤지컬로 영어배우는 집체 프로그램
6개월간 영어·춤·노래·글쓰기·연기 지도

최근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른 영어 뮤지컬 프로그램인 탓에 선택의 폭이 좁았다. 사찰에서 지도할만큼 영어와 뮤지컬에 능통한 인재찾기가 힘들었던 것. 게다가 아이들이 모이지 않으면 그 또한 아니 함만 못한 일이 될 것이었다.

결과는 성공에 가까웠다. 프로그램 운영업체인 '기획컴퍼니 교하'에서 불자인 노영화씨를 만났고, 30명 정원을 훨씬 초과해 50여 아이들이 신청서를 냈다. 불자들의 호응에 한껏 고무된 봉은사는 레벨테스트를 거쳐 40명을 선발하고 9월 10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6개월 과정으로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노영화씨와 2명의 뮤지컬 배우, 어린이법회 지도교사까지 총 4명의 선생님이 6개월 동안 영어, 춤, 노래, 글쓰기, 연기를 지도한다.


줄넘기 실력을 겨루며 법당에서 자유롭게 뛰어논다.


청룡팀이 구령을 외치며 자신감을 드러낸다.


"내가 진짜 애벌레 같죠?" 서울 봉은사가 진행하는 어린이 영어뮤지컬 '참나찾기'에 참가한 아이들이 뮤지컬 연습에 앞서 상상력 계발을 위한 몸풀기 동작을 하고 있다.

봉은사의 '어린이 영어 뮤지컬'은 어린이법회 참석자가 많아지는 가시적인 효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아이들이 어린이법회에도 참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아이와 함께 사찰에 오고 싶어 하는 어머니들의 욕구를 미약하나마 수용할 수 있게 됐다. 봉은사로서는 일거양득인 셈이다.

어린이법회 참석자가 늘었어요

선업 스님은 "도심사찰은 아이 때문에 부모들의 신행활동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고충을 풀어줘야 한다"며 어린이 영어 뮤지컬 프로그램 외에도 놀이방·도서관 운영을 한다면 효과가 클 것"이라고 지적한다.

일반적인 영어 뮤지컬 프로그램은 학부모들의 요구에 따라 영어교육 위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봉은사 프로그램은 아이들의 영어 실력 외에도 창의력과 표현력, 협동심을 길러주는 본래 취지를 한껏 살리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봉은사는 6개월 과정이 끝나는 날 아이들의 뮤지컬 공연을 무대에 올려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공개할 계획이다. (02)3218-4821~8

글=박봉영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사찰 영어 프로그램 '인기'

서울 봉은사 외에도 어린이 영어 프로그램을 열어 신도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사찰이 몇 곳 있다. 서울 화계사 국제선원은 매주 일요일 오전에 무료로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영어반을 운영하고 있다. 나이와 상관없이 레벨테스트를 통해 적합한 수준의 반으로 편성되며 수업은 영어회화 위주로 진행된다.

대전 지역에서 불교영어 '붐'을 일으킨 대전 자광사 국제선원 불교영어학교도 지역사회에서 유명하다. 영어권 원어민 강사가 이끄는 토론식 수업 80분 동안 우리말은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불교영어법회를 열어 인근 주민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던 김포 용화사는 현재 사찰이 재건축 공사에 들어가 잠시 법회를 쉬고 있다. 내년부터 다시 영어법회를 열 계획이다. 대신 12월부터 1월 사이에는 호주로 떠나는 '제3회 불교어린이영어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은비 기자

사찰 영어교육 프로그램

장소	내용	시간	전화번호
서울 화계사	국제선원 어린이영어반	매주 일 오전 8~10시	(02)900-4326
서울 금장사	방과후공부방 영어교실	월~금 오후 5시	(02)395-0042
김포 용화사	제3회 불교영어어린이연수	12월말~1월초	(031)984-3234
대전 자광사	불교영어학교	1·2·3주 일 오전 10시, 오후 1시	(042)822-9220
포항 죽림사	영어회화 특별교실	매주 토 오후 2시	(053)247-4688
부산 홍법사	놀토 영어연극	2,4주 토 오전 10시30분	(051)508-0345

열침의효능 —— HEALTH BELT
삼성화재
금강약돌 온열복대
건강에도 최고! 선물로도 최고!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식약청 의료용구 개인용 온열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氣발생기 : A83060호
전기용품 안전 인정 : HH07236-5004A호
• 전자파 장해실험필 • 전자파 환경인증
• 삼성화재 배상보험 가입 •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혁신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 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강력한 원적외선 "열침"의 효과
불자님 안녕하십니까. 건강의 등불 금강닥터사입니다.다년간 건강제품에 열정을 바쳐온 본사에서는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 3대 특산품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한 기능성 건강치료기 온열복대를 개발하였습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볼이 70~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체내의 노폐물 배출 및 체지방분해로 만성위염, 소화불량, 생리통, 변비등에 탁월하며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백혈구가 증가하여 면역성이 강해지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실수 있습니다.

건강을 잃은뒤 후회를 하여도 소용이 없습니다
각종 환경오염으로 인류의 건강은 더욱더 위협받고 있으며 현대의학으로는 치유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기고 있습니다.
◎ 암세포는 42.5℃라는 보통 세포보다 낮은 온도에서 사멸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2005년 12월 20일 일본 동북대 학생신문(山家교수 발표기사) 발췌

식약청 의료기기 인증 금강약돌 온열복대의 효능
생리통, 복통, 요통, 냉증, 변비, 소화불량, 관절염, 전립선염, 피부염, 복부지방분해, 혈압조절, 피로회복, 체질개선, 혈액순환개선, 산후조리, 스트레스성 대상증상, 숙취, 암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온열복대와 유사품과의 비교

비교내용	유사품(세라믹, 맥반석 등)	금강석 온열복대
전기열선온도	70℃ 미만	95℃ - 100℃
접촉외부온도	50℃ 미만	1시간이내 70-80℃, 1시간후 80℃유지
복사에너지	가열시 복사에너지의 신체 투과열이 약하고 뜨겁다. 외부온도 50℃로는 복사에너지가 신체를 1Cm이상 투과하지 못하며, 보온역할 밖에는 안되므로 치료효과를 볼 수 없다.	외부온도 70℃이상일 때 복사에너지가 신체 깊이 들어간다.(췌장까지 42℃ 이상의 열이 도달) 1시간 착용시 오장육부의 활동력이 좋아진다.
원적외선	常溫(약40℃)에서 방사량이 90%가 안되며, 90%이하일 경우는 신체의 기를 오히려 뺏기게 된다.	常溫(약40℃)에서 93%, 50℃에서 95%가 방사된다. 인체에 유익한 미네랄원소가 60여가지를 포함하고 있다.
음이온	대체적으로 1cc당 500미만의 음이온을 넣는다.	1cc당 1,000-1,500개의 음이온이 나온다.

문의전화 : 닥터금강 (02)723-0099 ◆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지역 대리점 및 딜러 모집

사이버 신행 원조 … “더 큰 세계로”

유니텔 부처님나라 동호회 10주년 맞아 행사 다양



유니텔 부처님나라 불교동호회는 사이버 포교의 새로운 전형을 만들었다. 사진은 9월 23일 열린 창립 10주년 법회 후 기념촬영 장면.

인터넷 포털로 전환해 옛 법우 찾기 캠페인 펼쳐

지역별 시삽 두고 오프라인 법회 통해 친목 다져

회원들 올린 문서자료실 ‘장경각’ 유불동의 자랑

하루에도 수십만개의 웹페이지가 생성되고 사라지는 사이버 공간에서 십년 동안 금강같은 신심으로 신행활동을 펼치고 있는 단체가 있어 화제다. 유니텔 부처님나라 불교동호회(이하 유불동 http://club.unitel.co.kr/bud 대표시삽 성이용)가 바로 그 주인공.

9월 23일 ~ 24일 군포시 법해사에서는 전국에서 모인 70여명 유불동 가족이 창립 10주년 기념법회 및 제9차 수계법회를 열었다. 니르바나 오케스트라 공연, 법명 스님과 함께 흥겨운 시간, 수계법회, 화합의 운동회 및 산행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10주년을 자축했다.

유불동은 각종 소모임 활동을 통해 회원들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이 땅에 생활불교를 뿌리내리자는 취지로 1996년 5월 PC통신 유니텔에서 처음 개설됐다. 개설 당시만 해도 인터넷이 국내 상용화되지 않아 PC통신이 사이버 공간의 주류를 이루었던 시절. 유불동은 개설 한달만에 회원수가 천명이 넘을 정도로 불자 네티즌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하지만 인터넷이 상용화되면서 PC통신이 사라지는 등 어려움도 겪었다. 지금은 인터넷 포털 유니텔의 클럽으로 전환해 옛 법우 찾기 캠페인을 펼치며 사이버 신행의 새로운 전형을 만들어가고 있다.

유불동이 10년을 한결같이 금강 신심을 자랑하고 있는 요인은 바로 소모임 활성화.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에 접속만 할 수 있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특성으로 모든 회원이 한곳에 모이기란 쉽지 않았다. 그래서 서울/경기를 비롯해 대구/경북, 광주/전라, 충청, 강원, 제주, 경남, 부산/울산/양산 모임 등 지역별로 시삽을 두고 매월 오프라인 법회를 봉행하며 신심을 키웠다.

또한 참선, 염불, 경전, 봉사 등 자신이 선호하는 수행 방법과 사찰/문화유산 답사, 산따라 인연따라(여행), 명선계(전통차모임) 등 테마별로도 소모임을 만들어 정기적인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 회원간의 친목을 다졌다.

소모임 활동을 통해 신심과 친목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은 셈이다. 그 결과 유불동 클럽 홈페이지에는 하루에도 수십명이 방문해 글과 댓글을 올리며 생기 넘치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특히 페스티벌이 진행되는 어린이대공원은 10월 한달동안 무료로 개발될 예정이어서 추석 연휴와 가을 나들이에 나선 가족 관람객에게 큰 인기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홍정의 팀장은 “아직까지는 상업화된 캐릭터를 중심으로 단순 전시가 아닌 보고, 만지고, 느낄수 있는 체험 중심의 페스티벌을 펼치고 있다”며 “향후 봉축 캐릭터 등 비상업적인 캐릭터들도 함께 전시해 국내 캐릭터 산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김두식 기자**

美 LA에 ‘코리아센터’ 설립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는 한류 문화 확대를 위해 ‘코리아센터’를 설립키로 하고 첫 시작으로 LA코리아센터를 9월 30일 개설했다.

코리아센터는 해외문화원과 관광공사, 콘텐츠진흥원 사무소를 통합한 것으로 한국을 해외에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 문화의 근간이 불교 문화라는 점에서 자연스럽게 한국 불교를 세계에 알리는 역할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관광부는 코리아센터를 단계별로 확충해 △국가이미지 제고를 위한 통합 마케팅 △전통 · 민족문화의 세계화 실현 전진기지 역할 △한류 지속 · 확산을 위한 민관 네트워크 형성 △상호 신뢰와 쌍방향 문화교류 추진 등 다양한 활동도 함께 펼칠 계획이다.

김두식 기자

10년동안 회원들이 올린 자료 역시 문서자료실인 장경각도 유불동의 자랑꺼리다. 들려주고 싶은 법문, 불교 교리/상식, 유불동 법문정리 코너 등으로 분류되어 초심 불자는 물론 전문적인 불교 지식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유불동 성이용 대표 시삽은 “이번 10주년 창립 법회는 지난날을 되돌아보고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좋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유불동이 명실공히 전세계 불자들의 수행과 정보교환, 친목도모의 사이버 도량으로 자리 잡을수 있도록 진력하겠다”고 말했다.


유불동 홈페이지.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로봇 직접 운전해 볼까!



‘캐릭터상상 페스티벌’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원장 서병문)은 9월 26일 ~ 10월 22일 서울 능동 어린이대공원에서 국산 캐릭터 축제 ‘캐릭터 상상 페스티벌(www.characterfestival .com)’을 개최한다.

이번 페스티벌은 국산 캐릭터 50여종이 전시될 계획이며 캐릭터들과 함께하는 사생대회, 캐릭터 핸드폰 만들기, 캐릭터 문신스티커 만들기 등의 다양한 체험행사도 함께 펼쳐진다.

우리 가족 영상 만들기 14

쉽고 대중적인 프로그램 사용해야

영상편집 프로그램

지금까지 영상을 편집하기 위한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이야기했다. 그러나 어떤 영상 프로그램을 사용할 것이냐도 중요한 문제다. 프로그램마다 사용법이 다르며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는데 있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이다.

영상 편집 프로그램 가운데 가장 대중적인 프로그램은 프리미어다. 1991년 어도비사에서 맥켄토시 기반으로 만들었던 영상 편집 프로그램으로 1992년 윈도우 버전이 발표되면서 현재 프로 2.0 버전까지 발표되는 등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사용자가 늘고 하드웨어적인 뒷받침이 되면서 실시간 이펙트 및 송출을 지원하는 등 전문가용으로도 손색이 없다.

프리미어의 가장 큰 특징은 실시간으로 프리뷰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작업 결과를 모니터 창에서 바로 확인 할 수 있고 멋진 영상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효과도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여러개의 영상을 하나의 화면에 보이게 할수도 있고 효과를 적용해 다양한 장면을 연출할 수도 있다. 특히 필터와 장면전환 효과의 결과를 보면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강점이다. 편집을 하다보면 수많은 필터와 장면전환 효과를 모두 기억할 수는 없다. 하지만 실시간으로 장면 전환 효과를 프리뷰할 수 있어 원하는 장면 연출이 가능하다. 자체적으로 타이틀 데코라는 자막 프로그램이 플러그 인으로 제공되고 있어 간단한 자막도 제공한다.

초급 사용자라면 위지웍(WYSIWYG) 방식의 쉬운 작업환경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위지웍이란 ‘What You See Is What You Get’의 약자로 눈으로 결과물을 직접 확인하면서 작업을 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비디오스튜디오, 스튜디오7, 파워디렉트 등의 프로그램이 있다.

만약 편집 보드를 구매했다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위지웍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영상편집의 기초를 습득하는 것도 경제적이다. 회사마다 조금 다르지만 위지웍 방식의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유사한 작업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중급 사용자는 앞서 소개한 프리미어가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이고 그 외에 미디어스튜디오 프로, 엑스프레소 DV, 베가스 등의 프로그램도 추천할 만 하다. 고급 사용자의 경우 스피드레이져나 아비드가 좋다.

아비드의 경우 프로그램 가격이 비싸지만 안정적이라는 측면에서 전문가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아비드는 특별히 저장을 하지 않아도 자동 저장이 되기에 중간에 컴퓨터가 다운되었다든지 해도 언제든지 다시 불러와 작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대형 방송국에서 선호한다.

영상 편집 프로그램 하나만으로 완벽한 영상을 만들기란 쉽지 않다. 오디오가 불량일때는 오디오를 보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며, 좀더 화려한 자막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자막 프로그램을 별도로 사용해야 한다. 효과도 부족하다면 에펙트 관련 프로그램이, 다양한 포맷의 영상을 원한다면 추가적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도 필요하다. **김두식 기자**

클릭! 불교문화상품
불교문화상품전문몰 mahamall.co.kr
상품문의 : (02)732-1520



가격: 8,000원

선향
식물성 생약으로 제조한 전통 방향제로 유리부착용 큐방이 달려 있어 차걸이 방향제로 아주 좋습니다.
성 분 : 당귀,천궁,박하 외 4종
사용기간 : 포장 개봉 후 4개월
용 도 : 자동차, 욕실, 거실, 침실, 공부방, 장농 등
크 기 : 선향(中) 110 x 130mm

관세음 여의주 수진언 향로
불자가정에 꼭 있어야할 영험의 가보 중 하나!
99% 청동만으로 만든 영험의 명작

불교에서 관세음보살 수진언은 세상 모든 중생들의 소원을 성취시켜주는 영험을 담고 있으며, 실제로 관세음수진언은 큰스님들로 하여금 그림으로 그려져 어려움을 겪는 불자들에게 긴급비방으로 사용해왔다.

관세음보살 수진언 향로를 집안에 모시는 순가부터 관세음보살의 성심으로 어려운 사업장이 부도 위기를 넘기고 2년간 패하기만 한 소송에서 승소를 하고, 어렵다고 생각한 아들이 S대학에 합격하고, 팔리지 않아 고민하던 부동산이 팔리고, 복권 1,2,3,4등이 모두 당첨되는 등 관세음보살님의 영험이 나타나고 있는 국내 최고의 향로로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윤달이 있는 해에는 부처님 공양구를 가정에 모시면 삼재도 소멸되고 가족이 건강하고 화목하며 화를 좇고 동서남북의 보배재물이 들어오며 소망하는 모든 것이 부처님 가피로 성취된다.

관세음보살 수진언 향로는 99% 청동만으로 국내에서 불경에 입각해 제작했으며 중국에서 싸게 만들어 들어오는 국보급 향로로 인정받고 있다.

관세음 여의주 향로의 비방은 원하는 소망의 방향에 놓고 소원기도를 하며, 평상시 사용하면 된다. 전화로 신청하며 우체국 특급택배로 정성껏 보내드리며 신용카드 분할 구입 또는 현금 구입할 수 있다. (가격 295,000원)


무게 2.5kg 높이 22cm 가로 17cm

향로는 만들기 쉽게 합금을 하여 2~3년만 지나면 회색꽃이 피고 부식되고 변질되지만 관세음수진언 향로는 천년이 지나도 변질되지 않으므로 가정의 번영과 안녕을 지켜주는 가보와 수호신으로 가정에서 추석 제례시 또는 예불시 사용하다 후손에게 물려줘도 손색이 없는

■ 문의전화 02-741-4488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http://club.cyworld.com/kapilla

예불시 제례시 향피우고 사용!
소원 성취 비방 향로 놓는 방향
• 업이 풀리지 않고 있을 때의 비방은. 동쪽
• 중대한 시험을 앞둔 합격의 비방은. 서쪽
• 자녀를 기다리는 잉태의 비방은. 북쪽
• 승진과 취업을 기다리는 비방은. 서쪽
• 중대한 병고로 소생의 비방은. 북쪽
• 송사문제의 승소의 비방은. 서쪽
• 인연의 짝을 찾는 결실의 비방은. 동쪽
• 가정의 위기와 애정회복의 비방은. 북쪽

평생 부자지갑
존경하는분께 사업성공의 선물!
사랑하는 아내에게 평생 부자의 선물!

옴마니반메훔福지갑
음양의 조화로 놀라운 재물과 땅속의 보화까지 얻는 비방


님성용중지갑 (검정)
여성용롱나노 장지갑
(적색, 보라색)

세상을 살다보면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고 몸질로는 고통을 받고, 해결해야할 문제는 쌓이고, 부부간의 애정은 멀어지고, 안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답답한 것은 음양의 조화를 깨닫지 못해 일어나는 일들이다. **세상사는 동안 고통중의 고통이 몸질이 없어 당하는 고통으로** 부처님께서 시위국 기다림 산중에 계실 때 가난으로 헐벗고 고통속에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내리신 **영험의 비방이 옴마니반메훔 육자대명왕진언으로** 항상 외우고 간직하면 모든문제가 놀랍게 해결된다고 설하셨다. 불경에 입각해 법구를 전문으로 제작하는 카필라불공사에서 점안불공과 축원불공을 마친 옴마니반메훔 복지갑은 일반지갑과는 비교될수 없게 최고급으로 제작하고 천연가죽에 은나노처리까지 했으며 지갑입면에는 **음양의 조화로 만사가 형통되는 육자대명왕진언**을 넣고 지갑내부에는 **동서남북에서 돈을 들어오게 하는 보병과 악귀와 잡귀를 쫓고 계획한 일과, 하고 있는 일을 막힘없이 성취시키는 영험의 비방인 반장**을 순금도금하여 넣었다.

출시 100일만에 안되면 장사가 잘되고, 절망속에 있던 사업장이 희망이 넘치고, 생각지도않던 돈이 들어오고, 못팔아 걱정하던 재고가 팔리고 고민하던 부부관계가 회복되는 등 모든 문제에는 비방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지갑이다. 옴마니반메훔 지갑을 여성이 지닐때 고민하던 문제가 해결되고 가정이 금전적으로 풍요로워지며 음양의 조화로 부부관계도 놀랍게 회복된다고한다. 고급케이스에 있어 선물로도 대단히 품격이 있으며 전화로 신청할때 사용하실 분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100일간 소원성취를 위한 새벽축원불공을 드려드리며 지갑은 우체국택배로 바로 보내준다.

여성용장지갑 95,000원
남성용중지갑 65,000원
■ 문의전화 02-741-4488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http://club.cyworld.com/kapilla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불자 생활 정보



▷ 광고문의 : TEL 02)2004-8213~6, 02) 732-1522
FAX 02)737-0696
▷ 계좌번호 : 농협 053-01-227471 현대불교신문사
▷ 광고가격 : 1Box(4.4×4.4) 4만원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각 사찰에 모든 행사 장엄해 드립니다
49재, 천도재, 바라, 나비무
살풀이, 승무, 회심곡, 태평소
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집전위주교육 6개월
위치: 부산 온천동
051)516-5691
017-556-5691

천연고불마애석불 (문 화 재)
현재 사용중인 사유지
2천평에서 불교문화를
꽃피울 법연을 기다립니다
연락주세요 -선학원-
011-829-9153

역학개인지도
명리,성명,택일,풍수
쉽게 풀어보는 명리첩경
著者 반야선원 혜공 합장
02)421-8494
017-606-6628
(전화 상담도 함)

數(수)修理(수리) 사주팔자
● 천체의 이동에 따른 지축의 정립으로 인해 1년이 360일이 되며 양력과 음력이 일치하니 기존의 달력이 새달력으로 바뀌며 周易(주역) 다음으로 제 3역인 교易(정역)으로 쓰인다.(일부김항선생의 정역편에서 발췌)
• 동서양을 통해 변하지 않는 근본(기본적) 숫자를 통한 특유의 접술로고.
• 숫자가 사람 장소 사물에 대해 제공해줄 수 있는 숨겨진 의미를 찾아 운명해독의 비법전수
• 교재) 수수리수인작법서 무료증 (시중에 절판된 책)
수강처 : 031)633-1517

사찰의 각 행사 해드립니다
천도재, 49재, 점안식,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 회심곡, 호적
행사문의
010-4870-8359
범음범패 연수원장 덕산 합장

회심곡.천도재. 49재.바라.태평소
학인스님 행자모집
범음범패 교육도량
인간문화재 9호 이수자
마산 밤밭고개 세원암
016-428-6665
055)222-9486 천우 합장

눈 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노환으로 작은글씨 안보이시는 분
눈흐림, 눈건조, 눈부심, 침침함,눈빼빼함,
눈곱, 충혈, 시력강화, 렌즈착용 하신분
섭취하고, 반응 없을시 100% 환불
구입문의 (02)2631-2205,1305

제 24기 풍수지리 사주학교육생모집
● 강사: 임창열(배재대, 서라벌대출강)
● 풍수지리: 매주 화, 금(10시, 14시 ,19 시)
● 사주학: 매주 월, 목 (10시, 14시 ,19시)
http://www.kpse.co.kr
042)255-8482
011-437-8807
한국정통풍수지리교육원

행 자 모 집
입산 수행하여 정법을
받아서 포교생활에 뜻있는
남,녀 행자를 구합니다
(대구시내 포교원)
011-509-9569

조상 천도재 무료로 여법하게 집전해드립니다
(단 준비물만 해오십시오)
건강상담 및 팔상체질감별 무료
031)834-3207,833-6803
017-288-6863/010-4860-6863

행자모집 (예비스님)
참신하고 불심이 돈독한
(女)행자를 모집합니다
연령: 45세 미만 여성
사단법인 대한불교 홍은선원 홍은사
054)822-3133
011-9576-4450

경주 도심속 자연경관이 수려한 「비구니선원」 분양안내
■ 22.2평형 - 3세대
■ 18평형 - 3세대
■ 14평형 - 5세대
} 총 잔여세대 평당분양가 (390만원)
경북 경주시 충효동 450번지
대한불교 조계종 선도산 금선사 여래선원 주지 휴청 합장
문의 전화 054)772-7171 011-538-3879

사주 명리 구성학 성명 택일 궁합 관상 풍수
역학개인지도,숙식제공
보현사 학산철학원
원장 학산 합장
054)383-4569
016-717-1592

전국최대 비로자나 부처님 법도량
70억 불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3천평-7천평 정도의 명당사찰부지
(무보시)하실 분 또는 기존의 사찰운영이
어려워 함께 동참하는 뜻으로 21세기
한국불교 발전에 크게 기여하실
동반자를 기다립니다. 현재사찰운영중
010-9443-7881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60세 이하
전북 고창
063)564-2861

공양주 불자님 모십니다
운전 가능한 분으로
▷40대~50대
삼랑진 055)352-6556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 모십니다
▷55~65세
054)971-7561

평생 같이하실 기도스님 모십니다
▷ 55~65세
018-427-2256

청정한 나반도량입니다
천일기도 용맹 정진할
비구니 스님과
보살님 모십니다
055)835-9450
011-9790-1779

공양주보살님 (58세이하) 구합니다
041)673-3222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월보시 80만원
강남구청역사거리(7호선)
02)458-1108
010-5541-6568(오후5시이후)

문화재 한옥에서 전원생활 하실 분
▷토굴 생활도 가능
010-9514-8882

부전자리 원합니다
▷50대 초반인 비구스님임
010-9474-0800

조계종 소백산 국제제일 지장보궁인 내원암에 고통을 쉬려는 40-50대의 신심있고 내집처럼 살 공양주 구함. 그리고 모든 소원 들어주는 조용 하고 영험과 가피가 현전한 지장 현신도량에 기도할 보살 안내함.
소백산 지장보궁 내원암
경북 054)653-1180

부전스님 모십니다
▷50세 이상
경기도
011-286-0068

부전스님 모십니다
▷대전
011-591-8228
042)271-6249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주 남산 위치 사찰
011-744-1650

산 좋고 물 좋은 조용한 암자입니다 신심있는 비구스님을 모십니다
011-9126-2266

저는 염불 테이프도 제작한 적이 있는 주로 염불만 하는 기도승입니다(속가 나이 40세) 염불기도 정진할 곳을 찾습니다 좋은 인연 기다립니다
도일 합장
010-8827-7747

60대 나이로 술과 담배를 절대로 하지 않는 독신남자로 사찰에서 차량 운전과 사찰에서 처사로 할 수 있는 일을 무보시로 봉사 하며 살곳을 찾습니다 운전 자격은 1종 대형면허이며 건축 기술도 있습니다
031)826-1152
011-9753-4152

불사 함께 할 사람 기도스님.부전 급히 구하실 분
011-9242-8868

공양주보살님 사무장님(女) 모십니다(PC가능)
▷울산. 보덕사
052)264-5471
011-368-38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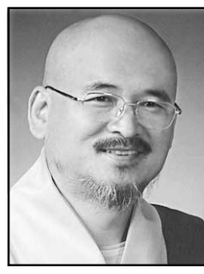
초고속 사주육효 무료초대
가족의 건강 , 가족 화목,대인관계사업 · 자녀문제, 취업, 취미 모든 분야의 길흉화복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고 비켜갈 수 있는 무료강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과목: 명리학, 육효, 역학, 타로카드, 수맥, 풍수지리,자미두수, 성명학, 기문둔갑, 육임, 인상학,수상, 사주풀이 참선
기초반 : 매주 월요일~금요일 오전 10시 오후 7시 주말기초반 : 매주 토요일 오후 2시~6시 30분
강사: 대학원 동양학 전공, 및 상담및 강사경력 20년 이상 8명
장소: 2호선 건대전철역 6번출구 성수 사거리 우리은행 옆 오성빌딩 3층 현대생활역리협회
02)3409-5398 / 019-9225-8000

유명 표구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삼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종부 합장 ▷전국 택배가능◁
02)374-9886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6호선 새절역 1번출구)
BBS 퀴즈대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8년)

E-2 비자나. 자녀교육으로, 미국에 오시고 싶으신 분
저는 미국 LA 카우니 쎄래토스시에서 2000sq 면적의 아주 예쁘고 위치 좋은 스킨케어 샵을 운영하고있는 보현행보살 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귀국하려합니다 소중히 가꾸어 자리잡은 저의 샵에 주인을 찾습니다. 이곳은 학군이 아주좋은 지역이므로 자녀들 유학이나 투자 이민을 생각하시는 분에게도 좋은 조건입니다.
홈페이지(www.vivantjoiecerritos.com)나 email: jheo69@hotmail.com 방문하시고 저의 쎌폰 미국 213-327-4374 / 샵 562-403-2228으로 연락주세요. 결코 후회하지 않을 좋은 정보입니다.

탱화 및 관음도
● 법당용 탱화
● 개인 소장용 관음도
● 지장도 비천상 주악도
● 소품용 단청 문양
보리수 불화 공방
011-9180-3277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학 인 모 집
명리학을 처음 공부하고자 하는분들의 마음은 누구에게 배워야 할것인가를 결정하기가 정말 힘든일이지요
아기 이름을 예쁘게 작명해서 보내드립니다.
문의 051) 867-8438
부산 송광정사 附設 FAX 051)867-7438
부산시청(경찰청) 뒷편 삼화탕 앞

28숙과 방위술
● 방위술과 28숙을 정확하게 쓰는방법을 1:1로 쉽게 일러드리며 승려에 한합니다
● 위치 : 지하철 1호선 신설동역 3번출구
● 지도스님 : 대주 합장
☎ 02)926-1259 / 011-741-0867

氣수련을 하지 않고도 바로 氣치료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 수련을 하지 않고도 바로氣치료 원격치료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길은 전세계에서 레이키(Reiki. 靈氣) 뿌에는 없습니다. 지난 10년동안 많은스님 거사님 보살님들이 배웠습니다.
● 동서양식 레이키 : 교육비 55만원 교육기간 : 2~3일
※교육 1개월 후 무료 추가 보충교육있음
•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 / www.reiki.co.kr(한글검색어 : 레이키)
전 화 : 02)720-5719, 720-5682 핸드폰 : 010-8392-2557

고(古)건물 수리전문
드잡이 전문, 건물방향바꿈, 건물멀리옮김
건물 넘어간집 바로잡음, 석가래 기둥등 썩은곳 교체
신축 및 기와등 한옥전문 (문화재 등록인 다수 보유)
(주)고도건축 대표 강충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389-2 성지아파트 3동202호
연락처: 053)964-0858 / 휴대폰: 011-804-1748

행자(예비스님) 모집
● 산중 분원인 감포선원(무문관)에서 수행함
☎ 문의 : 054)771-8350. 011-881-9710(주지스님)
- 대구큰절에서 생활하기를 원하면 그것도 가능함
- 회주이신 우학스님 상좌됨
- 1인 1실, 민주적 교육, 수계 후 모든 교육비 지원
대한불교 조계종 영남불교대학 · 관음사
053)474-8228,011-9852-0075(총무스님)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양덕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할아버지 · 할머니, 아들 · 딸, 손자 · 손녀
가족이 함께 기도함
음력 9월 9일 영가천도기도
횡사액난으로 죽은 영가천도
전국에서 기도동참하고 있을 지방분 환영
개인별 능력에 맞춰 체계있게 기도함
원하는 소원성취가 잘 향상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철야용맹정진
가정에서 전국 포교활동 하고 싶은 분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 드리는 방법

경전독송기도특강 (3개월과정) 매주 화요일
• 기도와 회향 • 보시와 불공방법
①우리말 천수경 ②문수보살예찬문 ③보현행원품 ④관세음보살보문품 ⑤지장경 ⑥금강경 ⑦아미타경 ⑧약사여래경 ⑨능엄신주 ⑩신년법어 ⑪불탄법어(성철큰스님) ⑫영가천도 ⑬기 타

● 지방분 환영 ● 전국 포교활동 하실분
★가정방문 상담과 기도해 드림
스님 동참환영
● 군부대 법당 ● 경찰서 법당 ● 교도소 ● 병원법당 법보시 하실분 문의 및 상담
● 노후에 건강하게 오래살고 회향을 잘하고 복짓고
맨발등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꿈바위불교교육원 018-789-5008
서울 부산 대구 마산 안성 치매예방

사주운세 10초내 맞추면 통장입금
명리학[사주첩경통달](이석영)
명리학 질문 10초 내 답변
조상의 흐름이 잘못되면 이름모를 질병, 재난, 가출, 부부간의 갈등, 혼사지연, 부모와 자식간의 갈등,학업성적 부진등 명리학으로 원인을 찾아드리고 퇴마와 천도방법을 상담으로 찾아드립니다
궁합보실분 10곳을 다녀보세요.
8곳은 ○표 2곳은 X라면 ○표를 믿겠죠.
X표는 내시경으로 본듯이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찍어냅니다. 또 백호대살, 형살, 원진살 등 흉살이 있다고 해서 고민하지 마세요.
사주첩경 6권을 보면 오히려 음덕이 있음을 많이 봅니다.
굿이나 부적 등 일제 부담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02)826-5067
하나은행 361-810554-63707 김진동

대한불교 전통조계종
(사)國際佛敎 僧伽會 所屬
本宗은 釋迦牟尼佛을 敎祖로 太古 普愚 國師를 宗祖로 하여 釋迦世尊의 自覺覺他 覺行 圓滿한 根本敎理를 奉體하며 直指人心 見性成佛 傳法度生을 종지로 한다
● 종 정 대 행 : 각 암 대종사 ● 원 로 의 장 : 청 산
● 중앙종회의장 : 무 원 ● 사 정 원 장 : 지 원
● 총무원장 : 능 인 ● 총무부원장 : 허 허
본 종단 종지 종통에 뜻있는 종도 및 사암을 모집함
1. 각 사암 등록 및 각 교구 종무원 등록을 원하시는 분
2. 불교무술 자격증 및 단증을 취득 하실 분
3. 승려가 되고자 하시는 분
4. 종단간부 임원직을 맡고자 원하시는 분
- 산하기관 -
(사)세계불교 호국 무술 연합회
(사)호국 불교 단체 협의회
(사)전국 불교 체육인 연합회
◆총무원 : 구미시 사곡동 670-1
전통불교대학 삼보선원
◆문 의 : 054)464-4725, 464-4735
총무원장 010-7302-0077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계좌번호 : 농협 053-01-227471 현대불교신문사
· 전화 : 02) 2004-8213~6 / 02)732-1522 (直)
· 전송 : 02) 737-0696 · e-mail : jabi1522@empal.com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 법당: 24평
● 요사: 170평
● 부지: 5600평
● 가액: 20억

● 위치: 경남합천
● 법당: 30(木)
● 요사: 60평
● 부지: 230평
● 가액: 2억 5천

● 위치: 충남
● 법당: 30평
● 요사: 70평
● 부지: 9000평
● 가액: 17억

※ 전국 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미래공인중개소) 02)998-1994 011)713-5634

사찰안내
1. 관악구포교당-월 85
2. 서울명산목조사찰-6억
3. 서울산속사찰만평-20억
4. 서울국유지사찰-10억
5. 강남포교당100평-월 300
6. 은평구포교당-40평-월 50
•기도스님공양주신속연결
불교정보센터
현대불사 02)555-057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에서 15분거리
● 대지 420평 등기필, 법당, 산신각, 요사채, 방5개
● 주차 10대 가능
● 가액: 1억 5천만원
011-737-0736

포교당(급)안내
● 위치: 경북 김천시내
● 평수: 43평, 시설완비
● 보증금 500만원 월 35만원
● 시설비: 1,200만원 몸만 오시면 됨
010-2771-7377
010-8622-1285

포 교 원 안 내
● 위치: 경기 의정부 신곡2동 (경기 제2청사 앞)
● 평수: 83평
● 가액 : 보증금 오천만원 월세 90만원
● 시설비: 1000만원
031-853-0135
010-5698-8769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도
● 부지: 1300평
● 법당: 30평목조
● 요사: 50평
● 가액: 12억

● 위치: 부산
● 부지: 300평
● 법당: 30평
● 요사: 70평
● 가액: 5억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양도 운영하실 분 전화 주세요
광진불사 02)723-4082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사 찰 안 내
● 위치: 밀양시 산외면 근방
● 대지: 약 500평
● 대웅전: 20평
● 산신각: 15평
● 요사: 50평
● 가격절충
011-9516-5364

토굴(급)안내
● 위치 : 충남 부여
● 대지 320평, 건물3동 있음
● 가액: 4천만원
※ 참선 기도처로 매우적합
※ 최고 명당터
010-7763-3575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대구시 남구 대명동
● 대지 110평, 법당 40평
● 시설 : 주지실, 종무소 1층 -공양간, 창고 2층 - 요사채
● 특징 : 도심속의 기도와 포교도량
● 가액 : 급 양도 3억 3천만원
011-9853-3843

곤지암 사찰터
● 전기.도로.얼음물 약수터되어 있음
5000평 - 평 18만원
● 화장장, 장례예식장, 납골당 300M
5166평(관리지역) - 평 15만원
허가득 즉시불사 됨
011-9109-3660
011-9004-3613

사 찰 안 내
● 위치: 부산
● 대지: 200평
● 법당: 약 25평
● 요사30평,산신각,용왕전
● 가액: 4억 3천

● 위치: 경기
● 대지: 약250평
● 법당: 약30평
● 요사: 약60평
● 가액: 3억
교통편리복지시설

한 국 불 사 (한국 최고의 사찰 컨설팅)
연락처 : 02)6674-3535 / H.P 010-3154-3535
※ 전국 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상담 환영합니다.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마산시
● 건물 : 지하 1층 (요사채) 지상 2층 (법당) , 산신각
● 건평 100평, 대지 130평
● 가액: 3억 2천만원/즉시법회가능
011-9503-3442

사찰부지및수목장
(기도원, 연수원, 수목장)
● 위치: 충남 논산시 벌곡면 도립공원 대둔산 인근, 대전에서30분
● 면적: 7만 3천평
● 가액: 평당 1만원/ 주인직거래
● 이용가치: 사찰부지 및 수목장 최적지 (수목 울창한 청정계곡 . 포장도, 차량진입)
017-405-1554
야간10시 이후 042)522-2588

암 자 안 내
● 위치: 경남 하동
● 대지: 약 800평
● 벌당 32평, 요사채 2채 큰 창고, 주차시설 완비 관상용 양어장
● 비구니스님 기도처
● 가액: 2억 3천만원
055)883-8846
010-8564-0302

사 찰 안 내
● 위치 : 포항근교
● 평수 : 목조 20평 요사채 43평
● 땅부지: 550평
● 가액 : 4억 6천만원
● 용왕당, 산신각 모두 되 있음
010-2300-2209

사찰안내
● 위치 : 전남 나주시에서 20분거리. 교통편리
● 대지: 420평
● 법당: 20평
● 요사채: 30평(방5)
● 가액: 9천5백만원
010-6308-7320

사 찰 안 내
● 소재지 :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고속도로 횡성IC, 새말 IC 20분
● 대지 500평(미등기 1,000평) 법당 30평(2층 1층 요사, 2층 법당) 요사채 70평, 산신각
● 가액: 3억(절충가능)
010-7211-5066/017-420-2200

사 찰 (급) 안 내
● 위치: 경북 경산시 압량면
● 대지: 약 310평
● 건물: 요사채 25평,법당 25평
● 특징: 정면에 못이 있어 경관이 수려
● 가액: 보증금 2억 8천만원 답사 후 가액 절충 可
053)802-0577
011-9186-0724

사 찰 안 내
● 위치 : 익산시 황등면 황등리 소재지
● 법당 : 한옥 임법당 25평 요사 : 조립벽돌 30평
● 종교부지 300평, 시유지 550평
● 약사석불, 산신각, 면사무소 인접
● 절앞 마을, 뒤 소나무숲, 절충가함
● 양도가 : 1억 7천
011-677-8525

암자(급)안내
● 위치: 팔공산 뒤 갓바위 입구
● 대지: 224평
● 건평: 30평(법당,연단,서재) 요사채, 공양간, 방(15평정도)
● 교통이 편리함
형편이 어려우신 스님께는 싸게 양도함, 전세도 가능 (기한무한정) 꼭 필요하신분만 전화하시기 바람
053)853-2464
017-808-2543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경주시 안강읍
● 대지: 86평 1층 요사채 34평 2층 법당 24평
● 특징: 시장옆 주택밀집지역
● 가액: 2억2천만원
054)763-6655

포교당(급)안내
● 위치: 대구시 내당동 전철역에서 걸어서 3분 아파트 주택가
● 3층 법당 40평 다다미방
● 주지실, 상담실, 공양간, 화장실
● 삼존불, 탱화, 신중탱화, 산신탱화 모신지 두달 됨
● 전세 500만원/월 40만원
● 시설비 : 1200만원 몸만 오시면 됨. 시설완비
010-5710-1732

팔공산하 마지막 대도량터
● 위치: 대구시내전역 30분거리
● 평수: 5300평
● 건평: 1, 2층 150평
● 신축불사중. 골조공사 전기완료. 암반수
● 큰뜻을 가지신 인연찾아 가액조정
010-4512-0813

암 자 안 내
● 위치: 경남 밀양 얼음골 주위
● 임야 4500평 법당, 요사채, 산신각
● 가액: 4억5천만원
● 유명관광지 입구
010-4876-5535

포교원 같이 운영하실 화주보살님 구합니다
▷나이 50~70세
011-835-7690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도 포천시
● 부지: 1300평
● 건평 53평, 25평, 17평 세동
● 가액: 3억 8천만원
산세수려한 청정지역
010-3929-1113

토굴안내
● 위치: 충북 옥천 (대전에서 20분 거리)
● 대지: 200평 중 100평 등기필
● 건평: 법당 25평 산신각 7평 요사채 2동(18평, 11평)
● 시설: 예쁘고 완벽하게 갖추었음
● 가액: 1억 1000만원
011-9405-8186
043)733-8186

사 찰 안 내
● 위치 : 제주도 서귀포시 월평도 소재
● 대지 : 140평
● 대웅전 20평 (인법당, 시설완비) 요사채 30평
● 산과 바다가 보이는 최적 수행 도량
● 가격: 1억
011-511-2609
064)748-2003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고성군 고성읍
● 대지 100평, 대웅전 1동, 요사채 2동
● 모든 시설 완비
● 가액: 7천만원
본사로 들어가는 관계로 (급)안내함
051)556-0278
011-831-9667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북 익산 근교
● 대지 : 130평
건평 : 1층 요사 55평 2층 법당 30평
산신각 5평
● 교통편리,심야보일러
● 가액: 2억 5천
017-336-7523

토 굴 안 내
● 위치 : 지리산 자락 하동 악양
● 가옥 신축 황토 기와집 33평, 부지 672평
● 가액:2억2천
● 특징 : 집 위 대숲, 집안 연못과 잔듸밭
016-367-2112

사찰(급) 안 내
● 위치: 영천 · 건천 IC에서 20분
● 종교부지 350평, 임야(뒷산) 대웅전 10평, 요사채 30평 산신각, 용왕당, 집기비품 등
● 가액: 1억 5천만원(절충가능) 필요하신분만 연락바랍니다
016-831-3022

사찰(급) 안 내
● 위치: 경북 경주시 양남면
● 대지: 1,000평
● 법당: 35평
(산신각, 요사채, 창고, 사무실)
● 가액: 6억 2천만원(절충가)
016-868-5544

포 교 당 안 내
같이 운영하실 분도 모십니다
● 위치: 지하철 7호선 수락산역
● 건물: 5층에 3층
● 평수: 50평
● 시설완벽, 즉시법회 가능
● 보증금 2500만원 월 80만원
● 시설비: 3000만원
011-715-6333

사찰(급) 안 내
● 위치: 경북 영천 시내
● 대지: 117평
● 법당, 요사채, 대중공양간, 주지실 등 ,방 4개, 손님 화장실1, 신도 화장실 1, 심야보일러
● 가액: 1억 5천 8백만원 (절충가능)
사정상 시세 이하 계산합니다
010-6215-8784

천하절경명당터청정계곡접
● 서울에서 1시간 30분 2시간 소요
● 1만여평부지내 건물 10여동
● 모든것 완전구비 30억 이상 투자
● 가액: 17억
※중개인 전화 사절
017-373-5998

사 찰 안 내
● 위치: 창원시 대산면
● 대지: 102평
● 법당: 15평 (기와집) 창고 10평, 요사채 10평 부속건물 3개
● 가액: 7천 7백50만원
010-5502-0220

별 장 식 토 굴 안 내
● 위치: 춘천시 강촌 인접
● 구조: 멋과 모양을 갖춘 한옥식 휴식공간
● 건물: 가옥 등비 완비 (방3, 입식부엌, 수세식 화장실, 정원)
● 평수: 130평
● 가액: 6000만원
● 특기사항: 망중한을 즐길 수 있는 아란야인
010-6312-8637

사찰(급) 안 내
● 위치:서울시 사당3동
● 평수: 28평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60만원 (집기일체포함)
● 시설비: 1500만원(절충가능) 방1, 주방, 화장실
031)873-4340
017-332-1633

사찰(급) 안 내
● 위치: 경기 성남시 상대원동
● 법당 10평, 대지 11평 요사채 1층 2층 20평
● 시설완벽,즉시 법회가능
● 가액: 2억 8천만원 (절충가능)
011-9957-9501

포 교 당 안 내
● 위치: 창원시내
● 평수: 100평
● 4층건물 중 3층
● 가액: 보증금 2000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4000만원
010-4877-5900

포 교 당 안 내
● 위치: 경기도 시흥시내
● 대지: 35평
● 시설비: 상담 후 결정
● 가액: 전세 1천만원 월 30만원
● 삼존불 탱화 시설완비
몸만 오시면 즉시법회 가능
016-9239-1711

포 교 당 안 내
● 위치: 대구 지하철 송현역부근
● 평수: 75평
● 2층 건물 2층, 시설 최상급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60만원
● 시설비: 1900만원
대형주차장 있음
010-8577-131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칠곡군 소재
● 총평수: 416평 田 88坪
● 건물: 3동 60평
● 가액: 3억 5천 (절충가능)
010-3542-3203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부근 원주시 국선 전철역 부근, 개통 예정지 앞 의료단지 상업단지 부근
● 평수: 209평, 법당: 20평, 요사채: 20평 삼존불, 돌탑부처님 (관세음보살, 약사불, 미륵불)
● 가액: 1억9천5백만원
033)766-0057/011-471-1996

토 굴 안 내
● 비구니 스님 적합
● 위치: 경북 성주군 대가면
● 대지: 105평
● 가액: 1천 9백만원
010-7207-3323

포교원(급)안내
● 위치: 인천 부평역 10분거리
● 평수: 4층 건물 중 3층 35평
● 가액: 보증금 1000만원 월 25만원
● 시설비: 답사 후 가격절충
● 즉시법회가능
몸만 오시면 됨
꼭 하실분만 전화요망
010-8676-6921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시 범일동 부산은행 앞
● 평수 : 총 70평 법당 35평, 요사 35평 목재 인테리어 최고의 설비와 안정된 여건 환경
● 보증금 5,000만원, 월50만(전세가능) 시설비 : 2,000만원
011-307-3473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도 양평읍 5분거리
● 대지: 560평 법당 24평(목조), 산신각 5평(목조)
● 가액: 3억 1천만원 (절충가능)
031)771-5780
011-9090-1665

토굴별장안내
● 위치: 남덕유산 자락
● 부지: 1630평
● 가옥: 신축 황토기와집 55평, 창고 10평
● 특징: 집 옆으로 개울이 흐르고 집뒤에 솔 숲. 정원이 아름다운 집
● 가액: 5억 3천
017-432-3663

사찰(급)안내
● 위치: 인천 계양 (상가 2층)
● 총평: 40평, 법당: 20평, 요사: 20평
● 보증금 1천만원 월 60만원
● 방 2개, 입식 화장실, 보일러 10년된 포교원
011-9769-8868

사 찰 안 내
● 위치: 서울 동작구 상도2동 장승백이역 2분거리
● 대지: 66평 건평: 56평(1.2층)
● 1층 요사채, 2층 법당
● 가액: 4억 7천만원
02)815-0302
011-722-0302

사찰운영같이하실분모심
● 위치: 언양(울산)근교
● 규모: 면적 약 5000평 건물 사찰 300평(현재 운영중)
● 참여하실분: 능력 또는 약간의 재력이 있는분
누구나 동참 바람
052)263-5143

가 야 산 별 장 안 내
● 면적: 15000평
● 건물 30평, 집 65평, 집 20평 창고 겸 50평
● 못 4개, 정자 2개, 인공폭포 1개 (도로인접) 자연폭포 (산 중턱) , 잔듸밭 1천평
● 조경이 100% 완벽-석등4, 12층탑1, 5층탑 2개 그 외 탑 10여개, 기도처나 절로 적절
● 가액: 절충가능
011-829-2957

사 찰 안 내
스님 노후 토굴겸, 도심속 아담한 사찰
● 위치: 전주시내 중심, 대지 8%6 미터 코너 절
● 대지 112평, 건평 123평, 일층 점포 다섯개
● 2층 법당, 부처님 후불 탱 입체,칠성탱 입체, 신중탱 입체, 대략 부처님 삼신불 좌대 포함 넉자 세지, 법단 삼단 조각
● 점포 다섯개에서 매월 임대로 150만원 나옴
● 가액 : 4억 1천 7백만원
● 준비금 : 2억 1천 7백만원 비구니 스님, 법사님, 보살님 적합 스님 해외 문제로 사정상 급 안내
010-6411-2882

포 교 원 안 내
● 위치: 동대문구 청량리역 교통편리, 은행주변, 시장상가
● 2층건물 중 2층, 옥상사용
● 총평수: 20평 즉시법회 가능
● 스님 해외 이주 관계로 급 안내
● 가액: 보증금 400만원+500만원 총 900만원 월 20만원
선착순 가격절충
011-1727-7306
010-7135-4030

사찰(토굴)안내
● 위치: 강원도 영월 (첩첩산중)
● 평수 2500평 건물 50평
● 방 6개, 욕실 2개, 산신각
● 가액: 3억
● 위치: 강원도 영월
● 평수: 270평, 건평 20평
● 가액: 4500만원
033)374-0355
033)374-0939
010-7183-0939

별 장 안 내
● 위치 : 팔공산 뒤 갓바위쪽
● 대지 200평, 건평 57평
● 웅장한 거실, 큰주방, 욕실 2개, 큰방2개, 보통방2개, 황토구들방 1개
● 좌우 산으로 둘러쌓여있고 정남향집, 못도 있음 한 마을에 4가구
● 가액: 1억 6천만원(조정가능)
053)853-2464
017-808-2543

사 찰 터 안 내
● 위치: 경기도 가평군(서울에서 1시간거리)
● 평수: 12,800평
● 시내 전체를 내려 볼 수 있는 야산
● 정상에 약수물이 흐르고 있어 현재 사용중
● 기존에 암자로 사용했음(법당, 요사채건물 2채)
● 자연림이 울창하고 자연석 多
● 사찰부지로는 명당자리
● 다른용도로도 가능(예: 복지시설, 납골묘)
● 가액: 평당 8만원
011-378-8645

일주문



실업극복국민재단 이사장에

前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 스님은 9월 27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실업극복국민재단 제17차 정기이사회에서 새 이사장에 만장일치로 추대됐다.



해인승가대 총동문회 정기총회

합천 해인사 승가대학 총동문회장 일면 스님은 10월 20일 오후 1시 해인사 관음전에서 승가대 총동문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교직원 정기법회서 법문

동국대 선학과 교수 법산 스님은 10월 11일 오후 4시 동국대 경주캠퍼스 정각원 법당에서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아름답게 사는 길'을 주제로 법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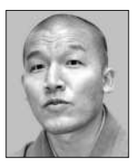
3대 종교 연합바자회

서울 화계사 주지 수경 스님은 9월 30일 한신대 신학대학원 운동장에서 송암교회, 수유1동 성당과 함께 3대 종교 연합바자회를 개최했다.



장애인 청소년에 장학금

강북장애인복지관 관장 명궁 스님은 9월 26일 관내 청소년 및 장애가정 청소년 6명에게 총 80만원의 장학금과 문화상품권을 전달했다.



부석사 네 번째 산사음악회

서산 부석사 주지 주경 스님은 10월 14일 오후 7시 부석사에서 법능 · 능인 스님, 연광흠 신부, 도종환 시인 등을 초청해 네 번째 산사음악회를 개최한다.



불국정사 아미타부처님 점안식

대구 불국정사 회주 진귀 스님은 10월 1일 불국정사에서 조계종 원로의원 동춘 스님을 초청해 아미타부처님 점안 및 104위 신중탱화 점안식을 봉행했다.



네팔 · 한국 화가 상호초청 전시회

(사)가족아카데미아 이근후 공동대표는 10월 1일부터 30일까지 삼청동 갤러리 예티 하우스에서 제8회 네팔 한국 화가 상호초청 전시회를 연다.



제1기 재가불자입문교육

우리는 선우 성태용 이사장은 10월 13일부터 11월 24일까지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서울 장충동 선우법당에서 '제1기 재가불자입문교육'을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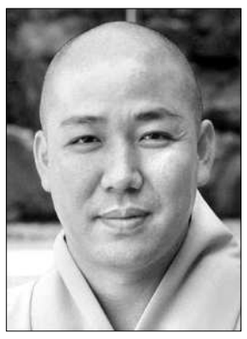


한국불교금강선원 제6대 이사장에

前 한국불교 금강선원 이홍표 감사는 10월 12일 오후 6시 서울 청량리 진주예식장에서 한국불교 금강선원 제6대 이사장으로 취임한다.

'사리반환'은 불교 바로세우기 불사

'현등사 사리 · 사리구 찾기' 주역 초격 스님



현등사 사리와 사리구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삼성문화재단이 '사리 반환' 결정을 내릴수 밖에 없었던 것에는 당해 사찰 주지인 초격 스님(사진)의 역할이 적지 않았다. 선의 취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법적대응을 불사한 삼성 측에 대해 치밀한 논리와 권리 주장으로 소송을 준비함은 물론 '현등사 사리 제자리 찾기 추진위'를 만들어 '천만불자 서명운동' '리움박물관 사리 친견법회' 등을 준비하며 여론을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했기 때문이다.

초격 스님은 "'사리 반환'이라는 성과는 비단 당해 사찰뿐 아니라 종단의 아낌없는 지원과 천만불자들의 염원으로 이루어 낸 '부처님의 가피력'때문"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스님은 또 "불교 성물인 사리를 되찾아 오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불교바로세우기'나 다름없다"며 "이를 통해 정의가 생동하는 불국정토가 구현되기를 발원하는 마음으로 2년여 동안의 법적공방을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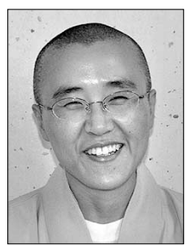
'현등사 사리 제자리 찾기 추진위'가 삼성 측으로부터 '사리 반환'이라는 성과를 얻어낸 것은 박물관 뿐 아니라 장물시장에까지도 불교 성물과 불교 문화재 정체성을 확립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문화재 장물시장에서 불교 문화재 불법 매매를 근절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크다.

한편 초격 스님은 "삼성 측의 '사리 반환' 결정과 그 동안 사리와 사리구를 온전히 잘 보관해 준 것에 대해 심심한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11월 중 삼성문화재단과 공동으로 현등사에서 사리친견법회를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병철 기자 sasiman@buddhapia.com

"문화차이 때문에 수행 포기해선 안되죠"

외국인위한 '비로국제선원 '여는 자우 스님



"외국인 스님들이 한국으로 출가해서 생활하다보면 언어문제 등 문화적인 차이로 인한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특히 비구니 스님들은 체계적으로 습의의식이나 출가생활에 대한 조언 등을 들을데가 거의 없지요. 그래서 적응하지 못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스님들도 많습니다."

서울 홍제동에 외국인 비구니 스님들을 위한 '비로국제선원'을 개원하는 자우 스님(사진)은 외국인 스님들이 한국불교를 빠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고 싶다고 개원 취지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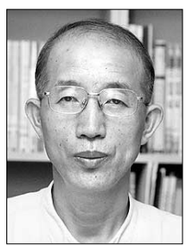
자우 스님이 국제포교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1992년 은혜사 백흥암에서 함께 수행하던 프랑스 비구니 스님인 무상 스님이 한국출가 생활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부터 였다.

"무상 스님은 당시 언어에 대한 어려움은 물론 수행자의 본분과 자세, 서양문화와 한국문화의 차이점을 영어로 자세히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무척 힘들어 했습니다. 이를 지켜보면서 외국인 비구니 스님들을 대상으로 한 국제선원을 꼭 세워야 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자우 스님은 비로국제선원서 매주 수요일 영어 <아함경> 법회, 금요일 참선법회 등을 진행할 계획이며, 점차적으로 영어 테마 법회도 늘려 나갈 생각이다. 개원식은 10월 2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김주일 기자**

"개인적 영광보다는 선후배들 노력의 결실"

보국훈장 삼일장 받은 김말환 군법사



"28년 동안 군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종단 큰스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장병들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건강하게 군 생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월 1일 보국훈장 삼일장을 받은 육군 교육사령부 자운사 주지 혜명 김말환 법사(육군 대령 · 사진)는 "군포교를 위해 평생을 바친 그 공로를 인정받아 보람과 자긍심을 느낀다"며 "선배 군법사들이 그동안 군불교의 초석을 다졌다면 앞으로 후배 군법사들이 군불교의 꽃을 활짝 피워주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법사의 수훈은 전후방 각지에서 근무하며 군사찰 불사 및 장병 포교 등 군불교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돼 이뤄졌다. 군법사가 보국훈장 삼일장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김 법사는 정년이 3년 남았지만 후배들의 진급을 위해 전역지원서를 국방부에 제출해 내년 초 전역할 예정이다. 군법사 가운데 최고선임인 김 법사의 용퇴로 소령, 중령 계급의 베테랑 군법사들의 진급 적체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김 법사는 "최근 젊고 유능한 군법사들이 진급 등으로 인해 군포교 현장을 떠나는 것이 마음 아팠다"며 "종단에서 군종교구 설립 등 군불교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어 후배 군법사들을 위해 용퇴를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두식 기자**

동국대 일산불교병원 개원 1돌 기념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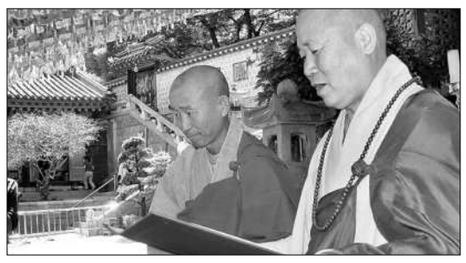


동국대 일산불교병원(원장 이석현)은 9월 27일 병원 5층 대강당에서 개원 1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석현 원장은 기념사에서 "지역에 기반을 둔 전국병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전문성과 열정을 가지고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기념식에서는 우수교직원 표창 등의 행사도 열렸다.

파키스탄대사부부, 불갑사 등 참배

주한 파키스탄 마수드 칼리드 대사 부부가 9월 25일 전남 영광군 백제불교최초도래지 마라난타사와 불갑사를 참배했다. 이날 불갑사 주지 만당 스님의 안내를 받은 마수드 대사 부부는 마라난타사에 조성된 간다라 양식의 불교미술에 관심을 갖고 파키스탄과의 문화교류를 제안했다.

도선사-인드라망 친환경공양미운동 협약



서울 도선사(주지 혜자)가 인드라망생명공동체(상임대표 도법)와 친환경공양미운동 협약식을 9월 23일 도선사 대웅전 앞에서 맺었다. 이날 혜자 · 도법 스님은 1000여 명의 사부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친환경공양미를 사용한다는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날부터 도선사는 친환경 공양미를 불전에 올렸다.

생명나눔 부산본부 장기기증 캠페인



(사)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원범)는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범어사 개산문예대제전에 참여해 장기기증 캠페인을 벌였다. 3일 동안 진행된 이 캠페인을 통해 42명이 장기기증 및 환자후원에 동참했다.

본부장 원범 스님은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원심회, 장애인위한 하루찻집 열어



조계사장애인포교단체 원심회(회장 김장경)가 9월 24일 서울 종로구 샘터다방에서 '제14회 아제아제 바라아제' 하루찻집을 개최했다. 이날 자원봉사자들의 공연과 장애인이 만든 물품 판매전 등이 열렸다. 판매 수익금은 전액 원심회 청각장애인 회원들에게 전달됐다.

화제의 신간

임제선원장 법현 스님 법어집

옛거울 밝히니 해와 달이 빛을 잃네

도서출판 여시아문 :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연수동 309호
Tel: 02)2004-8225(출판부), 02)2004-8292(영업부), Fax: 02)2004-8297
여시아문

'어느 것에서든 주체가 된다면 서는 곳마다 모두 참될 것'이라는 임제 스님의 종지에 따라 어디에서나 분별이 없는 참사람으로서의 삶을 강조하는 법현 스님의 사자후!



해와 달보다 더 밝은 그대 안의 '옛거울'을 찾아라!

法玄



자기의 옛거울 하나가 시방세계를 고요히 비출 뿐
옛거울에는 분별심이란 본래 없는 것이다.
이 분별심이 본래 없는 데서 참구하는 화두를 바르게 깨치면
마음눈이 열려서 자기의 옛거울을 참으로 밝히게 되는 것이니
범부가 바로 성불하는 최상승 조사선의 도리이다.

"눈병이 난 사람이 두 가지로 헛보이듯이 중생의 분별심은 생사를 둘로 보게 합니다. 생사를 해탈하는 방법은 분별심을 끊어 버려야 가능하니, 분별심을 끊어 버리면 바로 자기의 마음 눈병이 치료되어 본래 생사가 없는 일심진여법계(一心眞如法界)가 현전(現前)하게 됩니다." - 법문 중에서

법현 스님 지음
신국판 양장본 / 416쪽 / 값 15,000원
현대불교신문사 발행

▶ 전국 서점 또는 '온라인 여시아문'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여시아문 : 02)737-0695



불자 세상보기

최 순 열
동국대 국어교육학과 교수

'로또의 바다'에 빠진 나라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부단히 생업에 전념하여 땀 흘리는 노고를 통해 획득하는 재화로 생애의 삶을 유지하고 그 속에서 오로지 인간의 도리를 찾는 일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사람의 마음 한 구석에는 어둑한 모습으로 우연의 요행을 기대하는 사행심리가 자리잡고 있다. 기회만 주어지면 그 두억시니는 제 주인의 이성을 마비시키곤 차마 통제하기 어려운 지경으로 심신을 탕진하게 하여 마침내 한 인간을 피폐의 나락으로 끌고 들어간다. 이러한 유혹을 떨쳐버리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하는 데는 개인 당사자의 절제와 단호한 의지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으로 건전한 삶의 미덕을 고양할 수 있는 방도를 강구해야 한다. 바로 그러한 계기를 주도해 나가야 할 국가기관이 오히려 각종 제도를 만들어 가며 소위 사행 산업을 조장하기에 앞장선 형국이라 참으로 개탄할 상황이다.

이미 문화관광부가 주관한 게임 산업의 하나인 '바다이야기' 사건은 인가 과정부터 실제 시중에 만연되기까지 그야말로 복마전의 양상임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마당에, 이번엔 국무총리 산하 복권위원회가 11월부터 인터넷으로 살 수 있는 로또 복권을 새로 허용한다고 하니 그저 아연할 뿐이다. 지금만 해도 구멍가게마다 로또 복권이 팔리고 있는 실정인데, 이제는 안방에까지 로또 복권 가게를 개설하여 전 국민들에게 너도나도 복권에 돈을 털어 넣는 한탕주의를 조장하는 일을 정책이라고 시행하겠단다.

난립한 복권을 통합 조정하고 당첨 확률을 높였다는 명분은 참으로 궁색하다.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각종 복권 등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각종 사행성 사업만 해도 가히 이 나라가 '도박왕국'이라고 비난을 받기 족한데, 인터넷복권까지 가세하면 결국 그 사행성의 폐해는 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는 것은 불문가지이다. '한번만 잘되면 끝내준다'는 요행심리에 목을 매는 계층은 하루하루 힘겹게 사는 서민대중들일 것이다. 결국 그들은 건전한 삶에의 매진보다 사행의 그늘에 빠져들어 더욱 고달픈 일상을 탕진하거나 이윽고 자멸의 길에 접어들기 마련이다.

그 뿐인가. 경제적 폐해도 예사롭지 않다. 얼마 전 모 경제연구소가 산출한 바에 의하면, 민간 소비에 의해 경제 활성화에 투입될 자금이 도박시장에서 음성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액수가 2조 7000억원 규모라고 한다. 재경부의 추계로도 사행성 도박 산업의 규모는 총 63조에 이른다니, 결론은 서민들의 푼돈이 소수 게임업자들의 주머니만 채워주는 일이라는 것이 자명하다. 더 이상 문화산업이니, 서민대중들의 건전한 오락산업이니 하는 것으로 호도해서는 안 된다.

정책 시행 기관을 질타하는 수준에서 그칠 일은 아니다. 사람의 심신을 피폐하게 하는 사행과 도박의 심리에서부터 우리 스스로가 벗어날 수 있도록 개인적인 각성의 노력도 필요하고 사회적 지도층의 노력도 경주되어야 하겠다.

특히 불교계에서 선도하여 건전한 사회와 건강한 개인의 삶을 일구기 위한 수행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마련해보아야 할 것이다.

일찍이 불가에서는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는 실천행의 지침이 있지 않은가. 울력의 수행법이 의미하는 심오한 미덕은 서민대중들의 건전한 노동관과 경제관으로 전이시켜 나가는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아무리 명분이 좋아도 복권 같은 사행 산업은 일신의 진지한 노고 없이 일거에 타인의 재화를 특정인이 요행으로 독식하겠다는 탐욕일 뿐이다. 필경 복권은 개인에게 은혜로운 행운의 기회도 아니고 행복도 아니라, 오로지 허망한 탐욕의 노예문서일 뿐임을 자각해야 한다.

무지한 욕망의 절제와 공존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인간의 참살이의 방식에는 결코 복권이라는 요행수는 없다는 점을 명심하자.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환경의제21' 실천만 남았다

9월 27일 조계사에서 제3기 조계종환경위원회가 발족함과 동시에 불교환경의제21과 불교환경헌장을 대내외에 선포했다.

지난 1991년 리우회의 이후 세계의 모든 국가와 단체,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동참하여 지구환경의 보존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으로서 의제21를 제정하여 실천하여 왔다.

불교환경의제21도 불교계가 가지고 있는 환경친화적 가르침과 생활양식을 바탕으로 시대적 문제인 환경고(環境苦)를 해결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실천사업이다.

종단과 관련단체, 사찰과 사부대중이 동참하여 시대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는 것은 분명히 시대적인 문제에 적극 동참함과 함께 불교적 장점을 오늘에 살려 이 시대를 이끌어 가겠다는 사부대중의 의지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다.

이번에 선포한 불교환경의제21은 기본의제와 분야별의제로서, 환경친화적인 생활과 수행, 생태사찰 만들기, 수행환경 지키기, 사찰과 지역공동체로서 각 분야별 실천해야할 구체적인 행동계획 등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계획도 말만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는 일이다. 이제부터는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운동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부대중의 의식전환과 현실에서의 적극적인 동참활동이 필요하다. 의제21을 달성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재정적 뒤받침과 인력양성과 교육과 홍보 등의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이와 함께 모범 사례개발과 포상 등 장려책이 이루어져야 하고, 자체적인 평가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확인하고 점검하여야 한다. 종단과 종회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이유다.

각 사찰과 단체, 불자들도 의제21 실천의 실질적인 주체이므로 적극적인 동참과 생활속에서의 실천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제 의제21의 선포는 불교계가 우리나라의 환경을 책임지고, 선도하겠다는 사회적 약속이기도 하다. 의제21의 실천과제들을 불교계 전체가 이 시대의 새로운 사회적 포교활동으로 실천해야 할 시점이다.

■ 이병인(부산대 지역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

이렇게 들었다 국책은행의 방만경영

만족왕(滿足王)은 선재동자에게 말하였다. "선남자여, 나의 궁궐에서는 정법으로 중생을 교화하며 이로써 받아들인다. 기강과 규율로 국가를 바로 세우고, 벌할 것은 벌하고, 마음의 이기심과 더러움을 없애고 항상 선정을 닦아 정법을 즐거워하노라." 〈화엄경〉

감사원이 최근 발표한 '금융공기업 감사 결과'는 충격 그 자체다. '방만 경영'과 주인 없는 조직의 '도덕적 해이'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임직원 급여에서부터 복지후생, 용역계약 등에 이르기까지 민간 기업에서는 상상조차 어려운 '혜택과 특권'을 누리고 있다.

한국은행의 평균 연봉은 8천2백만원, 산업 · 중소기업 · 수출입 등 3개 국책은행은 7천7백만원으로 3대 시중은행보다 각각 10~20%씩 많았다. 3개 국책은행장의 연봉 역시 평균 6억원이 넘었다. 일부 국책은행의 청원경찰과 운전기사의 평균 임금은 6천만원에서 많게는 최고 9천만원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이들 국책은행들은 비용 절감이나 생산성 향상으로 경영실적이 호전된 것이 아닌데도 과도한 임금인상과 성과급 지급, 복지후생 운용 등이 그야말로 물 쓰듯 이루어지고 있는 실태는 납득하기 힘들다. 국책은행 등 금융공기업의 방만한 경영 실태는 그동안 국정감사에서 많은 지적을 받아왔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경영진이나 직원들이 이해를 같이하면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의 경영행태가 만연해 있기 때문이다. '국민을 위한 기관'임을 스스로 포기하고 '임 · 직원을 위한 기관'임을 스스로 자인한 셈이다. 정부와 국책은행들은 올곧은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해 은행의 은행과 국민을 위한 은행으로 개혁을 해야 할 때다. 국책은행의 임 · 직원들은 지금 자신들이 받는 임금이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 노병철(취재부 기자)

기고 재가논강을 마치고

수행에 목마른 불자 많아…더 많이 열리길



송광사 광주포교당 원각사는 광주의 중심 충장로에 자리한 도심포교당이다. 평소 도심 포교는 물론 불자들의 올바른 신행을 위해 고민하던 중, 현대를 살아가는 재가자들의 신행을 재가자들의 입장에서 살펴보고자 했다.

원각사는 금년 들어 대웅전 중수, 누각 건립 등 숙원불사를 마치고 이를 기념해 '재가논강'을 준비했다.

원각사 재가논강은 '재가불자 신행생활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8월 11일부터 주 1회씩 육바라밀을 중심으로 6회에 걸쳐 펼쳐졌다.

이번 원각사 재가논강은 다른 지역에서 시도된 논강과 몇 가지 측면에서 면면을 달리하고자 했다. 먼저 승가 위주였던 논강의 논주와 토론자들을 재가자 중심으로 꾸렸다. 광주 전남에서 활동하는 각 신행 단체와 불자들이 직접 나와 자신의 신행을 중심으로 발제하고 토론에 참여했다.

예전의 논강이 스님과 불교를 학술적으로 접근하는 불교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논강이었다면 원각사에서 시도된 논강은 발심은 하였으나 불교수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목말라하는 재가불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불자들의 참여도 눈에 띄게 달라 보였다. 그동안 사찰 행사 때면 외곽으로 맴돌던 거사들의 참여도가 높았던 점은 무엇보다 보람있었다. 또한 연령층이 젊어져 호남불교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재가불자들이 모여 실천 가능한 신행방법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뜻이 깊다고 하겠다.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던 법문에서 벗어나 평소 궁금하던 것을 묻고 답하는 토론형식으로 이뤄진 점도 호응을 받았다. 이번 논강을 준비하면서 느낀 점은 불자들이 수행에 목말라한다는 사실이다.

아울러 논강을 통해 논의된 가정에서의 불상 모시기나 부처님 경전 읽기 운동 전개에 대한 논의는 정체된 한국불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다. 불자들의 토론문화 부재이다. 토론에 익숙하지 않은 대중을 이끌자니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재가논강이 처음 시도되어 생소하다 보니 당연히 만나는 문제였고, 앞으로 논강이 계속되면 더욱 성숙해질 것이라 믿는다.

모든 일이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것이다. 오히려 하다가 그만 멈춰서면 새로운 시도들은 희망의 빛이 바래진다고 생각한다.

이번 논강이 부족함이 없지는 않았지만 광주, 호남 나아가 한국불교의 희망에 불꽃이 되고자 시도됐다. 한국불교의 자화상을 점검하고 미래불교에 희망을 더하는 계기가 될것이 확실한 이러한 논강이 더 많이 열리길 기대한다.

도제(광주 원각사 주지)

새터민 지원 현실적으로 해야

저는 2003년 대한민국에 입국한 새터민입니다. 새터민들은 남한에 오기까지 수많은 위험을 감수합니다. 하지만 남한의 현실은 우리의 기대를 넘어 너무나 당황하게 합니다. 몇 십 년을 오직 복종하는 사회에서 살아온 우리는 누군가가 길을 가르쳐주고 이끌어 주기 전에는 단 한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때문에 저처럼 한순간 주변의 유혹으로 남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신도 모르게 범죄자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도 자기 자식과 식솔들을 잘 돌보지 못하면 그 가정은 해체되고 맙니다. 비록 저는 한때의 인연으로 기독교를 종교로 삼고 있지만, 불교계도 형식적인 지원보다는 새터민을 교육시켜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랍니다.

김성수(가명 · 여주교도소)

'현대' 만평 심 민 섭



최고 정신 지도자 고급 과정

참선공지도자 神 임상최면사 神 치유명상가

깨달음(도통)과 神通(신통) · 醫通(의통) · 신병(빙의 · 해리) 기적의 치유법 · 마음조정법 고급 과정모집

● **환혼동(幻魂動) :** 조상 영가와 일체객귀신이 魂을 바꾸어 각종 신병(神病)과 실패와 이혼 불상사가 일어난다. 아뢰야식(영혼如來藏)에서 불생불멸의 신 비법 전수. 무량한 功德 비법 전수.

● **神임상최면 :** 질병치유를 목적으로 영혼에 의지하여 전생체험, 전생치유법, 내생체험, 내생치유법, 신령의 세계체험, 빙의.해리치유법. 암질환치유법, 조상영가천도비법 등 기적의 치유법 전수.

● **참선공(參禪空) :** 영혼과 육신이 神人合一하여 무한한 대우주의 힘이 골수와 근육 신경, 세포조직에 들어가 머리부터 손 발 끝까지 강력한 진동으로 스스로 각종 질병을 치유 정화하며 내공 외공을 소유한다.

● **神치유명상 :** 관법에 의지하여 영혼의식 속에서 정신적 육체적 심리적 고통(불치병)을 벗어나 건강한 육체와 신령한 영혼을 소유한다. 특별한 자비의 손 치유법 개공 및 전수.



무공 합장
現 卍 신선암 주지
現 참 선공 협회 총재
現 치유명상 협회 총재
現 임상최면 협회 총재

◆ **참선공의식 사례**

① 48세 여성이 이렇다할 이유 없이 2년 동안 목이 180°돌아가서 한의원,병원,기공,굿,각종 기도를 하였으나 돌 아 오지 않았다. 그러나 간단하게 참선공 영혼의식에 의해 단10분만에 정상으로 돌아왔다.
② 60세 중진 스님은 젊어서부터 230mmHg의 악성 고혈압 환자였다. 참선공의식 10분 만에 정상 혈압으로 돌아와서 현재는 건강하게 포교 활동을 하신다.
③ 28세 미모의 여성이 원인 모를 이유로 7살부터 오른 쪽 다리가 통증이 심하여 20년 동안 걷지 못하였다. 그러나 간단히 참선공의식후 건강하게 통증 없이 잘 걸어갔다
④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 중2때부터 전혀 물도 못 마시고 얼굴에 여드름 피부각질이 만성화 되어 병원 등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전혀 효과가 없었다. 그러나 간단하게 참선공의식 후 깨끗하게 피부각질이 사라지고 부드럽고 윤기 있는 얼굴로 바뀌었다.
⑤ 50세 중진 스님은 영가가 빙의 되어 눈에 뱀이 보이고 귀에서는 소녀의 말이 들리고 양다리와 양손이 항상 불안하게 떨리면서 불안하였다. 그러나 간단하게 참선공의식 후 증세가 완쾌되었다.

지도자고급과정
● 입제일 : 2006. 10. 12 (목요일)
10. 14 (토요일)
14:00 - 18:00 (10회 과정)
(선착순 예약)

전 수 비 200만원

입 금 계 좌
조흥은행 995-04-648955
예금주 : 이영하

불교심리철학	서양 심리철학
사마타 수행법	위빠사나 수행법
조상 천도 해탈 비법	빙의 · 해리 치유 비법
자비손 치유 비법	전생 치유 비법
음성 내공 비법	내생 치유 비법
신선 도인 비법	칠차원 도인 비법
조상영가 보는법	육효 신 비법

卍 신선암 대한참선공협회. 神치유명상협회

● 전화 : 02)383-1319 / 011-379-1319
● 주소 : 서울 은평구 녹번동 55-9 (녹번역 1번)

불교가 힌두교의 종파라니…

인도 서부 구자라트 주 정부 종교법 개정 논란
"개종해도 힌두신자"…헌법엔 '독립종교' 명시
현지 언론 "불가촉천민 표 묶어두려는 속셈"

'힌두교 신자가 불교로 개종해도 힌두교 신자다?'

개종을 불법으로 규정한 2003년 종교자유법을 최근 뜯어고친 인도 서부의 구자라트 주 정부. 하지만 불교와 자이나교를 힌두교의 종파로 집어넣은 법개정을 하자, 인도 불교계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고 인도 NDTV가 보도했다.

NDTV는 인터넷판 기획 기사에서 "구자라트 주 정부에 의해 9월 19일 통과된 종교개정법에 의하면, 불교와 자이나교는 힌두교의 한 종파로 분류된다"며 "불교도와 자이나교도로 개종하기 위해 법적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힌두교 종파 간 개종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는 '동일종교내 종파 간 이동에는 개종의 의미가 적용되지 않게 한' 법개정으로, '개종'의 의미를 주 정부 차원에서 자의적으로 수정한 것이다.

구자라트 정부는 뿐만 아니라 수정된 법조문에 타종교들도 임의로 '짝짓기 분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아파와 수니파는 이슬람교의 종파로, 가톨릭과 개신교는 기독교의 종파임을 분명히 했다.

구자라트의 아쇼카 바트(Ashok Bhatt) 법무장관은 "'개종'의 정의가 너무 모호해 수정법안을 만든 것이고 특정 종교의 종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도불교계와 구자라트 주 기독교도와 무슬림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불교와 자이나교를 힌두교의 한 종파로 규정한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일"이라며 "구자라트 주를 종교적 차이에 따라 분열시킨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인도 헌법에 의하면, 불교와 자이나교는 독립된 종교로 규정돼있다.

법조인이자 인권운동가인 그리쉬 파텔(Girish Patel)씨는 "역사적으로 불교는 힌두교의 초기형태인 베다교에 대한 반발에서 생겨난 것"이라며 "만약 불교가 힌두교 종파로 규정된다면, 중국, 일본, 싱가포르를 비롯한 수많은 다른 나라들이 힌두교 국가가 된다는 것"이라며 주 정부 개정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하지만 개정법 지지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타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는 등 지속적인 개종의 압박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하층 카스트에 속하는 힌두교도를 보호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지 언론들은 이 같은 논란의 배경에 대해 "구자라트 주 정부가 투표를 의식해서 법개정을 했다"는 해석을 지배적으로 내놓고 있다. 구자라트 주 야당들도 주 정부가 종교를 투표용 '도구'로 이용했다고 비판했다. 달리트(Dalits), 즉 불가촉천민들이 불교나 기독교나 이슬람교로 개종해 '힌두내셔널리즘'을 표방한 인도인민당(BJP)과 힌두민족자결단(RSS)의 등을 돌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현재 구자라트 주 인구의 종교별 비율은 기독교 0.5%, 힌두교 85%, 이슬람교 14%. 최근 들어 달리트의 '脫힌두교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서울대 윤원철 종교학과 교수는 "불교는 힌두교와 교리적 · 신앙적 차원과 상관없이 독립적인 역사종교로 그간 2500년 넘게 전세계인들에게 인식돼왔다"며 "정치적 이해득실로 불교를 힌두교의 한 종파로 우겨넣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설명했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사진은 2001년 인도 뉴델리 암베드까르 회관에서 열린 '힌두교도 1만여 명 불자 개종식'.



▶당시 불자들은 수계법회와 개종식을 끝낸 뒤 정부의 집회불허에 항의, 가두시위를 벌이다 경찰과 대치하는 등 힌두교 원리주의자들의 조직적인 방해를 받았다. 현대불교자료사진

러 투바공화국에 세계 최대 만트라

총 120m 길이 … 달라이 라마 방문 기원

세계에서 가장 큰 만트라(진언)가 러시아의 불교국가 투바에서 조성됐다.

러시아 언론 카스노야르스키 뉴스는 "최근 투바를 방문한 규드메드 탄트릭(Gyudmed Tantric) 티베트 사원의 스님들이 달라이 라마의 투바공화국 공식 방문을 재촉하기 위해 만트라를 새겼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대형진언은 밀교 수행의 정수인 관세음보살의 본심(本心)진언 '옴마니반메훔'으로, 레닌 봉으로 알려진 도기(Dogee) 산자락에 거대한 돌에 그려졌다고 밝혔다.

총 길이가 120m가 넘는 이 대형진언은 사용된 흰색 페인트만 500kg가 넘으며, 투바의 수도 키질(Kyzyl)에서도 확연히 볼 수 있을 만큼 크다고 이 뉴스는 전했다.



러시아 투바 도기 산에 제작된 '옴마니반메훔' 진언.

김철우 기자

할리우드, '부처님 전기' 영화로

원작 틱낫한의 '소설 붓다' … 제작비 1억2천만달러

'할리우드와 불교가 만난다?'

오락 영화의 본 고장 미국 할리우드에서 부처님 일대기가 영화로 만들어진다.

원작은 프랑스 플럼빌리지의 수행자 틱낫한 스님이 쓴 <소설 붓다 (Old Path White Clouds)>, 제작은 M 필름이 맡는다고 미국 뉴욕의 캐스팅 전문 영화사 백스테이지(Backstage)가 9월 12일에 밝혔다.

이 소식통은 M 필름은 9월 11일 베버리힐즈 페닌슐라 호텔에서 오찬모임을 갖고 부처님 전기영화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이 자리에는 달라이라마와 틱낫한 스님을 비롯해 샤론 스톤, 로렌스 피쉬번, 골디 혼 등 할리우드 스타 등 75여 명이 참석했다고 전했다.

달라이라마는 이 설명회에서 "할리우드 영화는 전세계에 커다란 영향력을 끼치고 있으며, 부처님 일생을 다룬 영화는 자비심을 고취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스테이지는 또, 제작비용에만 총 1억 2천만 달러(한화 1천억원)가 투입되며, 극본은 '시애틀에 잠 못 이루는 밤'을 쓴 데이비드 워드가 맡게 된다고 전했다. 감독과 배우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

김철우 기자

이병두와 함께 읽는 **오늘의 세계불교**



미국불교 급성장엔 이유가 있다

최근 10년새 불교도 숫자 170% 증가
맑은 수행자 상 보여준 달라이 라마 영향 커

미국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지 9월 14일자에 제인 램프만(Jane Lampman)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 불교'라는 글을 기고했다. 이 글에 따르면, 불교는 기독교 · 유대교와 이슬람에 이어 미국에서 네 번째로 신도수가 많은 종교이며 다른 종교의 쇠퇴와 달리 급상승세를 타고 있다고 한다.

미국의 '종교 인구 조사'에 따르면 1990년에서 2000년에 이르는 10년 사이에 미국 내 불교도 숫자가 170% 증가하였다. 위 '조사'에서는 2004년 미국 내 불교도가 150만 명이라고 발표하였지만 일부에서는 300만 명에 가깝다고 추산한다. <미국 불교(Buddhism in America)>의 저자인 리처드 시거(Richard Seager) 교수는 "150만 명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말한다.

시거 교수는 미국 불교 신자의 3분의 2 정도는 아시아 출신의 이민자들이지만, 나머지 3분의 1은 새롭게 불교로 개종한 현지인이라고 본다.

그러면 미국 사람들을 불교로 끌어들이는 매력은 무엇일까? 1950년대와 60년대에는 '선(禪) 불교' 붐이 일어난 적이 있었지만, 최근 미국 내에서 불교의 급상승을 가능케 한 것은 달라이 라마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데에 많은 이들이 동의한다. 이와 더불어 '전도를 위해 사람들에게 광적으로 접근하지 않는 방식'이 미국인들의 합리적 성격에 부합되는 것도 중요한 요인이다.

미국 출신의 티베트 라마승인 수리야 다스(Surya Das)는 "미국인들은 달라이 라마와 틱낫한 스님과 같은 불교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억지로 개종시키려 하지 않고, 세상에 무엇인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대규모 사원을 짓지 않고, 오늘날 꼭 필요한 화합과 평화를 이룩하는 방법 그리고 지혜를 전해줍니다. 서양 종교에서 강조한 적이 없었던 영적(靈的) 수행법을 제시하는 것이 사람들을 불교로 끌어들이는 더 중요한 요소입니다"고 말한다.

어찌 보면 소극적인 듯 보이는 방식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부처님 가르침으로 이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 많은 우리 스님들이 교포를 대상으로 한 절을 세워 활동하여 일정한 성과를 올리기도 했지만, 이제는 현지인들에게까지 범위를 넓히지 않으면 안 될 시점에 와있다.

우리 스님들 중에는 달라이 라마가 움직이는 곳은 세계 어디에서든 열광적 환영을 받고 불교 붐이 일어나는 이유를 그분이 '영어를 구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치부하는 분들도 많다. 그러나 이는 세상 흐름을 모르는 어리석은 진단, 자기기만(欺瞞)에 불과하다.

달라이 라마와 함께 비불교도들에게서도 존경을 받는 틱낫한 스님의 경우를 보아도 잘 알 수 있듯이, 해외 포교는 대규모 종단이 전폭적으로 지원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고국을 떠나 정치적 망명길에 나서야 했던 두 스님에게서 '증오 · 복수' 등의 어두운 이미지는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용서 · 평화 · 화합'과 같은 맑고 향기로운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교 자산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아싸지(Assaji) 비구의 맑고 평화로운 얼굴을 보고 "저 분의 스승이라면 생사의 번뇌를 끊게 해줄 수 있을 것이다"며 결국 부처님의 상수 제자가 되었던 사리불과 목건련 존자의 출가 인연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하다. 특히 해외 포교를 실천하거나 계획하는 분들은 이 점에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종단이 나서서 '국제 포교'를 강조하고 해외 사찰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일도 물론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다만 미국 불교의 급상승 배경을 잘 살펴본다면, 맑은 수행자 상(像)을 세우는 것이 그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쉽게 깨닫게 될 것이다.

■ 자유기고가

봉 평화통일기원 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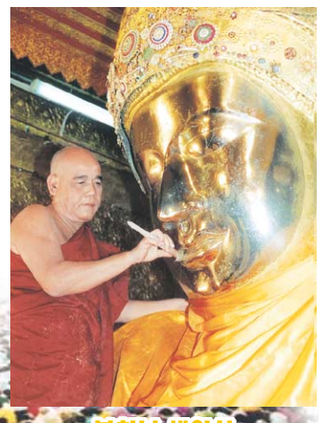
http://www.buphwajungsa.or.kr 한글주소 : 법화정사 · 세계불교수도원구룡사 · 불사리탑
※임진각역 기차표와 버스표를 법화정사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문의 : 02-326-1331, 02-333-9586

법화경사경독송대법회

전세계 1백만 법화경사경행자 기도모임 통해 평화통일 발원

10월 15일(일) 10시 ~ 오후3시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평화통일, 세계평화를 지키는 법화경 독송과 순국영령들을 위한 위령제를 열며

1. 평화통일기원 법화경독송기도
2. 호국법화경 한글궁체서예, 한문예서체 서예전시
3. 나라청정 민족청정을 위한 부처님 세안식
4. 호국영령을 위한 추모제
5. 통일기원 음악회



부처님 세안식
미얀마 예도 큰스님 봉행

귀의 삼보하옵고,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의 크신 가르침이 온 세상에 전해져서 가정마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금번 법화정사에서는 전국 전세계의 불자들이 임진각 평화누리에 모여서 분단조국의 통일을 발원하고 나라를 위해 몸 바치신 호국영령들을 추모하는 법화경 독송기도대법회를 봉행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불교의 나라 미얀마의 국보인 마하무니 황금대불사원의 조실이신 예도사야도께서 대한민국에 오셔서 나라의 청정과 민족의 청정, 중생의 정화를 발원하는 부처님 세안식을 봉행합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한 이 기도대법회에는 전국의 1200여명의 유명 서예가들이 완성한 우리나라 최초의 궁체서예법화경과 예서체한문서예법화경도 전시합니다.

이 행사에서 모금한 기금은 남북한 수재민돕기와 유니세프(국제연합아동기금) 후원에 사용됩니다. 주변의 많은 불자님들과 온가족이 동참하여 칠천만 한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을 두 손 모아 발원합시다. 나무석가모니불

2006년 10월 15일 회주 석 도 림 스님과 일백만 법화행자 일동

일시 : 2006. 10. 15(일) 10시 ~ 오후3시
장소 : 임진각 평화누리(경기도 파주시)

주최 : 대한불교조계종 평화통일불사리탑 · 법화정사
세계불교수도원구룡사 · 세계대각법화회

※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 한글법화경을 한 권씩 드립니다.

현대불교 buddhanews.com
서기 2006년 10월11일 수요일 (주간) 제 598 호

부처님 그리기에 내 예술 생명 걸었죠

조형주의 선구자 김흥수 화백



"나 불자 아니에요."

불교와의 인연을 묻는 기자에게 대뜸 김흥수 화백(88)은 부인부터 한다.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주변에서 반대의사들이 튀어나온다.

김 화백의 '아름다운 동반자' 장수현 관장(김흥수미술관)은 "온 집안이 불자예요. 사실 불자세요. 미흡하다 생각하셔서 그러시는거지, 불자 맞아요"라고 거든다. 부인의 말에 김 화백은 부인하지 않는다. 그저 살짝 미소지을 뿐.

평창동 김흥수미술관에는 미륵반가사유상을 그린 '염(念)'과 '오(悟)'가 마주 걸려있다. 생각에 잠긴 '염', 살며시 미소짓는 '오'를 보며 "상호 위에 알알이 새긴 점 표현조차도 하나하나 신경써서 작업했다"는 김 화백은 "'염'은 인생문제를 생각하는 부처님을 구상으로, 빛을 환하게 하는 만다라를 추상으로 한 화면에 표현한 것"이라며 자랑스러워한다.

끊임없이 미륵부처님을 그려왔다. 김 화백은 "미륵불을 그릴 때 '이것은 국보다'라는 생각을 그림에 투입한다. 그리고 국보에 견줄만한 표현을 이 작품에 했느냐고 몇 번이나 자문자답 하면서 그린다"고 거듭 강조한다.

이런 기를 투입하면서 그려서일까. 일본에서 매해 열리는 코리안 평화미술전(남북 작가전)의 1998년 오사카(大阪)전 때 눈이 거의 보이지 않는 중년 부인이 김 화백의 '미륵불' 앞에서 "빛이 비쳐오며 미륵불이 보인다"고 했던 일화는 유명하다.

왜 부처님을 그리는지 궁금했다.

"학생 때 레오나르도 다 빈치가 성모마리아와 아기예수를 그린 그림에 대해 성스럽다고 평한 책을 봤어요. 종교적인 최고 분위기는 예술의 최고 분위기와 같습니다. 어려서부터 부처님과 가까웠으니까 당연히 부처님의 모습을 그리면서 종교적인 엄숙함이 나오는지 보고 싶었어요. '부처님'에 내 예술의 생명을 걸었던 거죠."

'부처님'이 그려지면 인간사 인생도 그림으로 그릴 수 있을거라고 생각했다. '부처님'을 그리면서 '나를 버리라'는 말을 체득했다. 무아지경에 빠졌을 때만이 그림에서 종교 이상의 것도 나올 수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1977년 '염'을 선보이자 평론가들은 김 화백의 조형주의 회화양식을 결정적으로 나타내주는 작품이라고 평했다. 조형주의는 추상과 구상을 같은 화면에 병존시키는 회화양식으로 김 화백에 의해 시작됐다.

"부산 피난 시절, 파리에서 추상이 유행한다는 기사를 보고 우리도 추상을 해야 한다는 화가들 사이에서 홀로 반대했다"는 김 화백은 "모방만 하면 안된다는 생각에서 무엇이 새로울까 자문자답했다"고 말한다.

추상·구상 공존하는 하모니즘 회화 추구
13일 부산서 米壽전

이 고민 끝에 탄생한 것이 주관(추상)과 객관(구상)을 한 화면에 표현하는 것이었다. 김 화백이 1970년대 꽃피운 조형주의의 발로이자, 하모니즘의 단초였다.

미수가 되도록 붓을 손에서 놓지 않는 김흥수 화백이 부산에서 처음으로 10월 13일 전시를 한다. 도시갤러리 개관 3주년 초대전으로 부산과 조우하는 김 화백. 전시를 마치는 11월 17일에는 '미수'를 맞는 기쁨을 친우들과 나눌 생각이다.

전시 준비를 위해 지난 7월에는 부산을 찾았다. 전시장도 둘러볼겸 나선 김에 통도사에도 들렀다. 생전 처음 KTX를 탔던 흥분이 통도사에서는 놀라움으로 바뀌었다.

"별천지였어요, 내게는. 이렇게 조용한 곳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도 했죠. 물론 내가 풍경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그리기에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은 조금 했지만요."

올 여름 내내 부처님만 그렸다. 통도사의 강렬한 인상은 천진난만한 부처님 상호를 만들어냈다. 한창 마무리작업 중인 세 분의 소품 부처님들은 도시갤러리에서 만날 수 있다.

조금씩 손해보고 사는, 욕심 부리지 않는 삶이 건강 비결이라는 노화백. 두 번에 걸친 김흥수 화백과의 만남은 신세계를 접하는 신선함이었다.

첫 번째 만남에서 김 화백은 하얀 정장으로 눈길을 사로잡았다. 구두까지 하얗게 맞춰 신은, 하얀 턱수염의 노 신사는 매력적인 향기를 뿜어냈다. 두 번째 만남은 검은 셔츠에 크고 파란 팬던트가 인상적인 차림새로 멋쟁이의 향취를 느낄 수 있었다.

멋쟁이로 사는 건강비결을 듣고 싶었다. "세속적인 욕심을 버리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가장 큰 건강비결"이라고 강조한다. "남을 속이면 속에 음침한 응어리가 져서 끊임없이 나를 위협하기 때문에 끝이 안좋다"며 "모든 것을 용서하고 내가 조금 손해보고 살자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인다.

지금 이 순간도 김흥수 화백은 밤 늦게까지 부산 전시회 준비로 바쁘다. 드로잉과 부처님 그림 등도 마무리 중이다. 전시를 앞두고 준비할 것도 많고, 흥분돼서 잠도 푹 자지 못한다.

젊은 시절 전시회를 준비하던 때나, 여든이 넘어 미수를 바라보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전시회를 앞둔 화가의 심장은 두근두근댈 뿐이다.

글=강지연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전선(케이블) - 찬덕연등에서 시공한 사찰 (대한불교천태종 광수사 법당)


자동 승강 장치(등표 조정 작업)


연등 자동 승강장치 작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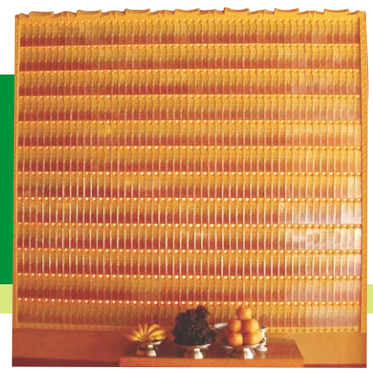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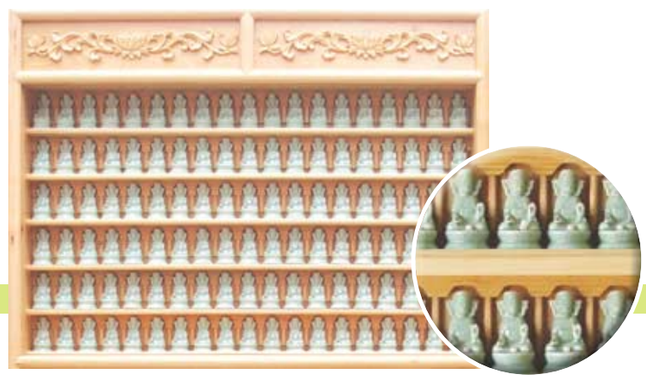
아름다운 등

찬덕연등이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종 등 팔각봉축접등 공단등 주름등(만월봉축등)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찬덕연등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1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법당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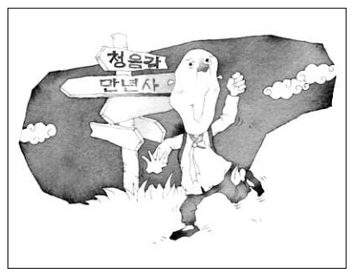


할로 죽이고 방으로 살리고

<81> 사천성 아미산에서

선종의 언어는 흔히 '격외(格外)도리'라고 말한다. 기존의 상식적인 틀을 깨어버린 파격적인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 까닭이다. 그래서 선사들을 '출격(出格)대장부'라고 부른다.

이번에 중국 사천성 보현성지 아미산에서 며칠 머물 수 있는 인연이 닿았다. 성지를 순례하면서 발견한 것은 그 파격적인 절 이름들이다. ○○사(寺) 내지는 ○○암(庵)에 익숙한 우리의 고정된 틀을 사정없이 부수어버렸다. 하긴 인사동에서 낙원동으로 가는 길에 있는 어떤 요정은 '○○암'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있다. 우리 바람과 상관없이 그 이름은 그렇게 세간 사람에 의하여 파격적으로 사용되고 있긴 하다.



세상지 · 홍춘평 · 청음각 등
상식의 틀 깬 사찰 이름에서
중국 선사들의 안목 느껴져

아미산 산꼭대기에 위치한 그 암자는 '금정(金頂)'이라고 불렀다. 이름 그대로 거대한 보현보살상과 큰 전각은 금빛으로 번쩍거린다. 범어사 뒤에도 금정(金井)이 있기는 하다. 지리산에서 가장 풍수전망이 좋다는 금대(金臺)라는 이름도 생각났다.

걸어서 해 질 무렵에 도착한 곳이 '세상지(洗象池)'였다. '세상야월(洗象夜月)'이라고 하여 아미산 십경중의 하나라고 할만큼 달빛이 기가 막히다고 하는데 날씨가 도와주질 않는다. 여기 이름은 보현보살께서 당신이 타고 다니던 코끼리를 친히 목욕시킨 연못이 있다는 것에서 유래됐다고 한다. 절 이름을 이렇게도 지을 수 있는 그들의 격외의식이 놀라울 뿐이었다. 한국의 오대산 계곡에는 문수보살이 나타나 세조의 등을 씻어주었다고 해도 그건 절이름으로 승화되지는 못했다.

대나무로 만든 대야에 뜨거운 물을 가득 담아준다. 툇마루에 주루룩 앉아서 모두 바지를 둥둥 걷고 발을 담궜다. 피로회복에 그만이란다. 그런데 보현보살은 코끼리를 씻어주었고 문수보살은 왕의 등창을 손으로 씻어 낫게 해 주었다는데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는 내 발은 어느 보살이 와서 씻어주나?? 동산양개선사 모친은 눈이 멀어 길에서 지나가는 납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발에 사마귀가 난 당신 아들스님을 찾으려고 했다는데….

이튿날 지팡이를 짚고서 다리를 끌다시피 하며 내려와 하루를 묵은 곳은 홍춘평(洪椿坪)이다. 여긴 절 앞에 '홍춘'이라는 나무가 많고 골짜기 안에서 비교적 넓은 평지에 위치한 탓에 이런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노자〉에 몇 천년을 산다는 '홍춘'이라는 나무이름이 나온다. 그렇거나 말거나 절 명칭이라기보다는 무슨 중국 요릿집 이름같다.

자장면을 최초로 만들었다는 공화춘이 인천 차이나 거리에 있었다고 하던데. 이슬이 많아 옷이 젖는 줄도 모르고 비맞은 것처럼 젖는다는 '홍춘효우(洪椿曉雨)'가 크게 벽면을 장식하고 있다. 지팡이를 꽂으니 물이 나왔다는 전설을 품은 샘이 마당 한가운데서 물을 담고 있었다. '세상지' 만큼이나 '홍춘평'도 절 이름으로는 파격적이다.

마지막으로 지팡이를 버린 곳이 청음각(淸音閣)이다. 이름만 들어도 그 절 풍광이 그려졌다. 아니나 다를까 깎아지른 맑은 계곡위에서 듣는 물소리가 일품이었다. '개울물 소리가 그대로 부처님의 설법이라(溪聲便是廣長舌)'고 하던 소동파의 시 그대로였다. 하긴 동파도 이곳 사천성 아미산 출신이 아닌든가.

세상지, 홍춘평, 청음각을 걸어서 돌아오는 길은 산도 산이고 물도 물이지만 그 현판의 이름들이 개산한 선사들의 파격적 안목을 대변해주고 있다. '금대(金臺)'로도 충분한데 '금대암(金臺庵)'이라고 불러야만 했고, 동굴에서 수행했기 때문에 이름도 없으련만 그 동굴이라는 혈(穴) 마저도 뒷날 '혈사(穴寺)'라고 기록하는 '격내(格內)장부'들과 대비된다.

하긴 그렇다고 해서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다. 금강산에 선원을 짓고는 '마하연'이라고 이름붙이지 않았던가. 이름그대로 얼마나 방이 컸던지 이쪽 끝 쪽에서 정진하던 납자에게 저편 얼굴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 한 철을 같이 살아도 누가 누군지 몰랐다고 하는 해방 전 이 땅 최대 수행처였다.

■ 원철 스님(조계종 포교원 신도국장)



'사불'을 하고 있는 불자들. '사불'은 고도의 집중력과 인내를 요구하는 구도 과정이다.

붓끝에 몸·마음을 하나로

"선(線)은 똑같아 보이지만 모두 다르다. 붓은 마음이다. 너무 꽉 쥐어서도, 느슨해서도 안 된다. 중도여야 한다. 사불은 자기창조도 아니고 개성표현도 아니다. 완성을 향해 끊임없이 가는 길이다. 거기에 나 자신은 없다. 자신을 넣어서도 안 된다. 그런데 결국엔 그것이 자기다. 사불은 그렇게 정성과 노력으로 이뤄지는 마음의 그림이다. 선(線)은 선(禪)이다."

'불화 그리기' 강좌에서 만난 사불수행자들

▷사불수행하는 사람들

굳이 수행이라고 말할 필요도 없다. 선(線)을 긋는 그 자체가 일념이요 선(禪)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은 선이 된다. 그것은 선(線)이 아니다. 그러니 선(禪)도 아니다.

서울 조계사의 불화그리기 강좌에서 만난 30여 불자들. 호기심에서 해보고 싶었다는 한 젊은 여성, 자신의 손으로 부처님을 그리는 것이 소원이었다는 50대 보살, 새로운 삶을 찾고 싶었다는 70대 거사…. 부처님을 그리게 된 이유는 달랐지만 가는 길은 같다.

부처님을 그대로 그리는 사불(寫佛). 그것은 붓과 몸과 마음을 일치시키는 수행이다. 하루에도 몇 시간씩 붓을 잡고 부처님을 그리는 사람들. 그들은 왜 붓을 놓지 못하는 것일까.

-잡념이 없어지고 인내심이 생긴다. 왜 사불수행 사불수행 하는지 알 것 같다. 사불을 하기 전에 좌선을 하는데, 전에 보지 못했던 나를 느끼고 있다.(문성희 · 50 · 안산 중앙동)

-하루 5시간씩 하고 있다. 처음에는 단순히 하고 싶다는 생각에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욕심이 생겼다. 내가 그리는 부처님을 통해 나를 만나고 싶다. (최영순 · 50 · 용인 수지구)

-호흡이 깊어지면서 급한 성격이 바뀌고 있다. 신기하다. 내가 편안해지면서 생활이 편안해졌다. 이런 것이 수행이구나 하는 성취감을 느낀다. (윤자명 · 43 · 서울)

-매일 저녁마다 사불을 한다. 사불 전에는 반드시 경전을 읽는다. 하루하루가 행복하다. (조태화 · 45 · 서울 보문동)

-하루 종일 11장을 그렸다. 1장 그리는데 1시간30분쯤 걸린다. 하면 할수록 심취하게 된다. 선을 그리는 동안은 아무 것도 느껴지지 않는다. 노후를 어떻게 보낼지 고민이 많았는데 담을 찾았다. 지금 새 인생을 살고 있다. (양득환 · 70 · 인천 부평구)

-불교신자는 아니지만 꼭 해보고 싶었다. 아직은 잘 모르지만 깊은 매력이 느껴진다. (이소정 · 28 · 서울 중랑구)

-기도하지 않고는 붓을 잡지 않는다. 수행을 목적으로 시작했고, 이건 정말 수행이다. 할 때마다 삼배하고 기도한다. 나를 보고 주변을 볼 수 있게 됐다. (강미형 · 42 · 포천)

-조용히 하고 있다. 내가 배운 것은 이것이다. (문예자 · 60대 중반)

▷사불, 왜 수행인가?

조계사 불화그리기 강좌를 지도하고 있는 이철승(42) 화백은 "붓을 이겨야 제대로 선을 그릴 수 있다. 붓을 이기려면 자신을 이겨야 한다. 자신을 이기고 몸과 마음이 합일이 될 때 비로소 살아있는 선을 그릴 수 있다"고 말한다.

사불 자체가 수행인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하나의 선을 올바로 긋기 위해서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호흡을 멈춘 채 붓끝에 온 정신을 집중해야 한다. 이런 과정의 수없는 반복을 통해 비로소 '선(線)'을 배운다. 선(線) 하나에 몸과 마음이 모아진 상태, 그러니 바로 선(禪)인 것이다.

사불수행도량 공덕사 주지 법인 스님(사불수행연구회 연구원장)은 "사불은 형상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그리는 것"이라며 "사불은 고려시대에 사경과 함께 발달했던 수행의 한 방법이었다"고 설명했다.

"잡념 없어지고 인내심 생겨"
"그리는 부처님 통해 참나 만나고 싶어"
"호흡 깊어지면서 급한 성격 차분해져"

▷사불수행의 단계

불화는 초를 뜨거나 습화(習畵 · 먹선으로 형태를 그리는 것)를 거쳐 채색으로 완성된다. '초를 뜬다'는 것은 부처님이 그려진 초본(初本) 위에 한지 등 밑그림이 비치는 종이를 대고 그대로 베끼는 작업이며, '습화'는 초본을 옆에 놓고 눈으로 보며 베끼는 것이다.

사불은 채색 전 단계인 초를 뜨거나 습화하는 과정을 말한다.

사불 첫 단계는 보통 시왕초로 시작한다. 그 뒤 보살초(관음초, 문수초, 보현초), 신중 또는 사천왕초로 단계가 올라가며 이 과정이 익숙해지는 데에는 평균 1~2년 정도가 걸린다.

시왕초를 그리는 단계는 붓끝과 교감하는 과정으로, 먹을 찍는 순간 먹이 많은지 적은지, 선을 강하게 그려야 하는지 약하게 그려야 하는지를 본능적으로 익히게 된다. 이때부터 호흡법도 본격적으로 배운다. 보살초를 그리는 단계에서는 손의 유연성과 자세를 갖추면서 긴 선을 그리는 연습을 한다.

초 뜨는 단계를 지나면 습화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이 단계는 그리는 대상의 균형미와 표정 등을 잘 살려야 하기 때문에 2~3년 정도가 지나야 익숙해진다.

사불 수행은 바로 초 뜨기와 습화 단계를 반복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의 불성을 찾는 일이다.

글 · 사진=한명우 기자

▷사불 배울 수 있는 곳

사불수행을 전문적으로 지도하는 곳으로는 서울 공덕사(02-2066-8061)가 있으며, 조계사(02-732-2183) 길상사(02-3672-5945) 아미타사(02-745-3352) 만해불교대학(02-738-3385) 동산불교대학(02-732-1206) 통도사박물관(055-382-1001) 태고종 대구종무원(011-814-0648) 등의 '불화' 강좌에서 사불을 배울 수 있다. 강좌는 일주일에 한 두 차례 열린다.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밝은길 아바타 센터
아바타 마스터 김희균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154-1
전화 010-6230-2113 · ☎ 02)396-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불교계최초의온라인광고사이트 애드붓다피아 http://ad.buddhapia.com
머리에 쏙쏙!! 한문이 이제 쉬워집니다.
김광식 선생의 한문학습 노하우를 여러분께 모두 전수해드립니다.
지루하고, 답답한 한문공부, 이제는 그만!!
체계없는 주먹구구식의 교육방법 등으로 긴 시간을 요하는 기존의 한문 교육을 배격하고, "金光植 先生의 새로운 漢文書堂"은 흥미롭고 보다 능률적이고 요령있게 한문 공부를 쉽게 할 수 있도록, 40여년 동안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수행하여 얻은 노하우를 이제 여러분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초 · 중 · 고 · 대학생 · 일반 실무용 한자
(6급 - 1급까지 능력시험 대비)
영어를 모르면 세계의 고아!
한문을 모르면 아시아의 고아!
17억 한문 문화권의 당당한 도전!
한문을 알면 지구의 반을 정복한다!
金光植 先生의 새로운 漢文書堂
한자 고사성어 및 응용한자, 행정용어, 속담 등 1만여 문장 성어 수록
속담에 "소가 물을 마시면 우유가 되고 뱀이 물을 마시면 독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로 "사람도 공부를 하면 위인(偉人)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새로운 漢文書堂이 여러분께 많은 도움을 드렸으면 합니다.
全六券 90,000원
인터넷 불교 종합 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전화 02)737-0695/02)2004-8219
◇현대불교신문 - 〈한문서당〉에서는 딱딱한 사전적 풀이대신 쉬운 언어로 한자를 풀이하고 있다. 한자는 형성과정을 이해하면 저절로 외워진다.
◇충청 투데이 - 체계적인 한문교육이란 무엇이며 예절과 충효문화교육에서도 상세히 알려준다.
◇동양일보 -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한눈에 쏙 한맹을 벗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책이다.
◇중부매일 - 한문교육 40년 경험과 최고의 경험과 최고의 결과를 후학들이 부담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엮은 책이다.
◇이원종 전충북도지사 - 한문책으로서 우리 도를 빛낸 또 하나의 쾌거이다.
◇김종호 전 내무부 장관 - 한문문화권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시점에서 지름길을 제시해 주어 경제와 문화가 한층 발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주사 도공 스님 - 한문과 불교문화는 밀접한 관계다. 불자들의 필독을 권한다.

얘들아 우리 '생일' 이야, 법당 와 봐~

9월 21일 서울시 동대문구 경희의료원 지하 소강당. 경희대학교 불교학생회(회장 김준희 · 이하 경불회)가 창립 30주년을 맞아 'A Thundering Cry!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현각 스님 초청 공개법회를 개최했다.

300석의 의자가 꽉 차고도 넘쳐 늦게 들어온 학생들은 통로 중간 중간에 간이 의자를 갖다놓고 법문을 경청했다. 한 마디 한 마디 놓치지 않고 들으려는 열의가 가득하다.

공개질의 시간. 한 학생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집니까?"라고 진지하게 물었다. 현각 스님의 대답은 간단하다. "지나간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앞으로 올 미래를 들떠 생각하지 않고 지금 현재에 집중하세요."

법회가 끝나자 그 학생은 경불회 임원진을 찾아와 "불자는 아니지만 불교가 어떤 종교인지 궁금해졌다"며 "나 자신을 찾기 위한 공부에 동참하고 싶다"고 입회신청서를 냈다. 이날 자발적으로 회원가입을 신청한 학생들은 10여 명. 공개법회를 개최한 목적이 달성된 셈이다.

경불회가 이번 법회를 열게 된 계기는 대학생 불자가 줄어들고 있는 시대적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경불회는 회원이 단 5명 뿐. 올해에는 단 한명의 회원도 가입하지 않았다. 재학생이 없어 부처님오신날 연등제도 준비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자 경불회는 심각한 존립위기를 느꼈다.

이에 재학생과 동문으로 구성된 '비상법회'를 6월부터 소집하고 화계사 국제선원 앞으로 e-mail을 보냈다.

"대학생 불자들을 교화하고 싶으나 회원이 너무 적은 나머지 불교학생회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놓였다. 불교학생회를 위해 창립기념 공개초청법회에 꼭 연사로 와주셨으면 한다"는 내용이었다. 현각 스님이 긍정적인 답변을 보내온 것은 물론이었다.

행사를 주도적으로 마련한 윤형식 동문(39)은 "공개법회에 참석했던 학생들의 명단을 작성해 향후 불교학생회 행사에 초청하면서 계속적으로 포교활동을 "1학기는 축제, 2학기는 창립제로 포교에 나서요."

대학 불교학생회들의 창립제가 가을 청년 불심을 들뜨게 한다. 전국 대학 불교학생회의 창립기념일이 대부분 9~11월 하반기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창립제 행사 내용도 달라지고 있다. 예전에는 회원들끼리 모여 조촐한 창립기념일 법회를 보았다면, 이제는 창립기념일을 전후해 전교생이 함께 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등 캠퍼스 학우들의 눈길을 끌기 위한 다양한 전략들도 나오고 있다. '밖으로 눈 돌린' 각 대학 불교학생회의 창립제를 들여다 보자.



창립기념일 공개법회를 개최해 좋은 호응을 얻은 경희대 불교학생회가 9월 21일 공개법회 후 초청법사인 현각 스님과 기념촬영했다.

대학 불교학생회 '창립제' 줄이어…포교 기회로

공연·초청 강연·체육대회 등 이벤트로 주목 받아

벌일 것"이라며 "외부인들과 공유할 수 있는 창립제를 통해 불교학생회를 알리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대외적인 행사를 통해 창립제를 '캠퍼스 포교의 장'으로 활용하는 대학이 최근 늘어나고 있다. 충남대 대전대 한남대 등 충청도 지역 대학교 불교학생회들은 최근 줄어들고 있는 회원을 하나로 결집해 9월 30일 공동창립기념행사 '충청인 체육대회'를 치뤘다.

각 대학 불교학생회가 봉행하는 개별적인 창립제에서 벗어나 지역 대학생 불자들의 불심을 하나로 결집한 행사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외에도 명지대 불교학생회는 11월 18일 창립기념일을 맞아 학생회관 소강당에서 공연을 펼친다. 수화, 기타연주, 합창 등의 공연을 갖고 행사 시작 전에는 촛불을 만(卍)자로 설치하고 대법회를 봉행한다. 또 행사에 참가한 동문선배들과 함께 즐기는 동문체육대회도 연다.

숭실대 불교학생회는 10월 11~12일 이틀간 캠퍼스 광장에 간이부스를 설치하고 학우들을 대상으로 차보시에 나선다. 또 다구와 다기, 단주 등 불교용품을 전시하고 학우들의 발길을 이끌어 불교학생회에 대한 설명과 함께 홍보를 할 예정이다.

11월 11일 창립제를 봉행하는 성신여대 불교학생회는 아예 학교 밖 타학교를 향한 포교효과까지도 생각하고 있다.

성불회 박설아 회장은 "인근의 한양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등에서 학생들이 참석하기도 한다"며 "창립제가 다양한 불자들을 만날 수 있는 창구로 기능하도록 대외적 포교에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신여대는 '웃찾사' '개그콘서트' 등 젊은이들이 친근하게 생각하는 코미디 프로그램을 각색해 불교학생회를 홍보하는 '꽁트' 형식의 연극을 준비하고 있다. 또 찬불가 합창대회 및 공개수계식도 마련할 계획이다.

경원대 불교학생회는 11월 4일 캠퍼스 대강당에서 불교학생회의 활동을 돌아보고 의미와 의의를 밝히는 공개발표회를 개최한다. 빔 프로젝트와 슬라이드 필름 등을 활용해 입체적으로 불교학생회를 홍보하고 학우들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다.

이은비 기자 renvy@buddhapia.com

하반기 대학교 불교학생회 창립제 일정

한양대	9월 26일	불교영화상영회 및 창립법회
숙명여대	9월 30일	불교연극, 찬불가 합창공연, 공개대법회
숭실대	10월 11~12일	차보시 및 불교용품전시회
경원대	11월 4일	창립기념 불교학생회 공개발표회
동덕여대	11월 3일	동문의 밤 및 공개발표회
명지대	11월 18일	찬불가 율동 및 창립대법회
성신여대	11월 11일	불교꽁트, 찬불가 공연, 공개수계식

대불청 새회장 '의욕' 맞대결

정재호·박효상씨 '출사표'… 10월 22일 투표

대한불교청년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상옥)는 제14대 중앙회장 선거를 10월 22일 대구은행연수원에서 치른다고 밝혔다. 입후보자는 기호 1번 정재호씨(조계사 청년회)와 기호 2번 박효상씨(용주사 청년회) 두 명이다.

정재호 후보(법명 운문)는 1960년 6월 26일 생으로 경희대 사이버대학 NGO학과에 재학중이며, 조계사 청년회 사무총장, 대불청 중앙이사, 중앙연수부원장, 중앙 수석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정 후보는 "대불청에도 모금방법을 차별화하는 경영전략을 도입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업 연대를 통해 재정을 확충하겠다"며 "조직을 효율적으로 개편해 대불청을 제2의 도약으로 이끌겠다"고 밝혔다.

박효상 후보(법명 법수)는 1966년 6월 27일 태어나 경희대 산업대학을 졸업하고 경희대 선불교학생회 회장, 용주사 청년회 회장, 중앙 통일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대불련 경기지구 총동문회장으로 있다.

박 후보는 "불청활동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프로젝트 팀을 운영하고 대불련 · 군 특별교구 등과의 연대를 통해 조직을 확대하겠다"고 공약을 제시했다.

대불청 선관위는 중앙회장 선거에 앞서 10월 21일 정책토론회를 열 예정이며 10월 22일 오전 10시 제51차 임시 대의원총회를 통해 중앙회장을 선출한다. (02)738-1920 이은비 기자

탐방

청공 남성중창단

부산 동의대학교 캠퍼스는 매주 일요일마다 찬불가 소리로 가득찬다. 음악대학 연습실 문을 활짝 열어놓고 밤늦도록 연습을 하는 청공 남성중창단(단장 정성민)의 노랫소리다.

타종교인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음대에서 당당히 찬불가 소리가 흘러나오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정성민 단장은 "음대에서 대놓고 부처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곳은 이곳 밖에 없을 것"이라고 자부한다.

그동안 연습장소조차 섭외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지만 정단장이 동의대에 출강하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동의대 한 구석에 연습실을 마련할 수 있었다.

청공은 2004년 1월 창단한 젊은 남성불자 솔리스트만으로 이루어진 불교중창단이다. '부처님 품안에서 노래 소리가 널리 퍼져나가기를 기원'하는 뜻에서 '청공(晴空)'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젊은 불자들답게 패기가 넘친다. 공연에서는 찬불가와 오페라 뿐 아니라 '빈대떡 신사' '마징가Z' 등 장르를 넘나드는 다양한 선곡으로 객석을 압도한다.

리더인 정성민 단장을 비롯해 테너 박윤규, 바리톤 조창준, 바리톤 추현철, 테너 강은태 등 5명으로 이뤄진 멤버들은 모두 성악 전공 석사 이상 학력보유자들이고, 한마음선원, 원불교 경남교구, 홍법사, 장유사 등의 합창단 지휘를 맡는 등 탄탄한 실력을 자랑한다. 정 단장은 동의대와 부산여대를 출강하고, 멤버인 조창준씨 등은 시립합창단원으로 있어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지만 그 와중에도 사찰 산사음악회 등에 두루 초청공연을 나가며 활발한 포교활동을 펼치고 있다. 전국 사찰 개산대재가 줄지어 열리는 10월 한 달 내내 벌써부터 스케줄이 꽉 찼다.

이들은 '음악을 전공한다고 해서 자신의 종교성향을 밝히는 일이 왜 부끄러운가'라는 고민 끝에 단체를 결성하게 됐다. 그러나 불자 음악인으로 활동하고 나서도 어려움은 계속됐다. 그나마 있는 불자 음악인들조차 생계를 잇기 힘들어 개종하는 사례를 보면서 정 단장은 '불자 전문음악인을 위한 단체'의 중요성을 절감했다.

또 불교예술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불교계가 예술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벗고 지원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공 또한 공식적인 창단을 하고도 2년 6개월이 지난 올해 6월에 이르러서야 창단연주회를 가졌다.

그동안 자비를 털어가며 공연준비를 하는 어려움도 겪었지만 다행히 올해는 부산 금산사가 후원사찰로 나섰다.

현재 청공은 내년 초에 찬불가CD를 제작완료할 계획을 세우고 '소리울림이 좋은 사찰'을 찾아다니는 중이다. 공명이 잘 되는 전통 사찰 안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담은 찬불가를 녹음하고 싶다는 포부를 갖고 있는 것이다. 또 청공 멤버들의 목소리를 완벽하게 잡아 줄 불자 지휘자와 작곡자도 찾고 있다. 이렇게 완료한 CD는 전국 불자단체와 사찰에 무료로 배포할 계획이다. (051)890-1318 이은비 기자



올해 6월 14일 금정문화 소극장에서 창단음악회를 연 '청공'은 그동안 전국불교청년대회, 산사음악회 등에서 음성공양을 펼쳐온 청년 전문음악인 단체다.

오페라에서 마징가Z까지 불러

2004년 창단, 전문성악인들의 포교 위한 하모니

금강선원 참선수련원

금강선원 참선수련원은 상설 참선수행 정진 도량입니다. 일년내내 개방하며, 수행일정은 수행자 본인의 자유의사대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입 · 출소가 자유롭습니다. 또한 수행방법에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수행방식대로 간화선이든, 위빠사나이든 무엇이든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말에 오셔서 잠깐씩 수행하시기는 더욱 좋은 도량입니다.

바로 지금 수행을 시작하십시오. 실천하는 당신은 아름답고 용기있는 사람입니다.

◆ 가는 길 : 서울 → 양평 → 홍천(44국도) → 철정검문소 → 수련원(451지방도로)
◆ 교 통 편:
[승용차] 서울-88도로-양평-홍천(44국도)-철정검문소에서 우회전(상남,현리방향)-451지방도로 (7㎞정도가면 좌측에 금강선원 참선수련원 팻말 보임)
[버 스]
1) 동서울터미널 또는 상봉터미널에서 홍천行 버스
2) 홍천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화상대리行표 구입
-1번홈에서 내촌 혹은 현리行 버스 승차
-화상대리 학교 앞 하차

전 화 : 033)433-5845
입방비 : 일만오천원(1일)

금강선원 참선수련원장 혜거 합장

강릉 인월사 담마선원
위빠사나 집중수행 안내

지혜와 자비를 개발하는 불교명상법인 위빠사나 집중수행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사부대중 불자뿐 아니라 종교에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푸른 솔숲 향기와 목조 황토방 선원에서 깨달음의 휴식을 가져 보십시오"

일 정	지 도
2006년 10월28일-11월 3일(6박 7일)	우 소다나 사야도

통 역	정 원	대 상
수 마 테	20명(선착순)	일 반 인

■ 수행장소
강릉시 경포 저동 6-2번지 인월사 담마선원 (황토방에 욕실과 화장실 완비)
■ 수행내용
좌선, 행선, 일상생활수행.
매일 수행 점검을 위한 사야도(큰스님)의 면담과 법문이 있음.
■ 입제 및 회향 : (6박7일 중 일부기간 참여가능)
시작 날 - 10월 28일 오후 5시
끝나는 날 - 11월 3일 오전 12시
■ 참 가 비 : 15만원
(우체국 201780-01-001463 예금주: 담마선원)
■ 준 비 물 : 수행에 편한 복장, 세면도구, 필기도구
■ 문의 및 접수
☎ 담마선원 033)644-1786
email : dhamma53@hanmail.net

스님이 직접만든
원주 생식

● 현미를 비롯한 17종의 곡류 31.56%
● 녹색채소, 담색채소, 황색채소 22종 31.9%
● 버섯류, 한약재, 해조류 10종 26.3%



◀ 1일 1끼 40g 1포×60포
60,000원

▣ 치료식
▣ 건강식
▣ 발아생식

★청 국장 분말(우리콩)
1Kg 20,000원

★청 국장 환(우리콩)
1Kg 25,000원

당뇨환자 전화상담

무상사 053-958-5921

우체국 703314-01-001873 예금주 무상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1동 산28-3 무상사

생산물배상책임보험(동양화재해상보험) ISO 9001 품질인증업체
유통기한중 이상있는 제품은 구입처에서 교환해 드립니다.

"이름 대사전"
아직도 이름을 짓고 계십니까?

작명을 하는 데는 우선,
● 수리가 좋은 획수로 구성되어야 하고,
● 상생의 원리를 따르고,
● 수리구성에 의한 수리오행과 삼원오행 및 원(元), 형(亨), 이(利), 정(貞)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 작명에 쓰지 않는 글자들은 사용하지 않아야 하고,
● 한 글자가 두가지 음으로 소리나는 글자는 쓰지 않고,
● 장남과 차남을 구분해야 하며,
● 오행이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상기와 같은 기본을 완벽하게 적용하여 우리나라 약 320여개의 성씨 별로 약 2000여개의 최고의 이름들을 선택해서 이름 풀이까지 완벽하게 갖추고 있으며, 언제 어디서나 사람이름, 법명, 상호, 기타 이름이 필요한 모든 분야에서 완벽하게 활용할 수 있으니, 작명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도 이 책만 있으면 최고의 작명가가 될 수 있습니다.

효 타 암 주지 원공 합장
부산 금정구 금사동 34-4 효타암
전화 051)524-9406

◆ 정가 : 50,000원 ◆ 농협 121076-56-092613 (예금주:손선미)

禪 수행의 길잡이

선가귀감



<41>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계율 존중하기를 부처님 모시듯이 해야 한다. 계율을 잘 지켜 부처님 삶에 들어가는 첫걸음은 먼저 탐욕스러운 마음을 버리는 것이다. 탐욕스런 마음이 없어져야 애욕의 불꽃이 꺼지고, 애욕의 불꽃이 꺼져야 모든 번뇌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모든 번뇌가 사라지면 시비와 분별로 이루어진 삶과 죽음의 문제도 해결되어 육도윤회에서 벗어난다. 부처님의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선가귀감> 41장에서는 이 내용을 말한다.

欲脫生死 先斷貪欲 及除愛渴

시비와 분별로 이루어진 삶과 죽음의 문제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탐욕을 끊어 애욕의 불꽃을 꺼버려야 한다.

생사(生死)는 삶과 죽음의 문제이고, 중생의 삶과 죽음은 시비와 분별로써 이루어져 있다. 시비와 분별은 '나'를 내세우는 탐욕스런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요, 이것이 지나쳐 애욕으로 발전하면 지옥이나 아귀 또는 짐승의 세상에서 윤회하게 된다. 이런 뜻을 설명하는 이 단락은 <원각경> 미륵보살장에서 따온 것인데, 그 앞부분을 함께 살펴보면 내용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소개하여 본다.

"중생들은 탐욕의 경계로 말미암아 수순하고 거역하는 마음이 일어난다. 보통 사람들은 그 경계가 좋아하는 마음을 등지면 증오와 질투가 생겨나 여러 가지 잘못된 업을 짓게 되고, 이 때문에 지옥이나 아귀의 세상에 태어난다. 착한 사람들이 탐욕을 싫어해야 할 것으로 알고 업(業)에서 벗어나는 도(道)를 좋아하여 나쁜 일을 버리고 좋은 일을 즐긴다면, 하늘이나 복된 인간의 세상에 태어나게 된다. 또 정신적 영역이 한 단계 더 오른 사람들은 싫어하고 미워해야 할 애욕을 속속들이 알기에 애욕을 버리고 평등한 마음을 즐거워하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도리어 애(愛)의 근본을 자라게 한다. 이 자리에서 아주 좋은 경계가 나타나더라도 그 경계를 즐겨 집착하면 윤회하는 업과 괴로움의 뿌리가 남아 있는 것이기에 부처님의 거룩한 도를 이루지는 못한다. 이 때문에 중생이 시비와 분별로 이루어진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여 육도윤회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탐욕을 끊어 애욕의 불꽃을 꺼버려야 한다."

시비분별은 '나' 내세우는 탐욕서 비롯
육도윤회 벗어나려면 애욕의 불꽃 꺼야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수순하거나 거슬리는 경계에 따라 사랑하는 마음과 증오하는 마음이 생긴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잘못된 업을 짓게 된다. 지은 업들이 하나같이 나쁜 쪽으로 치우치면 세 갈래 나쁜 길인 삼악도(三惡途)의 지옥이나 아귀 축생의 세상에 태어나게 되고, 악을 버리고 선을 좇게 되면 천상이나 복된 인간의 세상에 태어나며, 사랑하는 마음조차 버리고 평등한 경계를 즐긴다면 성인이나 보살의 경계에 살게 된다. 이렇게 중생들이 짓는 업에도 선과 악이 있고, 애(愛)에도 맑고 탁한 것이 있다.

중생들이 짓는 업이 선이나 악, 청(淸)과 탁(濁)의 경계가 다르더라도 다 중생의 알음알이를 벗어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모두 윤회를 벗어나지 못한다. 육도윤회도 벗어나지 못하는데 어떻게 부처님의 거룩한 도를 증득할 수 있겠는가? 성스런 도를 성취하려면 윤회를 벗어나야 하고, 윤회를 벗어나려면 먼저 탐욕과 애욕을 끊어야 한다. 그러므로 "중생이 시비와 분별로 이루어진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여 육도윤회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탐욕을 끊어 애욕의 불꽃을 꺼버려야 하네"라고 말한다. 서산 스님은 말한다.

愛爲輪廻之本 欲爲受生之緣 佛云 淫心不除 塵不可出 又云 恩愛一縛着 牽人入罪門. 渴者 情愛之至切也.

애정(愛情)은 윤회의 근본이요 정욕(情欲)은 몸을 받게 되는 인연이다. 부처님께서는 "음란한 마음을 없애지 못하면 번뇌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라고 하셨고, 또 "은혜로 애정이 한번 얽히면 이것이 사람을 죄악의 문에 쳐 넣는다"라고 하셨다. '애욕의 불꽃'이란 표현은 애정이 너무 간절하여 불붙듯 치열함을 비유하여 말한 것이다.

몸을 받게 되는 인연은 정욕 때문이라고 한다. 사람이 죽고 난 뒤 남게 되는 심식(心識)이 윤회할 때, 자신의 업대로 가야할 천상이나 귀신 지옥같은 곳은 그대로 가서 살게된다. 하지만 인간이나 동물의 몸을 받아 태어나게 될 때는, 그 심식이 업력으로 정욕이 불붙듯 하여 음심으로 부모가 될 상대 가까이에서 맴돌다가 여자의 몸은 아버지를 남자로 보고, 남자의 몸은 어머니를 여자로 보고 탯속으로 달려든다고 한다. 이와 같이 이 세상에서 몸을 받게 되는 직접 동기는 음욕에서 비롯된다. 물론 성인이나 보살이 중생구제를 위해 원력의 힘으로 이 세상에 나는 것은 예외라고 할 수 있다.

'음심(淫心)'에서 '음(淫)'은 깨끗하지 못한 것이니, '음심'은 사람의 관계를 혼탁하게 만드는 깨끗하지 못한 마음으로서 애욕에 오염된 마음이다.

또 음란한 관계를 맺고 살았던 사람들은 죽어서 그 과보로 지옥이나 아귀 축생과 같은 나쁜 세상에 떨어졌다가, 다시 인간 세상에 태어나더라도 두 가지 나쁜 과보를 받는다고 한다. 하나는 처나 남편이 곧고 어질지 못할 것이요, 또 하나는 뜻대로 아들이나 딸을 얻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화엄경>에서 게송으로 말한다.

邪婬斷汝淸淨種 汚穢本來眞法身 但看鑊湯爐炭畔 盡是當年破戒人

삿된 음행 부처 씨앗 끊어버리고
본디 참된 법신불을 오염 시키네
지옥 형벌 받는 사람 알고 보니까
지은 죄가 하나같이 파계로구나.

<범망경>에서는 "차라리 이 몸을 활활 타오르는 뜨거운 불길과 깊숙하게 패인 골짜기 칼산에 던질지언정, 부처님께서 주신 계율을 끝까지 훼손하지 않을지니 어떤 여인이라도 함께 어울려 깨끗하지 못한 행을 만들어내지 않으리라"고 말하였다.

탐심과 애욕을 끊고 깨끗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깊은 진리에 통달하고 무위법을 깨달아야 부처님의 제자라고 한다. 애욕의 불꽃을 끄고 모든 번뇌를 여의어 부처님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원순 스님(송광사 인월암)

I Love Buddha

용정운(www.buddhaillust.org)

달맞이



한입에 쏘옥~ 불교 상식

수륙재(水陸齋)

물과 육지에서 헤매는 고독한 영혼과 아귀를 달래기 위한 불교의식입니다. 중국의 양무제(梁武帝)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스스로 의식문을 만들어 505년에 금산사(金山寺)에서 재(齋)를 베풀었다지요.

송대에는 동천(東川)이 수륙문(水陸文)을 지어 널리 보급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광종 21년 갈양사(葛陽寺)에서 수륙도량을 연 것이 효시입니다. 조선조에선 억불에도 불구하고 수륙재는 맥을 이어갔습니다. 태조 이성계는 진관사(津寬寺)를 국행(國行) 수륙재를 여는 사찰로 지정하였지요.

하지만 수륙재가 국행(國行)으로 치러지는데 대해 유생들의 반대가 극심했습니다. 그러다가 중종대에 이르러서야 국행시연이 금지됐지요. 이 정도로 조선초에는 불교문화의 맥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륙재의 의식절차는 여러 가지 문헌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먼저 수륙재를 올리는 취지를 밝히지요. 그리고 영신(迎神) 과정으로 명부사자와 오방신, 불법승 삼보를 맞이해 공양합니다. 이어 호법선신(護法善神)등을 맞이해 들이지요.

그 후에 천도할 영혼을 청합니다. 이른바 청신(請神) 과정인데요, 이들에게 음식을 공양하고 오신(娛神)과정으로 범패(梵唄) 등의 불교예술이 시연됩니다. 태징, 요령, 목탁, 피리 등 여러 악기가 등장하지요.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물가에서 많이 치러지곤 합니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강의 (116)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2부 62강 무위복승분 제 11, 존중정교분 제 12

인문학의 정신에 투철한 지식

11장으로 들어선다. 어조가 바뀐다. "토대에 의존하지 않고 세상을 건너라"는 충고 끝에, 이 장은 그 취지를 벼락처럼 일깨워주는 이 경전의 한량없는 가치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한다.

이 경전을 수지하고 전파하는 공덕

– "수보리야, 갠지스 강의 모래 말이다. 그 모래 수 만큼의 갠지스 강들, 거기 있는 모래들, 어떻게 생각하느냐. 합치면 굉장히 많겠지?" 수보리가 대답했다. "아주 많겠지요. 모래 알같은 갠지스 강만 해도 엄청날 텐데, 더구나 그 속에 있는 모래들을 전부 합친다니 말입니다." "수보리야, 내 진정 네게 이르노니,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있어, 그 갠지스강들의 모래수만큼의 삼천대천세계를 칠보로 가득 채워 보시한다면, 그 공덕이 아주 많겠지." "아주 많을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붓다가 다시 말했다.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전 중에 있는 사구게 하나라도 수지(受持)하고, 그것을 남을 위해 설해준다면, 그 복덕이 앞의 그 엄청난 칠보 보시보다도 더욱 크나니라."

須菩提, 如恒河中所有沙數, 如是沙等恒河, 於意云何. 是諸恒河沙, 寧爲多不. 須菩提言, 甚多世尊. 但諸恒河, 尙多無數, 何況其沙. 須菩提, 我今實言告汝, 若有善男子善女人, 以七寶滿爾所恒河沙數三千大千世界, 以用布施, 得福多不. 須菩提言, 甚多世尊. 佛告須菩提, 若善男子 善女人, 於此經中, 乃至受持四句偈等, 爲他人說, 而此福德, 勝前福德.

혜능이 어째서 사구게 수지전파 복덕이 더 위대한지 짚어준다. "칠보로 보시하면 삼계의 부귀로 보상받을 것이다. 대승경전은 그러나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 지혜를 내게 하고, 더없는 도를 성취하게 하니, 마땅히 알라. (이 경을) 수지하는 복덕이 저 칠보 복덕보다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무어, 애매한 구석은 없다. 다만, 사람들이 이 말을 믿지 않을 뿐이다. 작금 도하 매스컴에 인문학의 언필칭 '위기'를 훤전(喧傳)하고 있다. 돌이켜보면, 그만큼 한심한 학문이 다시 없다. 학부모들은 자식들이 문학이나 철학을 하겠다면 펄쩍 뛴다. 도대체가 돈을 잘 버는 법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식이나, 생산에 필요한 기술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 아까운 시간과 노력을 거기 들이다간 밥을 굶기 딱이다. 지금은 사정이 더 열악해졌다.

그런데도 인문학은 중요하댄다. 왜? 그것은 다름 아닌 '삶에 필요한 기술'을 가르치기 때문이다. 라틴어로 아르스 비타에(ars vitae)'라고 불리는 이것만큼 중요한 기술이 없다. 인간이 가장 먼저 배워야할 것이고, 자신과 타자와 관계하는 한, 절대로 빠트릴 수 없는 지식이다. 우리는 삶을 돌아볼 때쯤 이 학문의 중요성에 눈뜬다. 그런 점에서 인문학은 노년의 학문인지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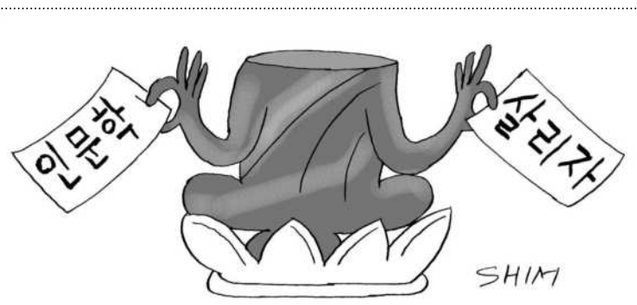
아무러나, 그동안 대학은 이 인문학의 목표에 걸맞는 정신과 커리큘럼에 철저하지 못했다. 객관성의 이름 아래, 과학의 이름 아래, 서구적 지식의 독점 아래, 이 근본 기술의 '실용적 측면'을 간과해온 탓이다. 그것이 작금 드러난 인문학의 위기, 그 진원이다.

과학자나 샐러리맨, 주부와 학생에게 동시에 필요한 '태도의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지식인 점에서, 인문학은 포괄적으로 '교양'을 지향한다. 키케로는 주관을 갖고, 사람을 설득하고 일을 처리하는 덕목적 기술을 인문학이라고 지칭했다. 삶에 꼭 필요하지만, 그러나 돈을 벌게 해주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인문학은 과시 무용지용(無用之用)의 지식이고 기술이다.

불교, 인문학의 전형이다. 지금 듣지 않는가. "수백 수천억개의 은하계에 흩어진 별들을 다이아몬드 금궤로 덮는다 해도, 지금 불교가 제시하는 삶의 태도, 이것 하나 배우는 것의 중요성에 비하면, 발톱의 때만도 못하다!"고. 이것은 전형적이고 철저한 인문학의 태도이다.

각설, 이 말은 앞의 8장 "부처를 낳은 법(依法出生分)"에서 한 바 있다. 6장에서 "내가 설하는 설법은 뗏목같은 것"이라고 했고, 7장에서는 이어 "나는 아무 것도 설한 것이 없다"는 다짐을 받은 후, 8장은 이 역설을 알리는 가르침이 얼마나 고귀한지를 비유로 파격해 준 바 있다. 그 어투가 지금 11장을 꼭 빼닮았다. 다시 읽어본다.

– "수보리야, 네 생각에 어떠냐. 사람들이 삼천대천세계의 칠보를 보시로 기부한다면, 이 사람의 공덕은 엄청나겠지." 수보리가 대답했다 "대단히 클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어째서겠느냐. 이 공덕은 공덕의 성질을 갖고 있지 않은 바, 그래서 여래께서 매우 큰 공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須菩提, 於意云何. 若人滿三千大千世界七寶以用布施, 是人所得福德, 寧爲多不. 須菩提言, 甚多世尊. 何以故. 是福德卽非福德性, 是故如來說福德多.

– "만약, 누가 있어 이 경전을 받아들이고, 지닌다면…. 나아가 이 경전의 핵심 몇 구절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준다면, 그 복덕은 (저기 삼천대천세계의 칠보를 조건없이 내놓는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하다."

若復有人, 於此經中, 受持, 乃至四句偈等, 爲他人說, 其福勝彼.

중간에 칠보로 재산을 기부하는 것을 큰 자랑으로 삼지말라는 삽입구가 끼어 있는 것을 빼면, 이 구절은 11장과 꼭 같은 이야기로 되어 있다. 연재를 시작하면서 내가 <반야심경>과 <금강경>의 차이에 대해서 말해준 바 있다.

핵심은 <반야심경>이 고도의 압축성으로 들의 아뇩다라삼먁삼보리의 깨달음이 다 이 경전으로부터 나온 까닭이다."

何以故. 須菩提, 一切諸佛及諸佛阿耨多羅三藐三菩提法, 皆從此經出.

– "수보리야, 이른바 부처의 진리 혹은 깨달음이란, 실은 진리도 깨달음도 아니다."

須菩提, 所謂佛法者, 卽非佛法.

8장은 보시다시피, 왜 사구게의 수지독송이 그토록 중요하며, 그것을 전파하는 것이 공덕의 으뜸이고 수승(殊勝)인지를 노파심에서 짚어준다. "사구게 안에 최고의 깨달음이 있다." 여기 또 혹 오해가 있을까 보아 다시 노파심의 경계가 이어진다. "지금 내가 깨달음이라고 했니? 아니, 그건 숨겨진 자기를 자각한다는 뜻이지, 새로운 무엇을 획득한다는 뜻은 아니야. 오해해선 안 돼!"

12장 존중정교분(尊重正敎分) 제 12

11장의 뒤는 없다. 12장이 이어진다. 나는 양의 소명태자가 11장과 12장을 갈라놓은 것이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한다. 이 두 장은 의미 전개상 연속되어 있다.

– "다시 수보리야, 이 경전을 설함에 사구게 하나에 이르게 되면, 마땅히 알라, 이곳은 일체 세간의 천인, 인간, 아수라가 모두 공양을 올릴지니. 부처의 탑묘처럼… 더구나 어떤 이가 능히 이 경 전부를 수지하고 독송한다면, 수보리야, 마땅히 알지니, 이 사람은 최고의 희귀한 진리를 성취한다는 것을… 이처럼 경전이 있는 곳이 곧 부처가 있는 곳이 되고, 위대한 제자들이 거하는 곳이 된다."

復次, 須菩提, 隨說是經, 乃至四句偈等, 當知此處, 一切世間天人阿修羅, 皆應供養, 如佛塔廟. 何況有人, 盡能受持讀誦. 須菩提, 當知是人, 成就最上第一希有之法. 若是經典所在之處, 卽爲有佛, 若尊重弟子.

■한국학중앙연구원



1912년 침몰한 타이타닉호



공중납치된 2번째 항공기가 미국 세계무역센터 트윈타워빌딩에 접근하는 장면.

기막힌 '우연의 일치' …확률일까?

#1 미국의 한 정보기관인 국가정찰국(NRO)이 항공기가 세계무역센터 트윈타워빌딩에 충돌하는 것을 상정한 시뮬레이션 훈련을 계획했다. 그것도 공중 납치된 항공기가 세계무역센터 트윈타워빌딩에 충돌한 9월 11일 아침에. 또 미국 펜타곤(국방부)에 충돌한 아메리칸 항공 77편의 파일로트였던 찰스벌링게임은 해군복무 당시 마지막 임무로 민간기가 펜타곤에 추락하는 것을 대비한 국방부 대응계획을 수립했다고 한다.

#2 미국의 작가 모건 로버트슨이 1898년 집필한 소설 <타이탄호의 침몰, 혹은 부질없음>의 내용은 14년후인 1912년 일어난 타이타닉호의 침몰사건과 유사한 점이 많다. 이름도 비슷하지만 침몰한 달, 승객과 승무원수, 24개의 구명보트의 수, 배수량 7만톤, 전장 240미터, 빙산충돌후 침몰, 7만 5000마력, 속력 시속 25노트까지 같다.

#3 미국 대통령을 지낸 링컨과 케네디의 운명은 딱 100년의 시간차를 두고 유사하다. 링컨이 연방의회 의원으로 선출된 것은 1846년, 케네디는 1946년이다. 대통령이 된 해는 링컨이 1860년, 케네디가 1960년이다. 두사람의 성은 7글자였고, 시민권 문제에 깊이 관여했다. 둘다 금요일에 링컨은 포드극장에서 케네디는 포드가 만든 링컨컨버터블을 타고가다 총격을 받았다. 두사람의 뒤를 이은 사람은 모두 남부출신의 민주당원이자 상원의원을 지낸 존슨이었다. 링컨의 뒤를 이은 앤드류 존슨은 1808년생이고 케네디의 뒤를 이은 린든 존슨은 1908년에 태어났다.

링컨을 죽인 범인 부스는 1839년생이고 케네디의 암살범인 오스왈드는 1939년생이었다. 부스는 극장에서 총을 쏘고 창고로 도망갔고, 오스왈드는 창고빌딩에서 총을 쏘고 극장으로 도망갔다. 링컨과 케네디의 두 미망인은 24세에 결혼해 각 세명씩 자식을 낳았지만 남편의 대통령 재임중 한 아이를 잃은 공통점이 있다.

과학마저 당혹시키는 인류의 영원한 미스터리, 우연의 일치는 왜 일어나는가?

먼 옛날 신화시대에도 그러했고, 인공위성이 지상의 움직임을 낱낱이 포착하는 첨단기술의 시대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인간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이 있다. 왜 이런 마른하늘에 날벼락 같은, 또는 가슴 벅차도록 즐거운 우연의 일치가 일어나는가?

정말 우연의 일치는 불가사의 한 것일까?

신화와 종교, 문학과 예술, 확률과 과학, 법정에 선 우연의 일치 등을 종횡무진으로 살피고 있는 이 책은 인류가 보여 온 온갖 우연의 일치에 대해 흥미진진한 통찰을 가한다.

1부 '현미경으로 들여다본 우연의 일치'는 문학, 종교, 과학 등 다양한 각도에서 우연의 일치를 살피며, 2부 '사방에서 출몰하는 우연의 일치'는 우연의 사례들을 몇 가지 기준에 따라 정리해 놓았다. 이 책에 등장하는 우연의 일치는 잘 알려진 이야기부터 주변의 흔한 사례들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담았다.

우연의 일치인가 도작인가 하는 문제가 자주 불거져 나오는 것은 캐릭터 및 코미디 소재, 그리고 음악, 문학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상당히 복잡한 수학 공식을 사용하면, 한 방 안에 23명만 있으면 그중 2명이 같은 생일일 확률은 50%를 넘는다고 한다. 저명한 수학자 워렌 위버는 미군 고관들과 식사를 할 때 이 이야기를 끄집어내어 테이블에 둘러앉은 22명의 생일을 물어보았다. 유감스럽게도 한 바퀴를 돌았으나 같은 생일의 사람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 방에 있던 23번째 사람이 그를 구원해주었는데, 그 사람은 시중을 드는 웨이트리스였다.

또 복권에 수차례 당첨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7차례나 벼락을 맞아 벼락 맛의 감별사가 된 사람도 있다.

불행은 그렇다 하더라도 행운이라는 것은 왜 좀더 공평하게 골고루 미치지 않는 것일까? 행운의 여신이 미소를 보내는 소수의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자질이나 불가사의한 힘을 갖추고 있는 것일까?

"운이 좋은 사람은 왠지 인생이 주는 기회를 정당한 몫 이상으로 부여받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한편 운이 나쁜 사람은 모처럼 찾아온 기회를 반드시 놓치고 만다."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충고한다. 외계인으로부터 우주선에 올라타라는 말을 들더라도 침착함을 잃지 말라고. 하지만 우연의 일치에 대해서는 늘 주의를 기울이라고. 그러면 행복이 찾아오기 때문이란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



우연의 일치

마틴 플리머, 브라이언 킹 지음 | 김희주 역 | 수희재 | 1만2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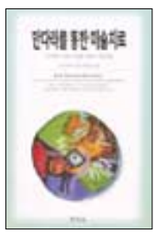
소설이 현실된 타이타닉호의 침몰

링컨과 케네디의 닮은꼴 인생 등

우연의 일치에 관한 흥미진진한 통찰

네티즌 강추

복잡한 인간 내면세계 이해하는 길잡이



만다라를 통한 미술치료 수잔 핀처 지음, 학지사

이책은 만다라의 이론과 해석에 관하여 잘 설명하고 있다. 매우 복잡한 인간내면을 이해 하려면 많은 논리를 예시하는 좋은 길잡이가 필요하다.

한 두번 읽어 이해를 하신다면 당신은 분명 사회적 역기능의 성인이거나 이 세계에 놓인 특별한 사명이 있는 사람일것이다.

이 세상에는 배워서 남줘야 하는 운명의 사람들이 반드시 있는것을 보았고 그러한 일을 누구 보다도 잘해 내기위하여 밤낮으로 일하시는 분들을 수없이 만나 왔다.

만다라의 개념에 대해서는 쉽게 이해하겠지만 실제 적용은 좀 난해한 것이 사실이다.

그래도 만다라 그리기는 집에서 자기 스스로 해볼 수 있는 마음치료법중의 하나라는 생각이 든다.

미술치료라는게 어른이 되어서는 좀 교활해져서 스스로의 마음조차도 속이려 드는터라 아이들이나 유아를 대상으로 한다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exist1, book.naver.com/bookdb)

지쳐있을 때야말로 참나와 만날 절호의 기회



잡념이 보배다 김성수 지음, 생각하는백성

통상 바라보기라는 내용으로 명상에 대해 설명하는 책들을 많이 보아왔다. 하지만 이처럼 자상하게 그것도 핵심을 정확하게 일러주는 책을 본적이 없다. 특히나 글의 내용 또한 상큼하다. 작가의 역량이 돋보인다.

무엇보다도 저자의 실경험에서 나오는 글이기에 무척이나 생동감이 있다. 구체적인 사례를 그때그때 마다 적절히 언급한 것 또한 읽는 사람을 배려 하는 듯 하다. 매우 섬세하고도, 따뜻한 글이어서 아주 좋았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로 속상하고,스트레스 받는 일로 가득차 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체 그져 몸과 마음이 지친다.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화상이기도 하다. 바로 이러한때가 어쩌면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 보는 절호의 기회이다. 그야말로 위기는 기회이다.

이참에 진정한 나를 찾는 행운이 주어지는 것이다. 이 책을 따라 읽어가다 보면 어느틈에 참나와 닿아 있음을 알 수 있다. 꿩 먹고 알 먹고 라고 해야 할까?

(baik0915, yes24.com/Goods)

책속의 밑줄긋기



○…"응당 큰 지혜를 사용하여 오온의 번뇌와 진로를 타파해야 하나니, 이렇게 수행하면 필경 불도(佛道)를 성취할 것이다."

지혜의 마음으로 번뇌를 타파하면 곧 올바른 과보를 이루어 피안에 도달할 수 있다.

그리고 번뇌를 타파하는 첫 걸음은 바로 모든 법의 빈 모습을 인식하여 현실속의 모든 사물이 실답지 않은 환영을 아는 것이다.

날아가는 기러기는 그림자가 없고, 봄날의 꿈은 흔적이 없다. 이 이치를 알면 얻고 잃음에 집착하지 않고, 유감이나 원망을 마음에 두지 않을 것이다.

"일은 봄날의 꿈과 같아서 흔적이 없다"고 탄식한 후 소동파는 곧바로

"강성의 맥주 석 잔 맛이 진하고, 시골 늙은이의 창백한 얼굴이 한번의 웃음으로 따스하다"라고 쓰고 있다. 이말은 마음이 담박하니 소박한 백주나 시골의 벗도 마찬가지로 따스하고 사랑스럽다는 말이다.

-<소동파 선을 말하다> 본문 112~113쪽에서, 스야후이 저/장연 옮김, 김영사

불서구입은 www.yosiamun.com

<바로보인 환단고기 전 5권 출간>



과학도 밝히지 못한 태초와 우주탄생의 비밀,
더불어 웅장한 우리의 고대사를 밝혀놓은 환단고기.
근본성품으로부터 비롯하여 전우주, 지구촌으로 이어온
광대무변의 역사와 진리를 천강대선사의 인가제자인
대원 문재현 선사님께서 일체종지를 통달한
명안종사의 안목으로 밀밀하게 바로보였다.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신(神)법문 안내>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진면목을 엿볼 수 있는 선가귀감 서울 법회가 10월 1일 열렸습니다. 8일날 법회 없습니다. 11월 5일 법회 있습니다.
• 광주선원 ☎ 062-944-4088
선문염송 / 10월15일(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후 2시
• 부산선원 ☎ 051-545-2460
금강경 / 10월22일(매월 넷째주 일요일) 오후 3시

☎02-522-0122 www.zenparadise.com

철 수행 삼매 체험 건강비법 노하우 완전공개
절을 氣차게 잘하는 법
호흡에 맞춰 절하는 법

절할 때 흡흡호 호흡법은 저절로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가장 완벽한 비법으로, 절하고 일어설 때 마다 가슴차크라가 열리고 단전이 뚫리면서 가슴 막혔던 지독한 업장덩어리의 팔자가 고쳐지고, 병고액난의 병 덩어리가 녹아내리는 기적 같은 신비로운 일들을 수시로 체험하게 됩니다.

⊙ 허리, 무릎, 발목, 발바닥에서 땀이 나며, 냄새 지독한 노폐물의 병독이 엄청나게 빠져나가며 두한족열이 되어지는 진짜 건강법의 절로, 머리는 얼음처럼 시원하고 몸은100% 따뜻해짐
⊙ 팔다리 가슴에 털이 많거나, 손가락 발가락마디, 무릎, 허리, 목이 까맣거나, 등허리 피부가 검고 지저분한 반점에서 병고액난의 많은 노폐물과 나쁜 기운이 빠져나가며 맑고 깨끗한 몸이 됩니다.
⊙ 붉은 얼굴, 여드름, 아토피, 대머리, 백발, 고혈압, 당뇨, 심장병, 화병, 상기병, 만성피로, 혼침, 졸음, 골치 아픔, 가슴 답답함을 일으켰던 성냄의 화독이 입과 코와 온몸에서 빠져나가며 얼굴은 환하게 밝아지고, 몸은 새털처럼 가벼워지고, 마음은 언제 환희심 삼매를 체험합니다.

▶ 수련일시
서울 군자법당 :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오후 7:30
부산 금정법당 : 매주 화요일 오전 10:30, 오후 2시
준비물 : 기도포, 수건, 두꺼운 면양말, 법복바지
불교신행단체에서 수행비용 일체를 후원해줍니다.

※ 절 하는 법 교육받을 시간이 없으신 분은 특별수련시간을 조율 받으십시오.
※ 절을 잘하시는 분의 99.999%는 흡흡호 호흡법의 비법테크닉을 배우고 전수받은 수행자입니다.

백만불자 108배 만일결사
수행중심교육도량 법왕정사

청견스님 011-9088-9449
서울군자법당 02)456-0035 / 부산금정법당 051)583-7886
http:///cafe daum.net/sorisan(절하는 법 동영상 참고)

삼사순례 및 소원성취
기도도량 동해사

매년 10월 12일부터 11월 20일까지 밤, 낮없이
사리탑위에 법비가 내려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해있어 중생들의 어떤 소원도 이루어 지는 곳
기도영험도량인 동해사에 오시어
기도의 참 맛을 느껴 보세요



법비오는곳 사리보탑

※ 대형주차장, 방생기도처 5분 소요
낙산사 10분소요
후휴암 15분소요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학포리
법비오는 곳 동 해 사
033)672-2900

양지 국악사
무용 국악용품 전문 매장

양지국악기 제작소
태고(절북), 승무북, 모듬북,
장고, 징, 꽹과리

◆ 국악기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릅니다
◆ 전통의 아름다움 그대로 제작 합니다
◆ 더 저렴한 가격과 더 좋은 품질로 다가 갑니다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아름다운 절 아름다운 스님
이연정 지음 | 민족사 | 1만2000원



스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월간 '해인'에 실린 33인 스님 인터뷰 기사 묶어

많은 불자들은 스님들에게서 평범하고 진솔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한다. 스님들의 삶의 얘기를 들으며 잔잔한 감동을 느끼고 싶기 때문이다. 결코 화려하지도 않지만 초라하지도 않는 스님들의 이야기를 통해 불교를 알 수 있고 자신의 수행을 다시 한번 돌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아름다운 절 아름다운 스님>은 월간 <해인>의 '호계삼소(虎溪三笑)'에 소개됐던 스님 33명의 인터뷰 기사를 모은 책이다. 33인 스님이야기에는 보통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수행자의 모습과 운동권 스님, 농사꾼 못지 않은 농부 스님도 있다.

이 책의 저자인 이연정씨는 "내가 만난 대다수 스님들은 다 고집쟁이들이었다. 주위 시선에 아랑곳없이 묵묵히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는 외골수들이었다.

융통성과 재주와 가치가 판치는 세상에서 아직도 원칙과 상식, 도덕을 받드는 자유인들이었다"고 말한다.

덧붙여 "어느 상황이 닥쳐도 훌훌 털어버리는 홀가분함, 앞뒤 재지 않는 무대책, 명분이 서지 않으면 낭떠러지인 줄 알면서도 발길을 돌리지 않고 꼿꼿하게 길을 가는, 채우기보다는 버림을 선택하는 버리기 도사들, 성향과 방식은 다르지만 모두 자유인들"이라고 단정한다.

책은 '수산지종 스님(백양사):참선과 차 마시는 정신은 하나', '원응 스님(벽송사 서암):어려울 때는 불보살의 힘을 빌려야지', 지광 스님(능인선원): '신도를 가르쳐서 부처님을 만들자', 진옥 스님(석천사): '그대는 잠들지 않고 깨어 있는가', 혜능 스님(율사)의 '계율을 지키는 마음이 참회하는 마음' 등으로 구성됐다.

또 진월 스님(한국 종교연합 선도기구)의 '이 사회는 더불어 살고 호흡하는 곳입니다', 도각 스님(민족공동체추진본부) '걸어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영담 스님(석왕사)의 '몸담기는 쉬워도 발을 빼는 것은 쉽지 않다', 지완 스님(서울노인복지센터)의 '노인 문제는 바로 나의 문제'가 실려있다.

이밖에도 철운(법주사), 법장(선운사), 상덕(청암사), 각안(효상좌), 현장(대원사), 원민(능엄학림), 지현(청량사), 현응(육조사), 진원(강사) 탁연(조계종 문화부장) 철산(내소사) 원오(군법사), 정념(월정사), 인묵(어산학교), 원각(원당암), 지산(봉인사), 도영(용탑선원), 노현(각화사), 미산(중앙승가대), 성원(선원사), 정념(낙산사), 선재(선재사찰음식연구원), 원명(삼화사), 금강(미황사) 스님이 소개된다.

이연정씨는 고려대 국문학과를 졸업하고, '월간법회', '불광', '대중불교', '해인' 등에서 기자로 활동했다. 현재 뉴질랜드에서 공부중이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현대 고승 9인 삶·사상과 만난다

현대고승법어 총서(9권) 밀알출판사|10만4000원



삭막해져 가는 현대사회와, 물질문명이 사회의 최고선(最高善)으로 여겨지는 지금, 삶에 대한 진지한 고찰과 반성을 통해 좀 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고 싶다.

그렇다면 빼놓을 수 없는 업적과 선 · 교 · 율(禪 · 敎 · 律)에 정통한 수많은 고승들의 이야기를 통해 답을 찾아보자.

이번에 개정 증보판으로 발행된 <현대고승법어 총서>는 알기 쉬운 법어(法語)와 정신적 · 사상적 가치 정립을 위한 불교의 길라잡이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이 총서에는 9명의 근 현대 고승들의 생애와 사상이 담겨있다.

1권 <문빗장을 만져 보거라>는 경봉 스님의 법어 중에서 불교의 입문과, 수행, 삶의 길, 반야심경을 집대성했다.

2권 경산 스님의 <넉넉한 마음으로>는 선 · 교 · 율(禪 · 敎 · 律)의 가르침을 쉽게 풀어 해석한 새벽빛 같은 법어 모음이며, 3권 <마음에서 마음으로>는 한국불교의 세계화에 이바지한 청담 스님의 법어집이다.

4권 <머물며 흘러가며>는 정좌한 채로 입적한 구산 스님의 생전 법어를 모았으며, 5권 <길을 묻는 그대에게>는 혜암 스님의 사상을 한눈에 볼 수 있다.

6권 해안 스님의 <마음이 곧 부처>는 마음의 본체를 알고 다스리는 방법이 담겨 있으며, 7권 청화 스님의 <순간에서 영원으로>는 인간의 본질과 생명의 근원은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을 던진다.

8권 관응 스님의 <화엄의 바다>는 화엄경의 심오한 의미를 풀어주며, 9권 묵담 스님의 <모든 것은 흘러간다>는 청정한 계행과 수도, 정진과 수행력으로 운수납자의 본분을 다한 스님의 외침이 실렸다.

김원우 기자

우학 스님의 법문 묶어

빛깔있는 법문
우학 스님 지음|좋은인연|5000원



영남불교대학 관음사 회주 우학 스님의 법문집이 출간됐다. <우학 스님의 빛깔 있는 법문>이 그것.

제 1권부터 5권까지 시리즈로 출간된 법문집은 1권부터 3권까지는 2003년부터 최근까지 한 스님의 법문 중 대중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모아 년도별로 묶었고, 4권은 법문집에 누락되었던 법문들을 다시 발췌해 만들었으며, 5권은 화엄경 강의 내용을 담았다.

법문 당시의 현장감을 살려 첨삭 없이 그대로 실은 스님의 법문집은 창건 15년 만에 영남불교대학을 10만 불자들이 붐비는 우리나라 최고의 도심 속 수행도량으로 성장시킨 스님만의 노하우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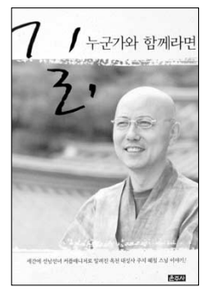
또 포교와 수행의 바른 지침을 제시하고 있으며, 삶에 희망을 주는 기도와 참선의 바른 법을 알려주고 있다.

"불서는 '깨달음의 문'이요, '엘리트불자의 문'이며, '포교의 문'이고 '공덕의 문'"이라며 평소 불자들의 불서읽기를 권장하는 우학 스님은 "마음을 비우고 찬찬히 새겨 읽는다면 가슴 시원한 깨달음의 소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며, 그것이 필자로서의 간절한 바람"이라고 말했다.

배지선 기자

'커플매니저' 혜철 스님의 '인연'

길, 누군가와 함께라면
혜철 스님 지음 | 운주사 | 1만2000원



'인생은 나와 인(因)과 연(緣)을 맺은 수많은 사람, 수많은 환경과의 공존의 길이다. 다른사람, 자연환경이 아프면 궁극적으로 나도 아플 수밖에 없다. 주변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다. 이렇게 우리는 함께가야 한다. 한사람 한사람이 이 세계의 주인공이다. 함께해서 행복한 누군가가 바로 내가 되어야 한다.'

결혼 적령기 선남선녀 1000여명이 회원으로 있는 인터넷 중매카페 '따뜻한 만남(http://cafe.daum.net/dasungsa)'를 운영하며 커플매니저로 나선 혜철 스님(옥천 대성사 주지).

스님은 "모두가 행복한 세상에 한발짝 다가서는데 조금이라도 울림이 됐으면 하는 의미에서 인연맺어주기를 시작했다"고 말한다. 스님은 선남선녀들을 커플로 맺어주기 위해 매주 일요일 20-30명의 회원을 사찰로 불러 '선남선녀 특별법회'라는 이름으로 오프라인 맞선을 주선하고 있다.

스님은 "인연을 소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한다.

<길, 누군가와 함께라면>은 그동안 중매 사이트 운영등 포교와 교화 현장에서 부딪치고 느꼈던 삶의 소회, 법문, 기고문을 모아 엮은 것이다. 총 5부로 구성돼 있는 책의 구성은 '일체 만물이 다 부처일세' '구름이 걷히면 파란 하늘이 보인다' '당신이면 좋겠네' '여시아문' '선남선녀 이어주는 커플매니저' 등으로 나눠져 있다.

대승불교로 푼 아비달마구사론

아비달마구사론 계품
박인성 역 | 주민출판사 | 3만2000원



<아비달마구사론(阿毘達磨俱舍論) 계품(界品)>은 바수반두(世親, 320~380)의 아비달마꼬샤바쉬야의 산스끄리뜨본, 진제(眞諦, 499~569)의 아비달마구사석론, 현장(602~664)의 아비달마구사론의 첫째 장을 번역한 것이다.

계품은 만유의 근본이 되는 제법의 본질(體, 체)에 대해 분별하고 있는데, 먼저 실천적 입장에서 유루법과 무루법을, 이론적 입장에서 유위법과 무위법을 분류한다. 그리고 다시 제법을 5온(蘊) · 12처(處) · 18계(界)로 분류 해석하고, 나아가 18계에 대해 유견(有見) · 무견(無見), 유대(有對) · 무대(無對), 선 · 불선 · 무기 등 여러 갈래로 그 특징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저자인 박인성 교수(동국대 불교학과)는 "우리 불교가 중국 불교를 거치다 보니 부처님의 정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인도의 대승불교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고 말한다. 그래서 저자는 진제의 한역본과 현장의 한역본을 옮기면서 산스끄리뜨본의 의미와 다른 곳에는 밑줄을 그어 설명해 놓았다.

yosiamun.com 추천도서

· 반야의 종소리	도피안사, 광덕 스님, 1만5000원
· 넉넉한 마음으로	밀알, 경산 스님, 1만4000원
· 선 수행의 길잡이	효림, 일타 큰스님, 6000원
· 소동파	김영사, 스야후이 외 공저, 1만2000원
· 절수행입문	조계종출판사, 불학연구소, 6000원

도서주문 (02)2004-8215

목학스님의 빛깔있는 법문

국판 | 144쪽 | 전 5 권 세트 - 각권 5천원



•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저자의 잔잔한 사자후
• 우리나라 최대 도심사찰의 성장 노하우가 들어있음.
• 삶에 희망을 주는 기도, 참선의 바른 법 제시

조계종 영남불교대학·大관음사 053) 474 - 8228
[부속출판사 도서출판 좋은인연 053) 475 - 3707]

엉터리 빙의 이야기가 난무하는 시대에 전하는 따끔한 일침!!!

" 빙의 이젠 제대로 알자! "

귀신에 관한 최고의 참고서

빙의의 시대



지은이/ 일광(逸廣)
신국판/ 312쪽/ 9,500원

무당이 되기 전에 앓는 신병(神病)으로 고생하고 있는 분,
무당하기 싫은 분, 귀신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신경통이나 좌골신경통으로 오래동안 고생하시는 분,
스님이나 무당으로부터 귀신이 몸에 있다고 하여 고민하시는 분은 반드시 이 책을읽고 상담하여 주세요.

출생의 비밀 윤회는 왜 하는가?
여성상위시대와 빙하기는 왜 오는가?
150년후 일본은 침몰하고 없어진다!
전국에서 이름있는 도사를 모셔 조상의 묘를 썼는데 왜 발복이 없는가?

서울출판 Tel. 02-313-5047 Fax 02-393-9696 전국 서점에서 판매 중

"선묵화는 참나 찾는 수행"



범주 스님 선묵화 30년 결산展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불일미술관서 10월 13일부터… 선다화·선차다구 첫선



"선묵화는 수행의 방편입니다. 몰입해서 무아상태에 들어가 작업한만큼 선묵화를 보는 사람의 마음 역시 비워줄 수 있는 선기(禪機)를 담으려고 했습니다. 작품을 보는 사람의 마음을 정화시킬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포교 방편이 되겠지요."

달마도의 대가 범주 스님(달마선원장)이 선묵화 30년 중간 결산의 자리를 마련한다.

서울에서는 조계종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전시장(02-732-2183)과 법련사 불일미술관(02-733-5322)에서 동시에 문을 연다. 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전시장에서는 23일까지 10일간 선묵화 100점과 선묵 도자기 50점을 선보인다. 이 전시회의 수익금은 전액 조계사 국제선센터 조성 기금으로 내놓을 예정이다.

법련사 불일미술관에서는 선다화와 선차다구를 첫 공개한다. 18일간 선다화 50점, 선차다기 50점, 선묵화 등 30점을 선보인다. 천연염색 천위에 그려진 선다화와 매란국죽 금니 사군자화 등이 신선함을 더한다. 사찰 고문살 위에도 한지와 천연염색천을 붙이고 선다화를 그려 '선차' 다도의 운치를 살렸다.

"우리나라의 다도는 내용보다 형식에 치우친 경향이 많아 '선차'를 통해 차를 마시며 선수행을 할 수 있도록 선차를 널리 알리고 다도의 내용을 튼실하게 해야한다"는 범주 스님은 "불교 수행과 포교에 중요한 '선차'에 어울리는 다구와 다화를 만들어보고 싶어서 관음요와 손잡고 다구를 만들어봤다"며 '선차'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전시 첫날인 10월 13일에는 명원문화재단의 다도 시연, 조계사 육법공양팀의 육법공양과 무용단의 승무, 범주 스님의 달마 퍼포먼스등 다채로운 개막전 퍼포먼스도 마련된다. 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전시장에서는 오후 2시에, 불일미술관에서는 오후 6시 퍼포먼스를 만날 수 있다.

2차 부산전은 11월 10~20일 국제신문사 화랑에서 선묵화 30점, 선묵도자기 20점, 선다화 30점, 선차다기 20점으로 관객들을 찾아간다.

출가 전 미술학도였던 범주 스님은 "존재의 본질을 찾기 위해 예술을 택했는데 그림에서는 그 본질을 찾을 수 없었다"며 "대불련을 만나 불교를 알게 됐고, 직접 몸으로 부딪쳐 깨달아야 하는 것이기에 학교에서 사회로 나아가지 않고 산으로 갔다"고 출가 인연을 털어놨다.

1976년 조계종 총무원 불교회관에서 첫 번째 선묵전(禪墨展)을 시작으로 국내외에서 25번의 전시회를 열었다. "30년이 지난 지금 다시 총무원 청사에서 전시회를 하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는 범주 스님.

"참나를 찾을 때까지 작업을 계속할 것"이라는 범주 스님은 "'선차'를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강지연 기자

interview 달라이 라마 초청받아 인도서 영산재 공연 일운 스님

괘불 실사 출력해 뉴델리 무대 장엄



"현대불교신문사가 지난해 7월 티베트 모래만다라 법회를 기획하면서 툽텐 스님을 만날 기회를 준 덕분에 달라이 라마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준보유자 일운 스님(옥천범음대학장 · 사진)이 인도 뉴델리의 티베트하우스에서 열리는 제3회 국제 불교음악 · 불교의식 페스티벌에 초청받은 인연을 이렇게 밝혔다.

일운 스님은 영산재 이수자 법현(동국대 한국음악과 교수) · 효성 · 월타 스님, 전수자 효광 스님등과 함께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로 10월 8 · 10일 인도 뉴델리 티베트하우스 공연장에서 영산재의 장엄한 무대를 연출했다.

"3명만 초청받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고민해도 3명으로는 우리나라 영산재의 장엄을 보여주기가 힘들겠더군요. 2명을 더 데려가도 되겠냐고 문의했더니 주최측에서 무척 기뻐하면서 입국 및 체류 절차에 도움을 줬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산재를 더 효과적으로 선보일까를 고민하던 일운 스님은 공연 때 걸리는 괘불을 현수막으로 실사출력해 지참했다. 가로 3m50cm, 세로 4m50cm의 현수막은 실제 괘불과 동일한 장엄함을 무대에 선사했다.

티베트 망명정부 달라이 라마의 초청으로 이루어진 이번 공연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몽골 등 아시아 7개국이 동참했다.

8일 개막식에는 7개국의 불교의식을 조금씩 선보였다. 달라이 라마가 의식을 직접 집전해 신심을 돋웠다. 10일 열린 페스티벌 본 무대에서 우리나라 영산재는 1시간 20분 동안 불교음악 범패 거령산, 짓소리와 홋소리, 불교무용, 바라춤과 나비춤, 법고춤 등을 공연했다.

강지연 기자

자연이 들려주는 숨소리 화폭에

'먹물 한 점 찍어…' 김양수展



작품 '담쟁이'



'먹물 한 점 찍어 붓을 들면 그들이 웃을까?' 경기도 안성 칠장사 아랫마을에 자리잡은지 만 3년이 지나 자연을 그린 작품을 들고 김양수(사진) 화백이 찾아왔다.

10월 18~24일 관훈동 학고재에서 열리는 '먹물 한 점 찍어 붓을 들면 그들이 웃을까-김양수 전'은 국내에서 3년만에 여는 전시이다.

자연 속에 파묻혀 지낸지 3년. 그동안 자연이 끊임없이 해오는 말들을 그림과 글로 옮겼다. '생이란 어떤 것일까'를 화두로 인간을 비롯한 모든 천지 사물의 생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

"생에 대한 관심으로 그려진 그림들 안에는 평소 끊임없이 생각해왔던 부처님의 말씀이 스며있다"고 김양수 화백은 말한다.

작품을 하는 틈틈이 칠장사에 올라 마음을 안정시켰다. 그 전시에 소개하는 작품은 모두 25점. 전시작 가운데 '길'은 바람 구름 따라 순리대로 길을 가면 우리 인생이 순탄해지면서 여러 사람이 상생할 수 있다는 생각을 담았다.

"저는 행복해지려고 그림을 그립니다. 제가 행복하게 그린 그림을 보는 이들도 행복해지면 저는 두 번 행복한거잖아요. 제 그림을 본 모든 이들이 행복해지는 것이 꿈입니다."

김양수 화백에게 '행복'은 작업의 정체성이기도 하다. '서정적'이라 평가받는 김 화백의 그림과 함께 간간히 적어내린 자작시들은 도록에서만 만날 수 있다. 그림 감상을 헤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도록에조차 모든 시를 다 수록하지는 않았다.

"가장 좋은 예술은 자연을 닮아가는 것"이라는 김양수 화백. 그래서 칠장사 아랫마을에서 살아가는 시간이 주는 감동은 김양수 화백의 그림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모티브다.

(02)739-4937

강지연 기자

"승가건강비법 신비의효능" [마·가·목]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써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갖가지 진귀한 열매와 약수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1달분 60봉 두재 분량) 보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방영

이 효능은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로,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에 좋다.
셋째, 중풍에 특효하며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 (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허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에 특효하다.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 (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에도 좋다.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숙취를 해소한다.

※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상담문의 경기도 양평군 용문산 도솔암
전화번호 : (031)775-1285 자수 대진 합장

수제화로 제작 滿 가득할 만 行 행 靴 화 상표등록 : 614981호

■ 소재특징 : 방수 극세사 원단. 논스립 미끄럼 방지. 특수 우레탄 소재

사계절 단화



• 가격 : 8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흑
(키높이 특수제작)

방한용 털신



• 가격 : 6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흑

건강 슬리퍼



• 가격 : 60,000원
• 규격 : 225-285mm
• 색상 : 회색, 흑색

좋은점

만행 포행시 단정함 유지, 색상에 따라 사부대중의 선택, 발 건강을 위한 3cm 굽 높이로 만들어져 발로 인한 몸 건강에 도움을 주며 특히 지압식 '발바바' 깔창은 특수 항균 실리콘 고무로 만들어져 불교의 예절에 절을 많이 하시는 사부대중님의 발관절에 도움주는 특수 지압식 인솔입니다. 어떠한 신발에도 지압 인솔을 착화하시고 걷는 것만으로도 발바닥을 지압하여 운동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문의 및 주문전화 : 02)927-5715 / 011-9000-5715
■ 입금계좌 : 농협 063-12-250427(구자민) ※ 보시 하실 분 상담 환영

전국매장
•부산 : 원광사 051)636-7019 •대구 : 연꽃세상 053)426-7300
•광주 : 불교서원 062)226-3056 / 화신승복 062)228-2870
•대전 : 불교백화점 042)274-3727 •서울 : 부산승복 02)738-8407 •제주 : 김윤경승복 064)724-7999



正宇 천연 무공해 황토방 시공

스님들의 수행공간이나 침실방을 화학물질이 첨가되지 않는 천연 순100% 황토로 황토방을 信心으로 시공하며 순 100% 천연황토가 아니면 시공비를 전액 받지 않겠습니다.

1. 황토방은 노화방지 및 혈액순환 촉진 스트레스 해소 만성피로회복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2. 황토방은 신경통 요통 아토피질환 알러지 비염 기관지 천식에 효과적입니다.
3. 황토방은 원적외선 온돌효과로 난방비가 절감되며 인체내의 나쁜 과산화지질을 중화시키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4. 천연황토는 실내공간의 악취제거와 습도조절에 효과적입니다.
5. 황토방은 건축물의 개 보수 및 사후관리가 용이합니다.



황토방. 인테리어 시공전문
正宇 정우천연황토산업
대표 정우철 합장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96번지
전 화 062)226-4445
팩 스 062)234-1286
핸드폰 011-607-9828
email : bestceo12@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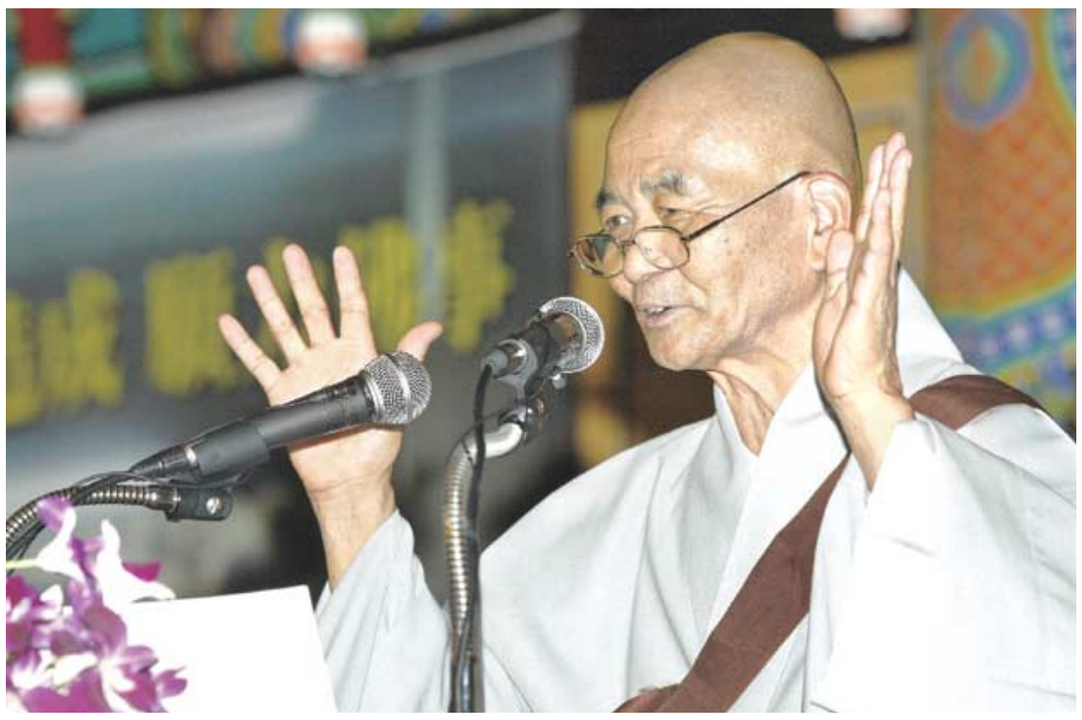
‘경전수행을 통한 깨달음’ 10대 강백 초청

봉선사 강설대법회

봉선사·현대불교 공동 주최 / 지상 중계 2

의룡 스님(前 직지사 강주) / 육조단경(9월 23일)

옳다 그르다 말고 본래면목 보세요



“부처님 가르침은 어렵고 복잡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하는 의룡 스님은 “<육조단경>을 통해 우리의 본래 면목을 찾자”고 당부했다.

불교의 선맥을 본다면 저 인도의 가섭존자가 부처님의 정법 인장을 이어받은 시조(始祖)고, 그로부터 28대에 해당하는 보리달마(菩提達磨)대사가 중국에 와서 법을 펴니 29대가 혜가(慧可) 스님, 30대 승찬(僧璨) 스님, 31대 도신(道信) 스님, 32대가 홍인(弘忍) 스님, 33대가 바로 중국 선불교의 혜능 스님(慧能, 638~718)입니다. 그 분이 바로 육조(六祖) 스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 육조 스님의 법문을 모은 것을 ‘단경(壇經)’이라고 합니다. 이 <육조단경>이 오늘 법문의 주제입니다.

우선 <육조단경>의 제1행유품(行由品)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때 대사가 보림에 이르자 소주에 사는 위 자사가 관료들과 함께 산에 들어와서 스승에게 대범사의 강당에서 대중을 위하여 인연을 열어서 설법하기를 청하므로, 스승이 자리에 오르니 자사와 관료 30여명과 유교 선비 30여명과 비구와 비구니와 도를 닦는 이와 속인 등 천여 명이 다 같이 예를 취하고 법문 듣기를 원하므로 스승이 대중에게 말씀하기를 “선지식아! 보리의 자성이 본래 청정하니 다만 이 마음만 쓰면 바로 마침내 부처를 이루리라.”

이것은 혜능 스님이 법상에 올라서 한 말입니다. 여기서 보리는 무상의 도리입니다. 자성(自性)은 본래 더러움도 없고 청정함도 없는 것입니다. 옳음도 그름도, 선도 악도 아닌 것을 일컫습니다. 그 마음을 바로 사용할 줄 알면 마침내 부처를 이룬다는 것을 말합니다. 보리라는 것은 바로 깨달은 무상의 참된 지혜입니다.

선지식아! 나 혜능이 법을 얻은 내력을 들어보라. 나의 선친은 본관이 범양(范陽)인데 좌천되어 영남(嶺南)으로 내려가 신주(新州)의 백성이 되셨다. 이 몸이 불행해 아버지께서는 일찍 돌아가시고 늙은 어머니와 함께 외롭게 사는데 뒤에 남해로 와서 가난한 살림에 쪼들려 고생을 하며 시장에서 나무를 팔았다. 어느 날 한 손님이 나무를 사서 객점으로 갖다 달라 하므로 혜능이 손님에게 갖다드리고 돈을 받아 나오다가 어떤 손님이 경 외우는 것을 보게 되었다.

내가 경을 잠깐 들으니 ‘마땅히 머무는 바가 없이 그 마음을 내어야 하느니라(應無所住而生其心)’하므로 마음이 열리고 깨쳐서 ‘손님께서는 어떤 경을 외우고 계십니까’ 물으니 손님이 ‘<금강경>입니다’하므로 다시 묻되 “어느 곳에서 오셨는데 이 경전을 가지고 계십니까”하니 손님이 말하길 “나는 황매현 동선사(東禪寺)에서 왔습니다. 그 절에는 오대조인 홍인 대사가 계셔 교화를 하시는데 문인이 천여 명이나 됩니다. 저도 그 곳에서 예배하고 이 경을 받았습니다. 대사께서는 항상 스님들과 속인들에게 말하기를 ‘다만 <금강경>만 받아 지니면 스스로 견성하여 바로 성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옛적부터 인연이 있어서 그 손님이 은 열 냥을 주면서 “노모의 옷과 양식을 충당해 놓고 황매산에 가서 오조에게 예배하라” 하시므로 혜능이 어머님을 편안히 모셔놓고 30여 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황매에 이르렀습니다.

오조에게 예배하니 홍인 대사가 물어 가로되 “너는 어느 지방 사람이며 무슨 물건을 구하고자 하는가”하시니 답하기를 “저는 영남의 신주에 있는 백성인데 멀리 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오직 부처가 되길 바랄 뿐 물건을 구하지는 않습니다”했습니다.

조사가 말씀하시길 “영남 사람이라면 곧 오랑캐인데 어찌 부처가 될 수 있단 말이냐”하시므로 말씀드리길 “사람에게는 비록 남북이 있지만 불성에는 본래 남북이 없습니다. 오랑캐은 화상과 더불어 같지 않겠지만 불성(佛性)에 어찌 차별이 있겠습니까”하고 말했습니다.

오조가 다시 말씀하시려다 대중이 모여 있는 것을 보시고 “너는 대중을 따라가 일이나 하라”고 하시므로 “혜능이 화상께 여쭙겠습니다. 저는 자기의 마음이 항상 지혜를 내어서 자성을 떠나지 아니 함이 이것이 곧 복전(福田)이라고 아는데 스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라 하시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하였더니 스님이 말씀하시길 “오랑캐의 근성이 너무 날카롭구나. 너는 가서 방앗간일이나 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혜능이 물러나 후원에 이르니 한 행자가 나무를 쪼개고 방아를 찧게 해서 8개월이 지난 어느 날 오조 스님이 혜능을 보고 말씀하시길 “너의 소견이 가히 쓸 만하구나. 그러나 사람들이 너를 해칠까 두려워 너로 하여금 말하지 못하게 했다. 너는 그것을 알았는가?” 하시므로 “저 역시 스승의 뜻을 알았으나 감히 당 앞에 나아가지 못했으며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했습니다”고 답했습니다.

오조 스님은 하루는 모든 제자를 불러 모아 놓고 “내가 너희들에게 설하노라. 세상 사람들에게는 나고 죽는 일이 큰데 너희들은 날마다 복전만 구하고 생사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일은 구하지 않는구나. 자성(自性)이 만일 미혹하다면 복을 어찌 구원할 수 있겠는가. 너희들은 가서 각자 스스로 지혜를 살펴보고 자기의 본심인 반야(般若)의 성품을 취하여 각자 게송을 하나씩 지어 나에게 바쳐라. 만일 큰 뜻을 깨달았으면 가사와 법을 전하여 제 육대조로 삼으리니 속히 돌아가서 지체하지 말거라. 사량(思量)으로 헤아린다면 맞지 않을 것이니라. 성품을 보는 사람들은 말 아래에 모름지기 볼 수 있을 것이며, 만일 이와 같은 자는 칼을 부리는 전쟁터에 나가서도 또한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대중들은 분부를 받고 물러나 서로 말하기를 “우리들은 모름지기 마음을 밝혀서 뜻을 써서 게송을 지어 바친들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신수상좌가 교수사(敎授師)이니 반드시 그분이 그것을 얻을 것인데 우리가 게송을 짓는 것은 마음만 헛되이 할 뿐이다” 했습니다.

신수가 생각하기를 “사람들이 게송을 바치지 않는 것은 내가 저들의 교수사이기 때문이니 내가 모름지기 게송을 지어 화상에게 보이리라. 만일 게송을 바치지 아니하면 화상이 어찌 내 마음 속의 견해가 깊은지 옅은지 알겠는가. 내가 게송을 바치는 뜻은 법을 구하는 것이니 좋은 것이려니와, 조사의 자리를 찾는 데 있는 것은 악이니라. 도리어 범부의 마음과 같아서 성인의 자리를 빼앗음과 어찌 다르겠는가. 만일 게송을 바치지 아니하면 법을 얻지 못할 것이니 크게 어렵고 어려운 일이로구나.”

오조의 당 앞에는 복도가 세 칸이 있었는데 공봉(供奉)인 노진(盧珍)을 청해 <능가경>의 변상도와 오조의 혈맥도(血脈圖)를 그려 전하여 내려가며 공양하게 하도록 하는 중이었습니다. 신수가 게송을 바치려 여러 번 당 앞에 갔는데 마음이 황홀하고 온몸에 땀이 흘러 바치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4일 동안 열세 번이나 게송을 바치지 못하고 물러났습니다.

신수가 생각하기를 ‘복도 아래에 글을 붙여서 스님이 보시게 하는 것만 못하겠다. 만일 좋다고 말씀하시면 바로 나아가 예배하며 내가 지었다 말씀드리고, 마땅치 못하다 이르시면 헛되이 산중에 들어와 여러 해 동안 다른 사람의 예배만 받은 것이니 다시 무슨 도를 닦겠는가’ 했습니다. 이날 밤 삼경(三更)에 다른 사람들이 아리 못하도록 직접 등을 들고 남쪽 복도의 벽 사이에 게송을 썼습니다. 게송에 이르길

“몸은 곧 보리의 병풍이요(身是菩提樹)
마음은 밝은 거울을 거는 걸이와 같구나(心如明鏡臺)
때때로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時時勤拂拭)
티끌과 먼지가 일어나지 말도록 할지어다(勿使惹塵埃)”

자, 여기까지 단경을 중심으로 살펴 봤어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 대의(大義)만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회에 오기 위해서 50년 만에 <육조단경> 전체를 다시 봤습니다. 봉선사 스님들과 여기 모인 여러분들이 저를 공부시킨 것입니다. <육조단경> 한 구절 한 구절 다시 읽으니 참 큰 뜻이구나 새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비(是非)는 이 대목부터 일어납니다. 저는 신수대사의 게송을 “몸은 곧 보리의 병풍이요”라고 새겼습니다. 보통 “보리의 나무요”라고 해석하지, 병풍이라고 새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예전이 배울 때는 ‘나무’라고 배웠어요. 그러나 제 해석이 절대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이렇게 한 번 새겨봤다는 것입니다.

몸은 보리를 장엄하는 병풍의 역할입니다. 보리가 주인공이지, 몸은 보리의 병풍곧 장엄하는 도구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마음은 밝은 거울의 걸이라. 때때로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하여금 먼지가 일지 않도록 하여라. 이것이 신수대사의 법문입니다. 신수대사는 당시 몇 백 명을 가르쳤던 강사 스님으로, 자신의 수행 견처(見處)를 이 글귀에 담아 오조 스님께 바친 것입니다.

이 게송을 들은 혜능 스님이 말로써 게송을 지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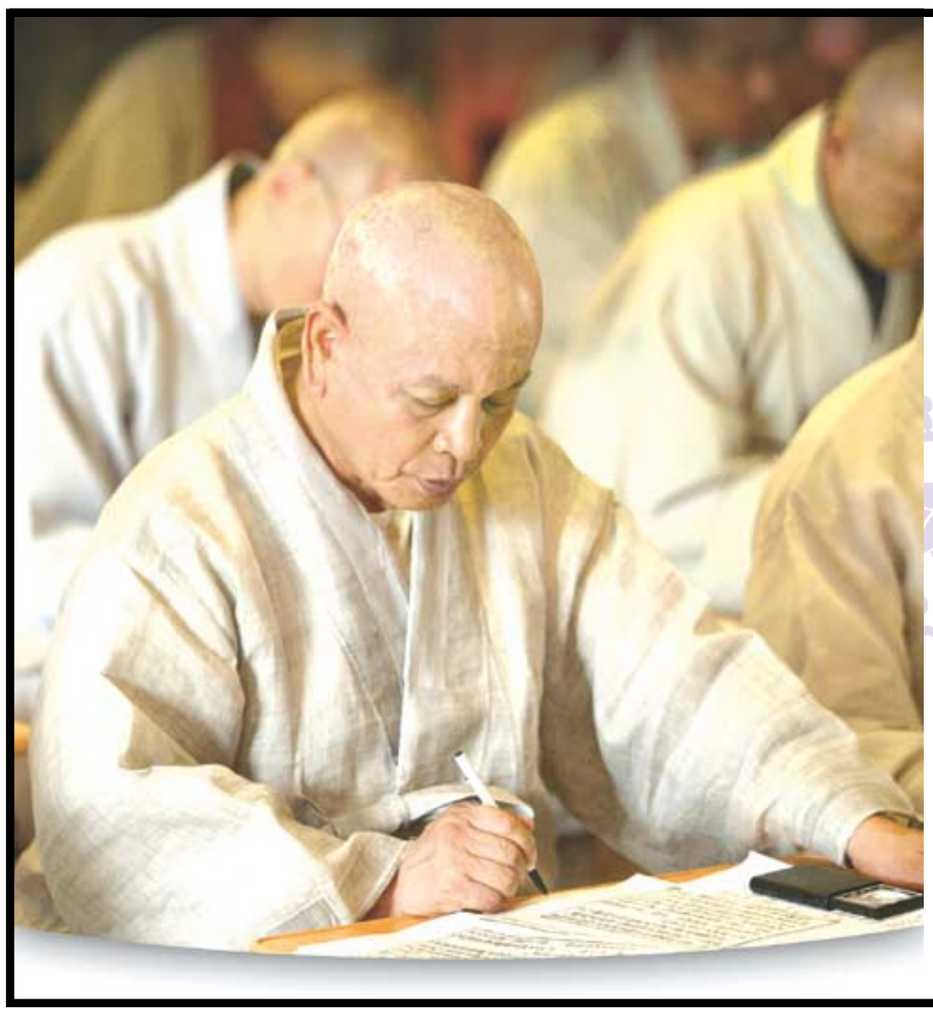
“보리는본래나무가아니요(是菩本無樹)
명경도 또한 대가 아니요(明鏡亦非臺)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本來無一物)
어느 곳에 티끌과 먼지가 일것인가(何處惹塵埃)”

바로 이때부터 불교에 시비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부처님이 삼처전심을 할 때는 이런 시비가 없었어요. 바로 신수와 혜능 행자와의 게송에서부터 시비가 일게 된 것입니다. 몇백 년 후에는 시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지요. 그래서 나는 이 대목이 참 슬퍼요. 신수와 혜능 두 사람을 모두 인가하면

시비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불법(佛法)

청정보리심엔 언어 · 문자도 붙지않아

선도 악도 생각하지 않아야 ‘부처자리’



‘경전수행을 통한 깨달음’
10대 강백 초청

봉선사 강설대법회

시간 매주 토요일 오후 2~5시 | 장소 봉선사 설법전 | 주최 봉선사·현대불교신문사 | 문의 031) 527-1951~3

2006. 9. 16 ~ 11. 25

經典

수행을 통한
깨달음



지관 스님 금강경 | 의룡 스님 육조단경 | 혜남 스님 화엄경 | 응각 스님 아함경 | 지안 스님 열반경 | 각성 스님 해심밀경 | 백운 스님 법화경 | 우룡 스님 정토삼부경 | 통광 스님 원각경 | 월운 스님 능엄경

봉선사 강설대법회
11월25일 보살계수계법회
031) 527-1951~3

법회 동영상 중계는 bongsunsa.net과 buddhanews.com에서, 법문 요지는 매주 ‘현대불교’ 24~25면에 소개

봉선사·현대불교 공동 주최 / 지상 중계 2

의룡 스님(前 직지사 강주) / 육조단경(9월 23일)



'경전수행을 통한 깨달음' 10대 강백 초청

봉선사 강설대법회

안 될 것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가섭존자에게만 법을 전한 것이 아니라 아난존자에게도 법을 전하셨어요. 두 분 모두에게 법을 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 불교의 장자종단이요, 전통종단인 조계종에서 툭 하면 시비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시비를 보면서 나는 "오조 때에도 이런 시비가 있었는데 어찌 시비가 없을 수 있겠는가"하고 안타깝게 여깁니다. 다만, 그때처럼 법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시비가 아니기에 부끄럽기 그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비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불법(佛法)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부처님은 40여 년간 법을 전하셨지만, 시비가 일어나는 법이 없었습니다. 선종에서 <육조단경>을 <금강경>과 더불어 기본 경전으로 삼고 있지만, <육조단경>을 그리 탐탁지 않게 본 것이 바로 이 시비가 일어나는 것이 퍽이나 안 돼서 그런 것입니다. 제가 수행이 덜 되어서 그럴지도 모릅니다. 저는 조계종에 시비가 일어날 때마다 육조 스님과 신수대사 간의 일화를 다시 찾아 읽곤 했습니다.

육조까지는 여래선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부처님이 하신 여래선이 그때까지 이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이후 앙산 스님이 조사선을 개발했어요. 조사선은 하기 쉽습니다. '이 뭣고' 문제를 제시한 것입니다. 참선하는데 숙제를 던진 것이 '뭣고?'입니다. 누군가 '부처가 뭐냐'고 묻자 '마른 똥 막대기'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니 '왜 마른 똥 막대기라고 하는가?' 하고 의심이 생기지요. 이런 숙제를 푸는 것이 참선입니다.

학교 다녀봐서 잘 아시겠지만, 숙제를 다 풀었다고 해서 바로 선생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선 하는 사람들이 자나 깨나 '이 뭣고' 하는데, 이것도 어쩌면 하나의 망상입니다.

불성자리는 말이나 문자나 행동으로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뭣고'만 안다고 해서 불성을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뭣고'라는 숙제를 푸는 것이지 불성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 말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보는 것이고, 나중에 생각이 달라 질수도 있지요. 잘 못 생각한 것이라면 용서를 바라면서, 그저 제가 이렇게 생각했으니 여러분도 이런 면에서 생각해볼 수 있지 않나 과제를 드립니다.

신수 대사의 게송을 다시 봅시다. 보리와 명경은 바로 도(道)입니다. 이것은 본분을 밝힌 것입니다. 밑의 두 줄은 수행의 방법을 제시한 것입니다. 명경의 먼지를 부지런히 쓸고 닦아서 먼지와 티끌이 일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래면목 그대로를 가질 수 있다는 말이지요. 먼지가 끼면 그 작용을 받게 되는 것이 중생이요, 먼지가 끼지 않으면 부처다 이 말입니다. 청정보리심에는 언어도 문자도 붙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몸은 보리의 병풍이요, 마음은 명경의 걸이 밖에 되지 않습니다. 청정보리심에는 언어와 문자가 붙을 데가 없는 것입니다. 보리심이라는 그 언어 자체도 잘 못된 것이지요. 신수대사의 게송은 이 점을 말한 것입니다. 제가 병풍이라고 해석한 것은, 몸이 보리를 장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시비가 붙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혜능 스님은 여기에 게송을 다시 지었다 이 말입니다. 혜능 스님이 반박문을 짓지 않아도 되는데 게송을 조금 잘못 이해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이렇게 혜능 스님이 게송을 지어 바치자 오조 스님은 가사와 발우를 전한 후 배를 태워 보냈습니다. 이때 수백 명이 의발을 빼앗으려고 쫓아갔습니다. 혜능 스님이 "이 가사는 믿음의 표시인데 어찌 힘으로 다툴 수 있겠는가"하자 혜명이 "나는 법을 위해 온 것이지 가사를 뺏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고 말하며 법을 청했습니다. 이때 혜능 스님은 "선(善)도 생각하지 말고 악(惡)도 생각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않아야 보리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본래면목이니, 악한 것을 생각하거나 선한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동한 것입니다. 선도 생각지 말고, 악도 생각지 않아야 그것이 부처 자리입니다. 나의 본래면목입니다.

이 뜻을 알면 <육조단경>의 큰 뜻을 다 아는 것입니다. 이후의 법문은 다 군더더기입니다. 우리는 이 본래면목을 알기 위해 수도도 하는 것이고, 의발을 빼앗으려고도 하는 것입니다. 이 뜻만 안다면 오늘 법문은 여기서 끝내도 좋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본래면목 자리를 찾아봅시다.

정리=여수령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9월 23일 열린 봉선사 강설대법회의 두 번째 시간에는 1000여 사부대중이 동참해 '경전을 통한 깨달음의 길'을 구했다.

강설대법회 동영상
buddhanews.com과
bongsunsa.net에서.
셔틀버스 매주 토요일 낮12시
조계사앞 출발 (왕복 1만원)

질의

삼매에 들면 삼학은 절로 지켜지는 것

[질문1] 어떤 경전이든 경전의 내용을 내포할 수 있는 것으로써 이름을 삼는다고 합니다. <육조단경>이라고 할 때 '단(壇)'은 불단 등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단경'은 어떤 뜻을 담고 있습니까?

[의룡 스님] 혜능 스님은 동산에 야외 법단(法壇)을 차리고 설법을 했지요? 그 설법한 자리를 일컬어 '단'자를 붙여 <단경>이라 했을 것입니다.

[질문2] <화엄경>은 그 속에 원융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을 총망라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화엄경>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계정혜(戒定慧) 삼학(三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계정혜 삼학을 하나로 회통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정원 스님(봉선사 능엄학림 학감)

[의룡 스님] 삼매(三昧)에 들면 계정혜 삼학은 절로 다 지켜지는 것입니다.

[질문2]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육조 스님께서 입적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법문한 내용에 보면 '만일 일체종지를 이루고자 하면 모름지기 일상삼매와 일행삼매에 통달해야 한다(若欲成就種知 須達一相三昧 一行三昧)'고 하셨습니다. 일상삼매와 일행삼매는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의룡 스님] 일상삼매도 그저 삼매입니다. 다르지 않아요.

경전 많이 보아도 망상 가득하면 지혜 멀어져

[질문1] <육조단경> '덕이본' 등에서는 육조 스님의 탄생에서 광명이 비추고, 선인이 와서 예언을 하거나, 발우를 강제로 가져가려 했지만 움직이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돈황석굴에서 발견된 '돈황본'에는 이러한 내용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불자들이 <육조단경>을 공부할 때는 어떤 판본을 봐야 할지 궁금합니다.

[의룡 스님] 제 생각으로는 스님의 생애와 신이함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 판본으로 공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스님을 찬탄하는 내용이 담긴 '덕이본' 등을 읽고 공부한다면 신심(信心)이 더 나지 않을까요.

[질문2] 스님께서는 '논쟁이 될 만한 이야기다'고 전제하신 후 신수 대사의 게송 중 '나무(樹)'를 '병풍'으로 해석하셨습니다.

그동안 보리를 나무에 비유한 것은 나무에 거름을 주고 물을 주면 나무가 자라나 마침내 열매를 딸 수 있다는 뜻에서 쓰인 것이고, 신수 스님은 보리를 나무처럼 기르는 점수(漸修)를 말씀하신 것으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서재영(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교수)

그에 반해서 혜능 스님은 보리란 키우는 것이 아니라 본래 그러한 것이라는 뜻으로 게송을 지으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신수 스님의 '樹'자를 나무라고 해석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병풍이라고 하면 점수라는 뜻을 대변할 수 없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의룡 스님] 제가 나무를 병풍으로 새긴 것은 신수스님의 편에서만 해석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처음 배울 때는 큰스님들이 해석하는 대로 '나무'라고 그 뜻을 새겼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기 전에 다시 <육조단경>을 보다 보니 해석이 달리 됐습니다. 몸은 보리를 장엄하는 병풍에 불과하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병풍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질문3] 스님께서는 신수 스님과 혜능 스님의 시비를 보고 무척 슬퍼하셨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것을 바꾸고 올바름을 드러내는 것, 즉 파사현정(破邪顯正)은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선과 악을 생각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옳고 그름도 생각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룡 스님] <금강경>에 나오는 '아뇩다라삼먁삼보리'의 뜻만 제대로 생각하면 답이 될 것 같습니다. 무상정등각(無上正等覺)을 이루려는 일심(一心)이 견고하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질문4] 이번 법회의 주제가 '경전, 깨달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경전을 어떻게 공부해야 깨달음에 이르는 방편이 될 수 있습니까?

[의룡 스님] 망상(妄想)을 버리는 것이 곧 수행입니다. 경전을 아무리 많이 보았다 하더라도 망상이 가득하면 지혜와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한 줄의 경전을 보아도 청정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정리=여수령 기자

영가천도전문도량 약천사

제 4회 태(胎)중 아기(낙태, 유산) 영가 49재 천도재

약천사 양력 10월 21일(토요일)

태(胎)중 아기 지장보살님을 봉안하고 성심껏 기도하여 아기영가가 편안하고 업장소멸하기를 기원합니다.



불교에서는 낙태를 명백한 살인이라고 규정합니다. 부모의 인연으로 만나 생겨난 아기인데도 별다른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아기를 지워버리는 일이 너무나 흔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명을 가진 태중아기는 부모가 낙태를 생각하는 순간부터 불안과 긴장으로 몸을 움츠리며 살고자 하는 모습을 보인답니다. 낙태한 태중아기 영가를 위해 부모가 진실된 마음으로 참회하고 참회한다면 스스로 지은 악연의 고리도 끊어져 새로운 인연으로 거듭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찾아드는 인연을 거부하고 '나'의 편리를 위해 '나'에게 의탁한 생명을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태중아기는 엄연한 생명이요, 그 생명을 끊은 낙태의 결과는 생각 이상으로 무섭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자신의 결정으로 세상에 나오지 못하고 죽어간 태중아기를 위해 진심을 다한 참회를 하여야 합니다.



태중(낙태,유산)아기 지장보살님

- 일 시 : 2006년 10월 21일 토요일 오전11시 (음, 8월 30일)
- 장 소 : 약천사 법당
- 기도입재(초재) : 양력 10월 21일 (음, 8월 30일)
- 3재 : 양력 11월 4일(음, 9월 14일)
- 기도회향(막재) : 양력 12월 2일 (음, 10월12일)
- 기도 동참비 : 태중아기 지장보살 봉안비 30만원, 49재 (당일 천도재는 별도상담)
  ※ 위패비, 아기옷 : 무료
- 준 비 물 : 사탕, 과자, 분유(우유) 등
  ※ 7재 회향에는 태중아기 지장보살 관욕을 합니다.(배내적삼, 양말, 신발, 장난감 등 준비)
- 입금계좌 : 농협 075-02-390890 | 국민 353-24-0119-724 | 예금주 : 이순수

태중아기 영가 천도 방법

1) 성심을 다해 참회하여야 합니다.
2) 49재를 올려서 천도해 주어야 합니다.
3) 지장경을 독송해 주어야 합니다.
4) 지장보살상을 모시는 것이 좋습니다.
5) 부처님을 조성해 드리면 더욱 좋습니다.
6) 태중아기 영가를 위해 등을 밝힙니다.
7) 대승보살계를 받게 하시면 좋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전화주시면 직접 안내하여 드립니다.
서울 노원구 중계 4동 450번지 삼정빌딩 4층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 011-9002-8523

六祖寺 현응스님 목요강좌 夢山 法語



선원장 玄雄스님

▶ 일시 : 06년10월 19일 (음력 8월28일) 시작,
07년 1월 19일 회향.

* 정원제 이므로 조기에 入房이 마감될 수 있습니다.
강의가 끝난 뒤에는 Tea Time이 있음.

참가 대상은 信心있는 사부대중, 出在家者들은 다 入房할 수 있다.
지방에서 오신 분들은 주무시고 갈 수 있습니다.

- 동참비 : 3개월간 15만원
- 온라인 번호 : 국민은행 016-701-04-017-439
- 육조사. Phone : 02)953-5291

*** 夢山 法語는 ? ***

중국 원나라 때 선승이신 몽산 스님께서 남겨두고 가신 간화선 화두 공부법 지침서이다. 이 法語集에는 화두의심을 어떻게 짓어 가야 하는가 ? 방향을 소상하게 보여주고 있다. 근세 한국禪을 다시 부흥시킨 경허선사께서 선문에는, 귀한 어록이라고 권했던 법어집이다. 그뒤로 이 몽산 법어는 혜암 스님과 전강스님께서도 후학을 위해 소중히 다루어 주셨다.

흔히들 선방에 앉아 있는 분들이 이 부분에 소홀히 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禪 공부는 시작이 잘못되면 다시 고쳐잡기가 여간 어렵습니다. 그 결과 방황과 헛된 아상만 자라나고 지나치면 몸과 마음에 病만 남는 것이 현금의 일이다. (이런 일 때문에 제 3의 수행자들이 간화선을 비방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 몽산 법어는 화두공부 하는 이들이 잘 못 접근 하기쉬운 바른의심을 심도있게 다루고 있다. 선병을 고치는 데는 이만큼한 선문집이 드물다..

*** 선원장 玄雄스님은 ***

20년간 서양인 들에게 간화선을 지도하고 2년 전에 귀국, 서울 돈암동 육조사 에서 정진하고 있다.
2004년초 조계사 선원장 간화선법회를 시작으로 국내 백고좌 법회, 성천 아카데미에서 육조단경,불교 대학원에서 간화선 강의, 불교방송국에서 선수행 상담을 했다. 3년째 한국정신치료학회에서 의사들에게 신심명을 강의 진행하고 있다.

*** 저서로는 선문집 **"묻지 않는 질문"**이 있다. ***

우리 茶 생활화 · 세계화에 앞장

제다 명인을 찾아서 **김동곤** 하동 쌍계제다 대표

본지는 지난 2주에 걸쳐 농림부가 지정한 '전통식품 명인' 신광수 명인(제18호 야생작설차, 순천 명도다원)과 박수근 명인(제16호 수제녹차, 하동 명인다원)을 만났다. 이번 호에서는 올해 2월 명인에 선정된 김동곤 대표(제28호 우전차, 하동 쌍계제다)를 만나 우리 차 문화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다.



제다인으로, 차문화 연구가로 30여 년간 하동 차문화를 지켜온 김동곤 쌍계제다 대표는 " 우리 차문화는 생활차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한다. 사진제공=쌍계제다

쌍계제다 김동곤(58) 대표. 그는 최근 몇 년간 차계에서 '가장 상복(賞福) 많은 사람'으로 꼽힌다.

2001년 국제적인 차 품평대회인 제3회 국제명차품평대회에서 은상을, 이듬해 제4회 대회에서는 금상을 수상했다. 2004년에는 '한국 전통식품 Best5 선발대회' 다류 부문에 선정, '전통식품 품질인증' 획득, 제1회 대한민국 차품평회 10대 명차 선정이라는 경사가 줄을 이었다. 지난해에는 농식품 가공 육성 발전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상을 수상했고 결국 올해 2월에는 명인에 지정됐다.

쌍계사 금송·덕룡 스님에게 제다법 배워
美, 뉴욕에 매장… 中·加도 준비 중
지역 공무원들에 차문화 강의

"명인 지정으로 쌍계사를 중심으로 이어져 온 전통 제다기법이 다시 한 번 인정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김 대표는 10대째 하동 화개골에 살고 있는 '지리산 토박이'다. 고조부에 이어 한의사로 가업을 이었던 그의 선친 故 김용문씨는 한약방을 운영하면서 쌍계사 스님들에게서 제다법을 익혔다. 아버지의 영향으로 어려서부터 차를 만들고 마시는데 관심을 가져온 김 대표는 1975년 쌍계제다를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제다업에 뛰어들었다. 쌍계사 금송 스님과 덕룡 스님에게 차를 배웠고, 불가의 다법(茶法)도 익혔다. 1980년대 초 처음으로 우전차를 상품으로 만들어 내놨고, 지역에 '녹산다인회'를 설립하기도 했다.

현재는 롯데 신세계 현대 등 17곳의 백화점과 미국 뉴욕 '그린티 하우스' 직영점 등의 매장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중국 북경 차 시장인 '마련도'와 캐나다 토론토 등지에도 매장을 열 예정이다.

김 대표는 그간 '제다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차 문화 연구가'로서도 적지 않은 행보를 남겼다. <화개동의 향기> <하동 야생차> 등 차 관련 서적을 7권이나 펴냈고 쌍계제다 홈페이지(www.sktea.com)를 통해 차에 관련된 문헌과 자료, 관련 동영상 강좌 등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8월부터는 지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1년 과정의 차문화 강의를 시작했다. 최근 각 지자체별로 차를 지역 특산물로 키우기 위해 노력하는 현실에서 누구보다 공무원들이 먼저 하동 차의 역사와 문화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뜻에서다.

"차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차와 관련된 논란도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동의 차 시배지비는 훨거돼야 한다'는 식의 지역이기주의는 타파해야 할 것입니다."

'김대렴공의 성씨가 대씨(大氏)'란 주장에 대해서도 그는 <동사강목>에 적힌 '김대렴'이란 구절을 발견하고, 이를 발표해 논란을 매듭짓기도 했다.

"최근 차 학과도 속속 개설되고 차인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곤 하지만, 정작 잎차의 소비량은 예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차를 가르친다는 곳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한복과 다기 사는 일이니, 차를 제대로 알고 차맛을 느끼기는 요원할 밖에요. 이제 우리 차문화도 '생활차' 문화로 거듭나야 합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행다(行茶)문화'가 아니라 '일상다반사(日常茶飯事)'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말이다.

"처음 차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품었던 '세계 최고의 차를 만들겠다'는 목표는 아직도 유효하다"는 김 대표. 7000여 평의 차밭과 선산 3만여 평 이곳저곳에 자라고 있는 야생차를 가꾸고 전통 제다법을 이어가는 그의 모습에서 우리 차가 나아갈 방향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된다. 하동=여수령 기자

대통령 추석 선물, 9道 차 결정

"차 농가 위로·격려 위해"



노무현 대통령의 올해 추석 선물이 '전국 9도(道) 전통 차세트'로 결정됐다.

차는 경기의 백련잎차(서일농원), 강원의 메밀차(오대산식품), 충북의 허브차(상수허브), 충남의 구기자차(청양구기자농협), 전북의 하소백련차(영농법인 하소백련), 전남의 보성녹차(보성녹차 영농법인), 경북의 안동국화차(안동국화차 영농법인), 경남의 하동녹차(하동녹차 발전협의회), 제주의 오가피차(한라산섬오가피 영농법인)로 구성됐다.

청와대는 "추석 선물을 각 지방을 대표하는 차로 결정한 것은 우리 차를 널리 알려 어려움을 안고 있는 생산 농가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 선물세트의 개당 가격은 배송비 포함 6만 5000원.

차 선물세트는 전직 대통령과 전 · 현직 5부요인, 국회의원, 장 · 차관, 종교계 · 시민단체 등 주요 인사를 비롯해 소년소녀가장, 집중호우 사상자, 정신대 할머니, 서해교전 사상자 등 5000여 명에게 보내졌다.

한편 청와대는 소년소녀가장과 수재민들에게는 실생활에 필요한 물건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쌀 등의 생활필수품도 추가로 선물했다.

여수령 기자

瑞榮普洱
진년보이 · 진년오룡 · 철관음 · 오룡차
대홍포 · 화차 · 인삼오룡 外 40여가지의 茶
보이차 전문점
■ 조계사 건너편 TEL 02)722-0855
H.P 017-411-0882

인류 문화속의 茶

11. 신비의 음료

⑩ 카페인의 나라

맨해튼에 사는 어떤 교포가 딸과 함께 20년 만에 한국을 방문했다. 그녀는 한국의 문화, 특히 차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싶어했다. 그녀에 따르면 언제부터인가 미국의 상류층과 경제적 여유가 있는 한인들 사이에서 차를 마시는 풍토가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무엇보다도 그녀는 자녀에게 바른 생각과 온화한 품성을 가르치고 싶어, 집에서도 가족들과 함께 차를 마신다는 것이다.

18세기 초까지 차와 커피는 신대륙에서 인기 있는 음료였다. 영국의 동인도 회사가 차에 특별세를 부과하면서 식민지 사람들에게 강한 저항을 일으켰고, 영국산 제품은 무조건 배척하는 등 세금 납부를 거절하는 일도 있었다. 차는 네덜란드를 통해 밀수되었고 밀수된 차의 가격은 저렴해 인기가 있었다.

차조례로 동인도회사에 무역·소매 독점권 부여
신대륙은 독립과 함께 커피를 대중 음료로 정착



배에 실려 있던 차를 보스턴 항구에 던지는 광경

이것은 영국의 창고에 차가 가득 쌓이는 결과를 초래했고, 영국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1773년 '차조례(Tea Act)'를 만들어 시행, 차 무역과 소매에 대한 독점권을 동인도 회사에 부여한다. 영국의 이러한 조치는 밀수업자와 상인들에게 위기감을 주었고 신문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들이 알려지자 식민지 사람들은 동요하기 시작했다.

차를 실은 배가 보스턴 항에 도착했을 때 인디언 복장을 한 차 밀무역 업자와 상인들이 배에 올라 불과 3시간 동안 342상자의 차를 바다에 던졌으며, 이 같은 일이 다른 항구에서도 일어난다. 보스턴 항구는 폐쇄되었고 이후 3년 동안 영국과 신대륙 간에는 작은 전투가 일어나 독립전쟁의 불씨가 된다. 1775년 시작된 8년간의 전쟁 끝에 신대륙은 영국에서 독립된다.

그 후 미국은 더 이상 차나 비단을 얻기 위해 영국에게 세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어졌다. 중국과 직접 배를 통해 무역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 차는 '비애국적 음료'로 인식되었으며, 커피는 대중 음료로 정착되었다.

이처럼 신대륙에서 차가 문화로 자리 잡기에는 악조건이었다. 개척자들과 함께 도착한 커피는 그들에게 활기를 주었고 보스턴과 뉴욕에 많은 커피하우스가 생기기 시작했다. 뉴욕의 '머천트 커피점'은 뉴욕은행 설립 발기 장소와 증권 거래의 장소가 되었고 사업가들이 원활한 사업을 위해 '톤틴 커피점'을 개업하는 등 미국인들은 커피를 마시며 부(富)를 생각했다.

이렇게 카페인에 익숙해진 미국은 커피를 연구하여 군대에 이용하게 된다. 먹기 간편하고 장기간 보관 가능한 응축된 고체인 '씹는 커피'를 만들어 군인들에게 보급한것이다. 이 '씹는 커피'는 남북 전쟁이 끝난 뒤에 사라지지만, 계속된 연구로 가루 커피인 인스턴트커피를 생산하게 된다. 2차 세계대전까지 125개 공장과 22곳 가정집에서 인스턴트커피를 생산했다.

이 맛에 익숙해진 군인들은 집에 돌아간 후에도 계속 인스턴트커피를 선호하였고, 인스턴트커피 시장은 미국 커피 시장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이들은 커피의 풍미보다는 간편하게 카페인을 섭취하는 것을 더욱 좋아했고 카페인에 취해있었다.

이러한 이들에게 음식의 지나친 가공에 대한 반작용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커피 역시 새로운 문화사를 열게 된다. 캘리포니아 버클리에서 갓 볶은 커피를 파는 '피츠 타앤 커피' 커피 전문점이 문을 열어 대성공을 한다. 이어서 보스턴의 '커피 커넥션', 플로리다의 '바니즈', 시애틀의 '스타벅스' 같은 커피점이 개업해 미국의 커피산업을 성장시켰다. 특히 세계 40여 개국에 진출한 미국의 다국적 기업 '스타벅스'는 커피의 새로운 신화를 탄생시켰다.

■ 이창숙(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 연구원)

청운 스님 진품 달마도

귀의 삼보 하옵고
청운 스님께서 직접그리신 달마도는 오랜 정진을 통한 선(禪)기가 녹아 있습니다.
달마도는 인간의 근본 마음을 밝혀줌으로써 삶의 모든 어두운 불행의 기운을 사라지게 만들어 밝고 행복한 삶으로 바뀌줍니다.
청운스님의 영적 힘을 가진 진품 달마도를 소장하시고 소원성취도 이루십시오.
나무관세음보살

※ 달마도(그림)만 구매 가능 합니다. 각 호수를 불러주세요. 10점이상 구매시 사찰명을 새겨 드립니다.

앞면 / 뒷면


달마 관음 지장 소원성취 건강부 사고방지

◀ 달마카드
소재 : pp금장 달마도 부적카드
규격 : 50mm × 75mm
※ 50장이상 주문시 사찰이름을 새겨드립니다.


달마 3호-그림: 30×40cm
달마 4호-그림: 40×50cm
달마 6호-그림: 35×45cm 액자: 47×64cm
달마 8호-그림: 35×68cm 액자: 47×88cm
달마 10호-그림: 45×75cm 액자: 58×94cm

• 구입문의 : 불교용품 전문기획 달마 SHOP 051)851-5535
입금계좌 : 농협 949-02-315451(정정애)



좋은 책, 향기로운 삶 茶道 월간 다도 과월호를 판매합니다
문의전화 | 02)722-7777
과월호의 권당 가격은 5,000원

흔히 '절에서 먹는 음식' 정도로만 알고 있는 사찰음식.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사찰음식이 '대안음식'으로 뜨고 있다. 하지만 '수행식'이자 자연과 사람을 살리는 사찰음식의 참뜻을 새겨볼 기회는 그리 흔치 않다.

사찰음식을 연구하고 이를 대중화하기 위해 발족한 '전통사찰음식문화보존회(회장 선재)'는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한(韓) 브랜드 박람회'에 참가해 50여종의 사찰음식을 선보이는 '사찰음식 야단법석'을 펼쳤다. '산사의 하루'를 주제로 열린 이번 전시를 통해 아침 · 점심 · 저녁에 먹는 사찰음식으로는 어떤 것이 좋은지 살펴보자.





사찰음식 대중화 바람 '솔솔'

韓 브랜드 박람회 참가, 50여종 선보여…자연 살리고 건강 챙기고

▷ 아침-부드러운 죽으로 뇌를 깨운다

아침은 생체리듬으로 볼 때 뇌가 활동하는 시간으로, 식사는 죽(粥)을 중심으로 가볍게 구성된다. 죽식은 과식을 막고 소식(小食)을 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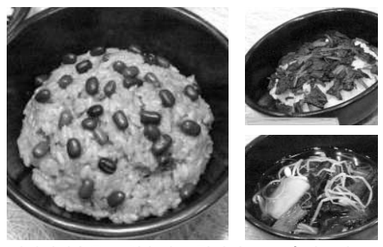
<마하승기율>에서는 죽을 먹으면 ▲안색이 좋아진다 ▲힘이 넘친다 ▲수명이 연장된다 ▲안락함이 있다 ▲말소리가 시원해진다 ▲음식물의 소화를 좋게 한다 ▲감기에 걸리지 않는다 ▲공복감을 없애준다 ▲갈증을 풀어준다 ▲대소변을 조절한다고 열 가지 이로움을 설명한다.



아침식사로 좋은 버섯야채죽과 연근죽, 흑임자죽(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 점심-딱딱한 음식으로 위장운동 활기차게

낮은 활동량이 많고 위장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간으로, 딱딱한 음식 먹기를 권한다. 부처님은 수행승이 먹는 음식을 네 가지로 나누었는데, 그 첫 번째가 시약(時藥)이다. 시약은 뿌리와 곡식 등 딱딱한 음식의 총칭으로 오전 중에 먹는 음식물이고, 스님들의 정찬으로서 주식이 된다. 곡식 · 뿌리 · 줄기 · 과일 등 이로 씹어서 먹는 딱딱한 고체음식을 '거타니식'이라고 하고, 밥 · 떡 · 밥 말린 것과 같이 부드럽고 연한 음식을 '포사니식'이라고 부른다.



점심식사용으로 어울리는 팥밥과 곤드레 나물밥, 능이 버섯국.

▷ 저녁-과일즙과 국수로 가볍게

저녁(오후)에는 신장, 간, 심장이 활동하는 시간으로 과일즙과 같이 소화되기 쉬운 음식을 먹는다. 과일즙은 그 안의 섬유질이 아침에 먹는 죽과 낮에 먹는 딱딱한 음식의 배설을 돕는다. 과일즙 외에도 국수 등 간단한 음식을 먹기도 한다. 그러나 부처님은 밤 10시 이후, 잠자기 2시간 전에는 음식 먹는 것을 특히 경계했다. 이는 저녁 늦게 먹는 음식이 신장이나 간을 상하게 하기 때문이다. <사미율>에서는 '귀신은 밤에 먹는다'고 하여 밤늦게 먹는 음식을 '독(毒)'과 같이 여겼다.



저녁에는 가죽순 떡국과 표고버섯 냉면, 감자옹심이가 어떨까?

글=여수령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interview

전통사찰음식문화보존회장 선재 스님



"부처님의 지혜가 담긴 사찰음식은 현대인들을 건강하고 행복한 삶으로 이끌 대안입니다."

9월 28일 '한 브랜드 박람회'에 참가한 전통사찰음식문화보존회장 선재 스님(사진)은 "우리 전통문화를 대표하는 '한(韓) 브랜드'의 하나로 사찰음식이 선정된 것이 자랑스럽다"며 자부심을 나타냈다. 전통사찰음식문화 보존회는 그간 개별적으로 진행돼 오던 사찰음식 연구 역량을 결집하고, 승 · 재가 교육과 상품화 추진 등 사찰음식 대중화에 앞

교육 · 상품화 추진이 과제

장서기 위해 결성된 단체.

선재 스님은 "최근 선방이나 강원에서 공양주 소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의 전문성 부족으로 전통 사찰음식 문화가 많이 변형되고 있다"고 지적한 후 "보존회에서는 사찰음식 전문가를 양성하는 한편, 사찰음식 표준화 작업에도 나설 계획이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사찰음식에 대한 조리법 표준을 정립하고, 이를 사찰음식 교육 교재로도 발간한다는 것이다.

10월 중순 경 창립 법회를 열고 정식 발족할 전통사찰음식문화보존회는 해외 전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우리 사찰음식 대중화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사찰음식은 종교라는 울타리를 넘어 전 세계에 보급되어야 할 이 시대의 건강식입니다. 대중화와 함께 사찰음식에 담긴 생명존중 의식과 수행식으로서의 정체성도 훼손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여수령 기자

5000원으로 만드는 **사찰음식** <36>

인삼소스 두부조림과 표고버섯찜





제 고향은 충남 대천이라는 작은 바닷가입니다. 지금은 대천이 유명한 대단위 관광지가 되어버렸지만, 그 옛날 대천은 늘 군인들이 바닷가를 철통 같은 경계를 서던 작은 해안가에 불과했습니다.

어린시절, 학생법회를 볼 때마다 우리 절에서는 군인들이 같이 법회를 보곤 했습니다. 부처님오신날이 되면 함께 연등도 만들고, 절의 사사로운 일들도 다 해결해주곤 했습니다. 또 학생법회 아이들에게 공부도 가르쳐주고 함께 신나게 놀기도 했습니다.

요즘 저는 그 시절의 추억이 자주 떠오르곤 합니다. '사찰음식을 사랑한 사람들'이란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제가 어떤 인연으로 '군사랑 정심사'와 친목 도모 연결카페를 맺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카페는 대구 경북지역 군인들이 모여 일주일에 한 번 법회도 보고, 레크리에이션도 하면서 즐겁게 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입니다.

지난 시간 정심사 군인들과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제 바쁜 일과 때문에 약속을 못 지키게 되어 떡을 조금 해서 간식 공양으로 보냈습니다. 꼭 하루 시간 내어서 우리 군인들 힘내라고 직접 찾아가 음식을 만들어 주고 싶은데 바쁘다는 핑계로 시간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군인들을 생각하며 힘내자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군인들이 힘들게 군 생활을 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열심히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봅시다!

■만드는 법



<인삼소스 두부조림> 재료: 두부 반 모, 소금 약간, 양송이버섯 3개, 무순 약간, 식용유 약간, 소스(인삼 1뿌리, 간장 1큰술, 양파 1/4개, 흑설탕 1작은술, 배 1/4쪽, 미림 1작은 술, 소금 약간, 국간장 1작은술, 전분물 1큰술)

① 두부는 0.5cm 두께로 잘라 소금을 뿌린다. ② 양송이버섯은 껍질을 벗긴 다음 6등분하고 무순은 물기를 뺀다. ③ 믹서에 손질한 인삼과 분량의 재료를 넣고 곱게 갈아 인삼소스를 만든다. ④ 두부는 물기를 없앤 후 식용유를 두른 팬에 노릇하게 지진다. ⑤ 두부는 키친타올에 올려 기름기를 완전히 빼 주고 식힌다. ⑥ 인삼소스를 넣어 윤기 나게 졸인다. 이때 양송이버섯도 함께 넣어 볶는다. ⑦ 접시에 두부조림을 올리고 양송이가 들어간 소스를 뿌린 뒤 무순을 올려 완성한다.



<표고버섯찜> 재료: 표고버섯 8장, 두부 1/4모, 당근 1/5쪽 , 전분가루 1작은술, 죽염 약간, 유장(참기름 약간, 간장 1/2 작은술) 소스(간장 1큰술, 생강즙 1작은술, 흑설탕 1작은술, 전분물 약간)

① 표고버섯은 기둥을 떼고 뜨거운 물에 데쳐 물기를 꼭 짠 다음 유장 처리한다. ② 두부는 물기를 꼭 짠 다음 으깨 죽염으로 간을 한다. ③ 당근은 아주 곱게 다져준다. ④ 두부와 당근 그리고 전분가루를 조금 넣어 함께 반죽해 소를 만든다. ⑤ 표고버섯 안쪽에 전분가루를 묻혀준 다음 소를 채워 넣는다. ⑥ 분량의 재료로 소스를 만든다. ⑦ 김이 오른 찜 솥에 3~4분간 쪄준 후 소스를 발라 완성한다.

▶다음 주에는 우엉 꿀조림과 우엉 인삼차를 만들어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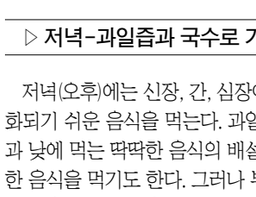
■박상혜(사찰음식연구가)

간(肝)이 간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 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 055) 963-9583 · 상담문의 : 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사찰, 법당, 앰프 전문

지난 30년간 사찰의 앰프, 마이크, 스피커 소리를 연구해온 音響硏究家 金文華가 직접 설치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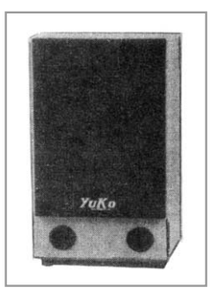
DX-707 스텐드 마이크 하나만으로도 법당의 소리가 3배 좋아집니다!



염불, 설법 전용 고성능 마이크

DX-707스텐드 마이크

마이크 가격 : 250,000원



◇ 소리공양 종목 ◇

▷ 사찰 법당 앰프설치
▷ 고성능 무선마이크
▷ 각종 마이크 판매
▷ 법당전용 스피커

비구니스님 특별우대!

법당전용스피커 YM-520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1-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02)2697-9976, 2605-3235, 2601-8284

홈페이지 : www.yukosound.com



성함 도량

퇴마란?

현 시대는 남을 믿지 못하고 아무리 바삐 뛰어도 만족을 못하는 이기주의 현상으로 말법시대입니다. 자업 자득 법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지은복이 소멸하면 고통이 따릅니다. 이 때 들어나는 것은 전생업마, 현생죄마, 죽은사람마, 동물마, 미생물마, 기타 등등이 마음의 장애가 끼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법력이 있는자가 불보살님 힘을 얻어 마를 물리치는 것을 퇴마라합니다.

영가	빙의현상(이유)
조상영가	집착, 미련 그리움, 애착 때문에
낙태	무서워 갈곳이 없어요
타영가	여기저기 다니며 놀고 싶어 왔어요
미물영가	너무 고통스러워 왔어요

야후 검색창에서 해원사 치세요

연락처 031)736-3734 031)732-3790

기적의 치약 스님과 불자님!

지긋지긋한 치아

美國브라이트로 7일만 닦으시면 고생 끝!



스님? 7일만 닦으시면 고생 않하십니다.

스님?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럽고 참기 어려운것이 이가 아픈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지만 스님만은 믿으세요. 저는 대전에사는 보살입니다. 대전에 있는 사찰을 방문 하였을때 스님과 함께 공양을 하게 됐는데 1년전부터 치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다가 양쪽 어금니를 뽑고나니 다른이도 흔들리며 찬물도 못먹고 하루하루 진통제에 의존해 왔고 병원에 자주 가야만 했습니다. 스님과 공양중에 이가 아파 잘 먹지 못하는것을 본 스님께서 미국구강학회에서 추천한 브라이트치약을 주시면서 아침저녁 7일만 닦으면 이가 좋아진다고 해서 마음속으로 병원을 다녀도 효과가 없는데 치약가지고 될까 의심하면서 스님께서 주신거라 아침저녁 사용하면서 4일째 되는날부터 진통제를 먹지 않아도 돼고 찬물을 먹어도 이가 시렵지 않는 놀라운 효과를 보았습니다. 일반치약처럼 7일정도 사용하면 입냄세는 물론, 10일정도 사용하면 풍치, 잇몸무력, 잇몸농증, 찬음식과 뜨거운 음식을 드실때 통증이 깨끗이 없어지며 누런이가 하얀이로 美白도 됩니다.

※ 五福중의 으뜸가는 치아를 보존하는데 기적의 약초 치약으로 충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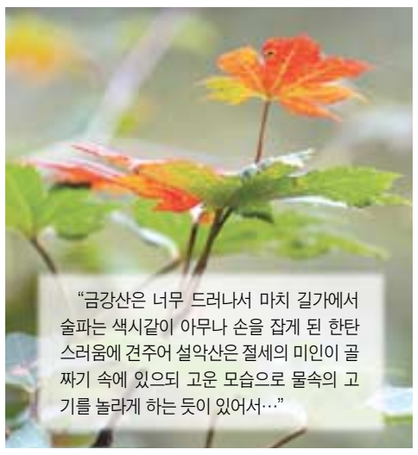
가격은 50,000원입니다.

수입판매원 금강닥터사

TEL : (02)2271-1441 농협:360-12-046446 최능우



단풍철 앞둔 설악산 천불동




천불동

千佛의 사자후 단풍으로 물들겠네

연봉은 마치 천분의 부처님 같고, 비선대 계곡물은 모든 근심 걱정 버리라 하네
험준한 길 올라 금강굴에 닿으니 발 아래 펼쳐진 광경이 극락정토에 온 듯…

육당 최남선은 <설악기행>에서 설악산의 웅장하고 수려함을 이렇게 표현했다. 갖가지 기암괴석이 가을 단풍과 어우러져 아름다움을 연출하고 있는 모습을 노래했다. 하지만 최남선이 노래한 '절세의 미인'은 다름아닌 부처님이다. 천불동(千佛洞) 계곡에 가보면 그 해답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천불동은 계곡 좌우로 칼날같이 솟은 연봉과 기이한 형상의 바위들이 마치 천개의 불상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깎아지르는 절벽과 폭포로 이어지는 깊은 계곡에 사람의 발길이 닿은 것은 불과 반세기 전이다. 1955년 서울문리대 산악회가 첫발을 디딘 뒤부터 그 진면목이 세상에 알려졌다. 안전시설이 설치된 1969년까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위험한 곳에 철 계단과 사다리가 설치되어 있다.

하늘을 떠받드는 듯한 봉우리, 골짜기마다 걸린 수많은 폭포, 거울보다 맑은 연못에 가을 단풍이 어울어지면 천불동은 말 그대로 한편의 명화다. 단풍이 화려한 10월이면 천불동은 부처가 아닌 중생으로 가득해 인산인해를 이룬다.

일반적으로 천불동 계곡은 비선대(飛仙臺)에서 대청봉(大靑峰)으로 오르는 7㎞ 코스의 중간 계곡을 말한다. 최근에는 설악동을 거쳐 비선대 쪽과 울산바위가 갈라지는 통일 대불에서부터를 시작이라는 말하는 사람도 많다. 금강교를 지나 우측으로 흐리는 계곡물의 노래 소리를 들으며 산행을 시작하면 헛개나무, 물푸레나무, 복자기, 당단풍 나무 등이 인사를 한다. 마치 여기서부터는 부처님 도량이니 마음을 정갈하게 하고 온갖 걱정 근심을 버리라고 하는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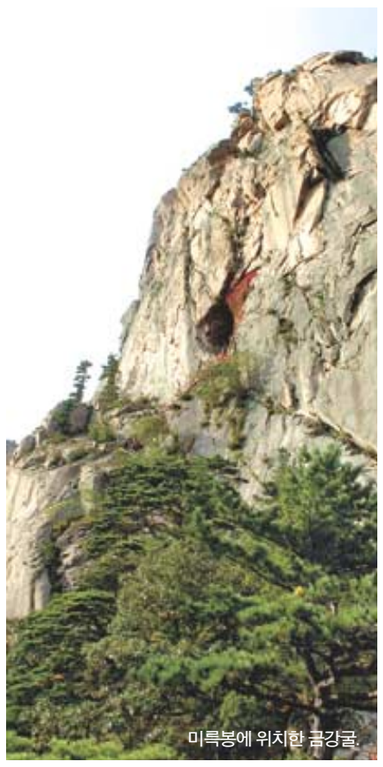
계곡을 따라 조금 걸었다 싶으면 바로 와선대(臥仙臺)에 당도한다. 하지만 와선대를 알리는 표지판없이 휴게소가 자리를 지켜 그냥 지나치는 사람도 많다.

설화에 의하면 마고 선인(仙人)이 이곳에서 바둑과 거문고를 타며 산수의 경치를 누워서 감상해 와선대라고 불렀다고 한다. 마고 선인은 와선대에서 300미터 올라가 비선대에서 하늘로 동천했다고 전해진다.

비선대는 비천상을 연상하게 만든다. 비천은 불국(佛國)을 날며, 악기를 연주하고 춤을 추며 꽃을 뿌려 부처님을 공양 찬탄하는 천인(天人). 비선대에 서면 성덕대왕 신종 등에 장식되어 우리에게도 익숙한 비천상의 모습이 눈앞에 펼쳐지는 듯하다.

비선대에서 좌우로 보면 두개의 봉우리가 있다. 왼쪽은 미륵봉, 오른쪽은 선녀봉이다. 미륵봉은 장군봉이라고도 불리우는데 미륵 부처님을 닮았다고 해서 이름 붙여졌다고 한다. 특히 미륵봉 중턱에는 원효 스님이 금강경을 가지고 수행했다는 동굴 암자 금강굴이 위치해 있다. 험준한 산길과 높디높은 계단을 올라가 금강굴에 당도하면 정면으로 천불동 계곡이 한눈에 들어온다. 마치 부처님이 깨달음의 세계에서 중생의 세계를 내려다 보는 듯 하다.

비선대에서 천불동계곡을 따라 올라가면 약 1Km지점에 맑은 옥수가 고인 곳이 있다. 매우 깨끗하고 아담한 담이다. 옛날 문수봉이 형성될 때 문수보살이 이곳


미륵봉에 위치한 금강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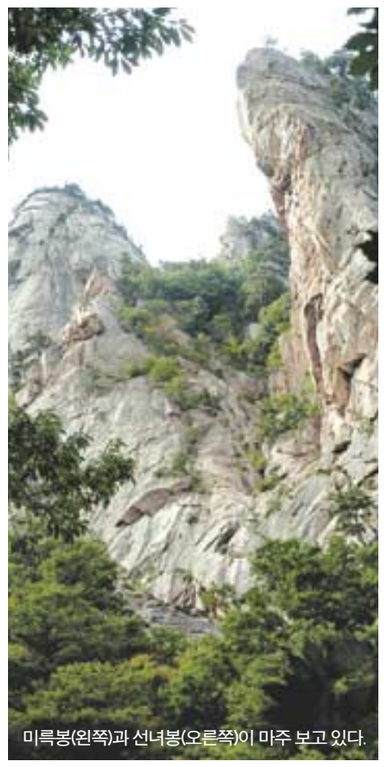
맑은 물에 목욕을 했다고 해서 문수담이라고 부른다. 주불인 석가모니는 어디 계실까 하는 우문(愚問)을 하며 고개를 들어보면 저 멀리 석가봉이 보이는 듯하다. 천불동 계곡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대청봉 옆으로 석가봉과, 문수봉, 보현봉이 좌우 보처로 설악산을 지키고 있어 마치 수미산에 온 듯한 착각마저 든다.

문수담을 지나면 이호담(二湖潭) · 귀면암(鬼面岩) · 오련폭포(五連瀑布) · 양폭(陽瀑) · 천당폭포(天堂瀑布) 등 유수한 경관들이 계곡을 따라 이어진다. 특히 다섯개의 폭포가 연이어져 있다는 오련폭포 일대의 경치는 천불동계곡 전체에서도 가장 빼어나다.

여름철 비가 많이 오면 엄청난 수량으로 쏟아져 내리는 급류가 장관이고 가을철에는 단풍이 폭포와 기암 괴석과 아름다운 풍관을 연출한다.

천불동계곡의 아름다움은 단풍을 빼놓고서는 이야기 할 수 없다. 9월 하순 대청봉(1,708m)에서 물들기 시작하는 단풍은 하루 40m씩 아래로 내려와 10월 중순이면 천불동 계곡을 새빨갛게 물들인다. 화이부동(和而不同)이라고 했던가. 서로 어울리지만 똑같지 않은 천불이 오색 단풍과 함께 화려하게 수놓는 것같이 천불동 계곡의 가을은 마치 서방 극락 정토인 불국토와 같다. **설악산/글=김두식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찾아가는 길 : 영동고속도로 현남 IC – 7번국도 – 낙산사 – 설악동 – 신흥사


미륵봉(왼쪽)과 선녀봉(오른쪽)이 마주 보고 있다.

종범 큰스님의 육성녹음 설법 테이프!

불교 설법집

인생의 진정한 의미에 대한 갈증과 무상한 삶의 가치를 되짚고 싶어질 때



불교를 알기 쉽게

테이프 12개
(불교를 알기 쉽게 도서포함)
값 78,000원

한국 불교계의 부루나로 널리 알려진 종범스님의 불교 입문서.
원시불교의 기초교리에서부터 선불교, 대승경전에 이르기까지 불타의 기본교의와 수행은 물론 불교의 개요와 역사, 석가모니의 생애 및 교단의 설립, 보살행, 육법공양, 불교의례, 반야심경을 비롯한 경전 해설 등을 총망라하여 집대성한 종범스님의 설법집으로 불교의 모든 것을 알기 쉽게 풀어 놓았다.

현대고승법어(現代高僧法語) 총서



불교의 역사와 전통은 전 세계인들의 정신적 · 사상적 · 문화적 사회적 삶에 크나큰 영향을 끼쳐왔다.
알기 쉬운 법어(法語)와 정신적 · 사상적 가치 정립을 위한 불교의 길라잡이로서의 역할을 위해 현대고승법어집 총서를 발간하고 새롭게 단장하게 되었다. 삭막해져 가는 현대사회와, 물질문명이 사회의 최고선(最高善)으로 여겨지는 지금, 삶에 대한 진지한 고찰과 반성을 통해 좀 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 전국 대형서점 및 불교서점에 있습니다.

1. 경봉(鏡峰) 큰스님 값 : 14,000원
문빗장을 만져 보거라
2. 경산(京山) 큰스님 값 : 14,000원
넉넉한 마음으로
3. 청담(靑潭) 큰스님 값 : 9,000원
마음에서 마음으로
4. 구산(九山) 큰스님 값 : 12,000원
머물며 흘러가며
5. 혜암(慧庵) 큰스님 값 : 12,000원
길을 묻는 그대에게
6. 해안(海眼) 큰스님 값 : 12,000원
마음이 곧 부처
7. 청화(靑華) 큰스님 값 : 12,000원
순간에서 영원으로
8. 관응(觀應) 큰스님 값 : 9,000원
화엄의 바다
9. 묵담(默潭) 큰스님 값 : 10,000원
모든 것은 흘러간다

1 5 7 10월 출간 예정

www.milalbook.com
서울시 강남구 포이동 168-1 성지빌딩 3층 Tel : 02) 529 0140~5 Fax : 02) 579 2312
도서출판 밀알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030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대행스님

제 598 호 현대불교
서기 2006년 10월 11일(음력 8월 20일) 수요일
법공양 페이지 29

다 놔라! 다 놓게 되면 그냥 훌렁 벗어진다!

고를 해결하는 마음자세

문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찾고 믿음을 구할 때 우선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만 그 인연의 줄을 잡고 공부도 하게 되고 지속적으로 인연을 맺어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불법에서는 좋고 나쁨을 놓아야 한다고 하지만 자력이다 타력이다를 떠나서 고를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을 어찌 잘못됐다고만 할 수 있겠습니까?

답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면 더 디 가는 것이고 그것은 기필코 빠르게 가는 길이 못됩니다. 내 주인공은 내 보디가드처럼 항상 지니고 다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어느 때나, 즉 말하자면 아프거나 그래서 관하면 의사로 찰나에 바뀌어지고 또 어떠한 일이 생겼다 하면 관세음이 되고, 좋은 데로 간다 하면 지장이 돼 주고, 칠성 부처가 돼 주고 지신이 돼 주고, 용신이 돼 주고 허공신이 돼 주고 별거 별거가 다 돼 줍니다. 그렇게 찰나찰나 바뀌는데 뭐가 답답해서 그렇게 바깥에 가서 물어야 합니까. 그렇게 물으러 다닐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바쁜데. 지금 바빠 죽겠어서 말을 하는데 얼른 자기한테 하는 게 다 빠르지 나가서 하는 게 빠릅니까?

말하자면, 자기한테는 곧바로 그냥 통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바깥에 나가서 하는 것은, 그렇게 듣느냐 안 듣느냐도 문제지만 올바로 나가는 게 못되고 또 빠른 길이 못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나와 나가, 나와 나가 항상 그렇게 빠르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나와 나가 더 빠르지 누가 더 빠릅니까? 여북하면 "정히 답답하면 '야, 아무개야!' 하고 자기 이름을 자기가 세 번 부르고 '너만이 할 수 있잖아!' 하고 아귀를 지어라." 하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러지 않아도, 말소리를 내지 않고도 얼마든지, 길에 가다가도 하고 앉았다가도 하고 섰다가도 하고, 누구하고 같이 있다가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무슨 급한 일이 있을 때 그렇게 해서 통신을 하게 되면 그냥 재깍, 재빨리 통신이 된단 얘깁니다.

그렇게 빠른 것을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이게 부처님의 직속, 즉 말하자면 통신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가 아니라면 제삼자가 자기를 대신 살아줄 리 없고요. 그러니깐 여러분 개개인이 자기 아닌 자기를 꼭 믿어야 합니다. 믿고 그렇게 통신을 해야 합니다.

깨어나게 해 주세요!

문 곧 추석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게 '올 한 해도 이렇게 침체된 상태로 지나가는구나. 나는 왜 발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침체되어야만 하는가. 내가 하는 이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드니 너무 마음이 공허해집니다. 스님, 어떻게 하면 초발심을 다시 일으킬 수 있을는지 좀 깨어나게 해 주세요.

답 그것도 마음입니다, 그것도. 마음은 광대무변해서 마음을 너희들 마음대로 자유스럽게 쓰고 살아라 하고 이렇게 자유스럽게 내놨다고요. 아, 그런데 왜 마음을 자유스럽게 쓰지 못하고 그렇게 침체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또는 답답하게 생각하고, 얼른 공부가 안돼서 답답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나요, 예?

과정 없는 현실이 없듯이,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나온 자리를 알아야 하고, 나온 자리를 알아야 가는 자리를 알고, 가는 자리를 알아야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자리를 알아요. 그러니 열심히 선원에 다니면서 같이 공부해 가는 도반들과 토론도 해 가면서, 스님들께 질문도 해 가면서 자꾸자꾸 물어서 따라가 봐요. 먼저 공부를 시작했고 얼마나 오랫동안 공부를 했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걸, 아는 것은 아는 것대로 놓고 모르는 건 모르는 것대로 놓고, 놓고 지켜보고 실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바로 그대로 참선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관해 보고, 인간 세상에서 말하고, 가고 오면서 지켜보고, 그런 게 모두 참선이라는 뜻이에요. 이 마음자리에서만이 일체 만법이 나고 들고 나고 들고 하는 거니까요. 그것을 지켜보고 관찰하면서, 실험하면서 체험을 안 한다면 그건 참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내 몸으로나 가정으로나, 모든 것을 습득을 해서 모든 관습을 놓고 실험을 하는 겁니다, 하나하나. 알고 보면 상당히 쉬운 일인데도 자기를 자기가 못 믿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못 믿고 뭘 그렇게 알아야 하고 따져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잘 배웠고 잘났고, 똑똑하고 못났고, 못하고 못 배웠고 이런 거를 몽땅 다 놓는 겁니다. 놓는 거라고 하니까 놓는 거에 또 걸리지 마십시오. 내 육체를 나라고 하거나, 내가 했다고 하거나, 내가 가졌다고 하거나, 모든 걸 나라고 일으켜 세운다면, 모두 둘로 보이기 때문에, 상대로 보이기 때문에 잘했다 못했다가 연발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업이 녹질 않아요. 과거에 입력된 것이 살살 나오는 위에다 또 자꾸 업을 지어서 미래에 나오게끔 입력하는 겁니다. 지금 입력하는 것은 미래에 가지고 나올 것을 미리 저장을 하는 거죠. 저장 아닌 저장이죠. 여러분이 그 업을 안 지으려고 아무리 애써도 이건 자동적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분이 각자 자신을 진짜로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육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신은 육을 끌고 다닌다는 뜻입니다. 그래, 내 신을 두고 남의 신을 찾고 믿어야 하겠습니까? 자신(自神)을 두고! 자신은 정신계에 속하고 육은 현실계에 속하는 겁니다. 항상 육은 끌려다닙니다, 마음의 주인한테. 그러니 잘못 돌아가는 거는 거기다 되놓고 잘 돌아가게 해서 서로가, 누가 더 높고 얕음이 없이 상통하면서 같이 작용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본래는 같이 작용을 하는데, 지금 유심(有心)에서는 도저히 정신계와 물질계가 한데 작용을 하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걸 새삼스럽게 말하는 건 아니지만 현재 그렇게 가고 있으니 그걸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뭣고? 이렇게 되는 거지, 저렇게 되는 거지! 이게 틀리지, 이게 옳지!' 이런다면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믿고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이끌어 갑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따져야 하는 마음이 생기십니까? 자기한테 자기가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따져 봤자죠. '이렇게 해야 맞지, 저렇게 해야 맞지!' 하고 자꾸 잔소리가 심하고 이론이 많아지고 그런다면 전자와 전자가 어떻게 마주 붙어서 불이 들어옵니까? 자기한테 자기가 따지려고 드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심사숙고해서 여러분은 진짜로, 못났든 잘났든 자기를 믿고, 자기 주먹만을 믿고 주먹에서 나오는 거 주먹에다가 도로 놓는 마음! 그런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을 다 지닌 한자리, 그것이 그 주먹 아닙니까?

아리송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대로 그렇게 해 보세요. 자기 차원은 자기가 알게 돼 있습니다. 누가 알려 주는 게 아닙니다. 자기 차원은 자기가 자꾸자꾸 알아집니다. 그러니 그저 보고 듣고 생활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도 똥을 누다가도 밥을 먹다가도 생각나면 생각나는 대로 한 찰나에 그냥 거기 놓으세요! '너만이 할 수 있잖아!' 하고 말입니다. 그러니 침체돼 있든 침체돼 있지 않든 그것도 다 자기 마음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을 한번 잘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무명의 근원지?

문 무명의 근원지가 어딘지요. 우리가 다 본래 부처라면 무명이 과연 어떻게 해서 생겨나는 건지요? 아무리 머리를 싸매고 생각을 해봐도 저의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답 한마디로 말한다면, 봇장이 올려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하니깐 그런 질문이 나옵니다마는, 지수화풍이라는 말을 부처님께서 왜 자꾸 하셨고 우리도 왜 자꾸 하느냐면, 이게 지금 전체가 지수화풍 아닌 게 없습니다. 근데 그 지수화풍이, 즉 말하자면 바람과 흙과 물이 한데 합쳐서 혼합이 되니까 온기가 생겼어요, 그 불이. 온기가 생겨서 그것이 바로 생명의 근원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생명의 근원지는, 딴 데 가서 찾지 않고 그 근원지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몸으로 낳게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몸속에 우리가 역대를 거쳐서 진화돼서 올라온 그 자체의 근원지를 보라고요. 바로 인연에 따라서, 그 근원지에 미생물에서부터 모든 모습들이 갖가지로 그 몸속에 다 들어 있어요. 그리고 나올 때 물주머니로 나오게 만들었죠. 어떻습니까? 이 몸이 지수화풍의 근원지라고요.

우리는 지수화풍의 근원지를 가졌기 때문에 지수화풍을 먹고 살아요, 또. 지수화풍이 아니라면 이 세계가 발달할 수도 없고 세계가 연구할 수도 없거니와 바로 우리가 지금 과학이라는 그 소리가 안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끝간 데 없는 진리가 될 수도 없거니와 이 불교가 풀 한 포기만 살아도 불교가 그대로 있다는 그 사실을 아마 모를 겁니다.

그렇게 해서 형성된 여러분 몸뚱이 속에 의식들이, 생명들이, 모습들이 천차만별로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생명들은 전자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차원대로 그 부모를 정하게 돼 있거든요.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차원이 정해집니다. 그것이 금 차원이라면 바로 금방에 탄생이 될 거고, 또 무쇠 차원이라면 무쇠전에 무쇠로 탄생이 될 거고, 넝마라면 넝마전에서 넝마로 탄생이 될 거고 이렇듯이 그렇게 이 세상에 출현을 하게 돼 있죠.

그거는 왜냐하면 악업 선업의 인연들이 바로 내 몸뚱이 속에 주둔을 하고 있으니까요. 자기 영혼과 더불어 같이 정자 난자를 빌려서 탄생을 시키는 것이 바로 자기 주인공이거든요. 그래서 수억겁 광년을 거쳐 오면서 진화시키고 탄생시켜 온 장본인이 바로 여러분의 주인공 주장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장이라고도 하고, 주장자라고도 하고, 주인공이라고도 하고, 참부처라고도 하고, 참나라고도 하고 그렇게 이름은 많죠.

그런데 모든 것은 이 마음을 통해서 그 업식에서 나오는 것을 여러분은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컴퓨터에 넣어 놓은 그 입력이 바로 나오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나오는 대로 다시 되집어 넣으면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인공에 되놓으라고 항상 하는 소립니다. 되나오는 것을, 잘 나오는 것은 '응, 참 잘 나오게 해서 감사해.' 하고 놓고, 또 잘못 나오는 것은 '너만이 잘 나오게 할 수 있어.' 그러고 거기다가 되넣는 겁니다. 되입력을 하는 거죠. 되입력을 해야 앞서 입력된 게 없어지면서 새 입력이 자꾸 들어가는 거죠. 그래야만이 그 유전성, 업보성, 인과성, 세균성, 영계성 이 다섯 가지가 다 무너지게 됨으로써 이 내가 나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래 부처인 자유인이 되려면 내 자생중생들부터 바로 조복을 받아라, 항복을 받아라 이 소리죠. 그것도 강제적으로 항복을 받는 건 항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인의롭고 유유하고 자비롭고 지혜롭게, 나오는 모든 것을 '너만이 할 수 있어.' 하고 거기다 되놔야만 다시 입력이 돼서 그게 없어지지, 그렇지 않으면 없어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되놓으라는 것, 지금 여러분 한테 이끌어 주는 관법이 그대로 그겁니다. 내 내면의 자생중생들부터의 그 의식이 본래 부처 자리인 마음의 선장과 더불어 한마음이 돼야 배가 지나가는데도 뒤집히지 않듯이, 그렇게 해야만 파도가 쳐도, 아무리 뇌성벽력이 쳐도 배는 잔잔하고 편리하고 평등하게 잘 건너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을 덧붙여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림 · 최주현

인의롭고 유유하고 자비롭고 지혜롭게 나오는 모든 것을 근본에다 되놓아야

태초에서 1년 전은…

문 기독교에서는 태초와 종말이라는 것이 설정되어 있어서 시간을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 볼 때는 과연 그렇다면 태초에서 1년 전은 그럼 뭐냐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영원이라는 것이 있다면 영원의 1년 후는 그럼 또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의문이 들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세계는 어떤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 태초라는 게 오늘이 태초죠, 뭐. 영원한 오늘이 태초예요. 그전에 언젠가 한 목사가 와서 자기네는 태초를 몇천 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간다 합디다. 그래서 "그건 당신네들이 사는 데에 몇 년, 몇천 년 이런 게 있지마는 태초를 왜 거슬러 올라가느냐. 당신이 이 세상에 나와서 당신이 알았으면 당신이 안 것대로 태초지, 그걸 왜 거슬러 올라가느냐. 당신이 그 시절에 알았느냐. 그런데 지금 나와서 보니까 모두 이렇게 태초라는 것도 알았고, 이렇기 때문에 당신이 바로 태초야. 그 시간부터 태초다 이거야." 그랬죠.

그리고 천당을 가고 무슨 지옥에 떨어지고 그런다는 얘기를 하면서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고 묻기에 그랬죠. "당신이 귀신 노릇을 하면 귀신이 있는 거고 당신이 귀신 노릇을 안 했으면 귀신이 없는 거지. 사람들이 모두 살고 있기 때문에 귀신도 있고 선신도 있는 거지,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는데 무슨 귀신이 있고 선신이 있느냐. 사람들이 만들어서 귀신이다 선신이다 하는 거지, 만들지 않았다면 선신이나 귀신이 어디 있겠느냐. 사람 없는데 귀신이 있겠느냐, 사람 없는데 예수가 있겠느냐, 하느님이 있겠느냐. 당신들이 지어 놓고 귀신이다 뭐다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이렇게 돌고 돌고 또 돌고 또 태어나고 또 돌고 이러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윤회한다고 하죠, 생사를 벗어나지 못했으니까. 그러나 생사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그게 윤회가 아니라 그대로 자유자재예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여기만 꿇어 박아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만 꿇어 박아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항상 자기가 나고 싶은 데에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세계라고 하는 데는 부처님이 천 년 만에 한 번, 나고 싶으면 나고 말고 싶으면 마는 데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천만분지일로 말입니다.

요게 예를 들어서 비교하자면 요렇게 요렇게 비벼서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그 가루 하나, 먼지 하나 떨어뜨리는데 그게 금방 떨어뜨렸는데 천 년이 걸린 겁니다, 여기는. 금방 가루를 만들어서 먼지 하나 떨어뜨렸는데 글쎄 여긴 천 년이 됐다니까요. 그만큼 여기에서는 가피력을 그렇게 못 받는, 즉 말하자면 교차로에서 자기네들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주는, 즉 말하자면 허리띠를 매고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세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체로 칠 때 무거리 치죠? 인제 이렇게 가루를 또 치지 않습니까? 그때에 필요한 교차로예요, 여기 이게.

그러니까 우리 이 중세계에서 사는 사람들이 그것을 듣기를 했어요, 맛을 봤어요, 보기를 했어요? 도대체 물질화돼 있는 이 교차로에서 그런 맛을 못 보니까, 이 세파 속에서 그냥 지지고 볶고 지지고 볶다가 그 착에, 선의 착이든 악의 착이든 그냥 그 착에 물들물들 말려 가지고, 몸이 없어져도 그게 그냥, 그 마음이 그대로 거기 집중돼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 놔라 이겁니다. 다 놓게

☞30면으로 계속

오직 자기 자신만을 똑바로 진짜로 믿으세요!

☞29면에서 계속

되면 그냥 훌렁 벗어진다 이겁니다. 내 몸에도 착이 없고 어떠한 물질에도 착이 없고 아무것에도 착이 없어야죠.

그렇다고 해서 물질을 버리라는 건 아닙니다. 아, 쓰는 건 쓰지 왜 버립니까. 버리지 않아도 착을 두지 말라 이겁니다. 영원한 게 아니지 않느냐는 얘깁니다, 다 변질이 되고. 물질을 새 거 사다 놓으면 나중에 헐어서 버리게 되고 다시 바꾸게 되는 건데 구태여 거기다가 착을 둘 게 뭐 있느냐 이거예요. 그냥 쓰는 대로 써라 이겁니다, 착을 두지 말고. 금은보화를 갖다가 장속에다 넣었다 하더라도 거기 착 둘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공했는데, 자기도 변질이 되는데 거기 그렇게 착을 둘 게 뭐 있겠어요. 그냥 놓고 관리인으로서 그냥 쓸 뿐이지.

아이구, 이런 걸 놓고 사니까 좋고 저런 걸 놓고 사니까 좋고 우린 이렇게 땅을 가졌으니까 좋고, 이런 돈을 가졌으니까 좋고 권리가 좋으니까 좋고…. 다 이건 거품과 같은 겁니다, 거품. 한순간의 거품이에요. 그 거품을 알았다면 우리가 한순간 살아나가는 동안에 참다운, 인간의 참이라는 걸 알고 나갈 때 비로소 인간의 도리를 다하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일일이 속여 가면서 자기가 자기를 속임을 받고 속임을 주고 하니까 남한테도 속죠.

그러니 우리가 어떠한 것을 따르고 진실하게 믿어야 하느냐. 못났든 잘났든 자기가 자기 찾을 권리도 있고, 자기가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 권리도 엄연히 주어졌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아예 꿈에라도 형식적인 고깃덩어리를 믿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름을 믿으려고도 하지 마시고 오직 자기 자신만을 똑바로 진짜로 믿으세요.

항상 얘기했듯이 싹이 뿌리를 그냥 믿는 거지 어떻게 남이 믿어라 믿어라 이래서 믿는 겁니까, 네? 자기 종성(種性)을 진짜로 믿어야죠. 항상 말씀드리는 거와 같이, 대신 죽어 줄 사람도 없고, 아파 줄 사람도 없고, 잠을 자 줄 사람도 없고, 똥 누고 밥 먹고 해 줄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제각기 자기 모습 속에서 자기를 알게 되면 자기도 공생(共生)이요, 공심(共心)이요, 바로 공체(共體)요, 공용(共用)이요, 공식화(共食化) 하고 우리 모두가 같이 하나로 돌아간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왜 저에게는 돈이 붙지 않나요?

문 돈도 생명이 있고 마음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정말인지요? 왜 저에게는 돈이 붙지를 않고 나가기만 하는 것인지요? 부자가 되기를 바라지는 않지만 너무 쪼들리게 사는 것은 몸도 마음도 궁색해지는 것 같아서요.

답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뚱이를 가지고 있지만 죽을 때는 몸뚱이도 다 놓고 갑니다. 예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어떤 사람이 아주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늙어서 몸이 쇠약해지고 죽을 때가 돼서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세상에 그렇게 허무할 수가 없어요. 그래, 돈은 많고 그러니까 마누라 셋을 더 얻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누라 넷과 살다가 둘째 마누라더러 그랬죠. "여보! 당신, 나 가는 데 같이 갈 수 없겠소?" 하니까 "천만의 말씀을요. 어떻게 같이 갈 수가 있어요? 난 못 갑니다." 그러더랍니다. 또 셋째 마누라한테 그러니까 천부당만부당하다고 따르지 않더랍니다. 넷째 마누라한테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화장을 하면 화장터까지만 가 주고 또 묘지를 쓸 것 같으면 묘지 쓰는 데까지만 내가 가 주지요."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그랬답니다. 세상에 마누라 셋한테 다 물어봐도 그러니, 둘째 마누라더러 그랬죠. "야, 세상에! 내가 너를 추우면 추운 대로 따뜻한 걸 입히고, 더우면 더운 대로 시원한 걸 입히고, 아프면 아픈 대로 쓰다듬어 주고 약을 먹이고, 또 배고프면 밥을 주고 이랬는데도 나를 따라가지 않으니 이 허무한 마음은 어디다 비할 수가 없다." 하면서 셋째 마누라더러도 그랬죠. "내가 먹지 않고 입지 않고 그냥 동서남북으로 뛰면서 벌어다가 그렇게 주었건만, 세상에 내가 갈 때는 거들떠보지도 않으니 그렇게 무정할 수가 있느냐?" 하니까 마누라가 하는 소리가 "당신이 나를 좋아해서 그렇게 따라다녔지 내가 당신이 좋아서 따라다닌 건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첫째 마누라한테 그 말을 하니까 "여보, 당신이 나를 등한시하고 본체만체했어도, 당신이 본체만체하건 말건 그렇게 같이 왔으니까 같이 가야죠." 그러더랍니다. 본체만체했어도 둘이 아니게 같이 있었던 거는 생명과 그 분별, 즉 말하자면 의식이라는 얘깁니다. 이 육체와 같이 나로 인해서 당신은 항상 같이 있었지 않느냐 이겁니다. 나를 등한시는 했었지만 그렇게 같이 왔으니까 같이 가겠다 이겁니다.

그게 무슨 비유냐 하면 둘째 마누라는 내 몸뚱이를 말하고, 셋째 마누라는 돈을 말하고 넷째 마누라는 자식들을 말한 거죠. 자식들이 뭐 화장터밖에 더 갑니까? 첫째 마누라는 내 주인공을 말한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집이 좋고 또 마누라가 있고 자식이 있어도 대신 아파 줄 놈도 없고 대신 똥 누어 줄 놈 없고, 또 대신 먹어 줄 수 없고 대신 잠자 줄 수 없고 대신 죽어 줄 수 없어요. 이 다섯 가지는 누구라도 대신 못해 줘요.

그러니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어느 땐가 제가 아침 공양을 하지 않고서 어디를 가는데 시장기가 드니까 골이 아파요. '야, 골이 아프구나! 골이 안 아파야지.' 하고 쓰다듬어 주는 이 고마움! 여러분은 그 고마움을 모르죠? 내 손이, 내 마음이 나를 위한다는 거,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죠? 누구도 모릅니다, 그건. 아무리 부부지간에 절친하다 못해 천하없어도, 부모자식지간이라고 해도, 효녀 효부라 해도 다 소용없어요. 진짜 자기한테밖에는 말할 수 없는 것이 많아요. 섭섭하게 해도 섭섭하다는 말 못하고 그네들을 위해서 그냥 "응, 그래. 그래, 참 잘한다." 하고 말하거든요. 모든 게 그렇고요.

여러분이 그렇게 믿고 능력을 기르면 돈이 없어서 걱정할 필요도 없고 죽을까 봐 걱정할 필요도 없고 아파서 걱정할 필요도 없고, 가난하든 부자든 탐심이 없으니 걱정할 필요 없고, 억만 냥을 내가 지고 있어도 관리인이지 그거를 탐착하고 있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욕심이 없으니까 돈이 자꾸 오죠. 돈도 생명이 있고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 내가 쫓아다니지 않는다면 오지만 자꾸 쫓아가면 자꾸 달아나가요. 이상한 마음들이죠, 모두.

그러니 여러분이 낚시질을 해도 좀 잡히게 해야지 마음을 조급하게 내면 고기가 낚싯밥을 먹지를 않아요. 조급함이 없이 인내 있고 믿음직하게 하시면서 자기 몸 바깥에서 찾지 마시고, 자기가 콩쌉이라면 그 콩쌉에 콩씨가 열려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진짜로 거기서 세세생생에, 올해만 사는 게 아니라 내년도, 그 콩씨로 인해서 나고 또 나고 또 나고 또 나듯이 그렇게 사는 겁니다. 마음은 체가 없어서 콩씨가 팥씨도 될 수 있고 팥씨가 콩씨도 될 수 있습니다. 물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저 보고 듣고 생활하면서 열심히
생각나면 생각 나는 대로
한 찰나에 그냥 거기 놓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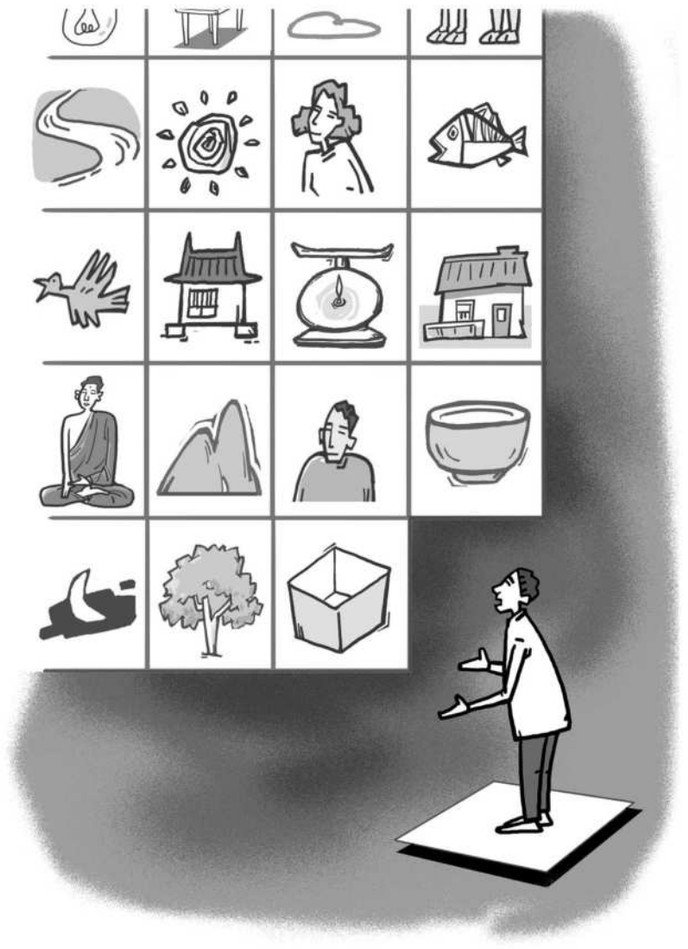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1천원으로 부처님 말씀 전하세요"

최상의 보시인 법보시 공덕을 지으세요

● **참여방법**
- 현대불교 매월 '법보시 후원금' 1구좌 1,000원 이상
- 현대불교신문 보내는 곳 : 군부대, 교도소, 경찰서, 병원법당, 복지시설 등
- 후원 계좌 : 국민은행 006-01-0783-830 / 농협 053-01-236053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 자동이체로 하면 더욱 편리합니다.

※자동이체 신청은 전화 한통화로 해결됩니다.

● 문의:현대불교신문사 고객부 (02)2004-8211, 8212 팩스(02)737-0697

법회 참석 대중의 일체감과 효율성을 높이는 필수 교보재

법요집 · 기초교리집 괘도 특별한정 보급!!



정기법회, 수련대회, 불교대학, 불교학교 등
법당에 걸어 비치만하셔도 법회의 원활한 진행은
물론 신도님들의 불교기초공부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법요집
- 삼귀의
- 찬양합니다
- 반야심경
- 입정
- 청법가
- 법문
- 정근
- 발원 및 축원
- 사홍서원
- 산회가
- 기타찬불가

● 기초교리
1. 불교란?
2. 부처란?
3. 대승과 소승의 차이
4. 사찰에서 쓰는 도구
5. 사찰경내 예법
6. 합장과 반배
7. 고두례
8. 예불문
9. 삼보
10. 삼귀의
11. 삼법인
12. 삼업
13. 삼학
14. 신도오계
15. 사성제
16. 사섭법
17. 십이인연
18. 육바라밀
19. 팔정도
20. 보왕삼매론

법회의 일반적인 순서와 볼자라면 꼭 알아야 할 기초교리가 암도 큰스님의 감수로 알차게 꾸며져 있습니다.

· 특별보급가 : 140,000원 (한정수량판매)
40쪽, 아이보리색 레자크지
· 구성 : 괘도(법요집, 기초교리, 양면인쇄) 1개
걸이대, 지시봉

인터넷 불교 종합 서점
여시아문 02)737-0695 02)2004-8214,8219
국내 · 해외불교서적, 교양도서 http://www.yosiamun.com

요사채 신축
석가래 교체
기 와 교체
전 지붕 공사 일체
기와공장 천안
011-9820-0112
041)554-0112

퇴행성관절염 · 류마티스
신경통 · 오십견 · 디스크
한방요법으로 치료한다-관신환
상기 관절염 등 증상을 중단, 완화, 치료할 수 있는
관 신 환(丸)

통상 관절염이란 관절에 염증성 변화가 생기는 모든 종류의 질환을 지칭하며 궁극적으로는 연골과 뼈를 손상시키며 심해지면 뼈와 뼈가 직접 부딪치거나 뼈가 기형화되기도 하면서 극심한 통증을 일으킵니다.
윤량한의원의 윤량원장은 수십년동안 퇴행성관절염 · 류마티스 · 신경통 · 오십견 · 디스크 등의 환자와 전쟁하면서 연구개발한 관신환(丸)을 처방하여 환자에게 임상 결과 80~90% 이상 호전반응이 나오며 관신환(丸)을 5~7일만 복용해도 부드러운 느낌을 받으며 그동안 어떤 관절염 약을 복용해도 못 느끼는 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상담 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을 하시고 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한약은 한의사와 상담 후 처방됩니다.

관신환을 드실 분
-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에 무리가 오시는 분
- 기타 퇴행성관절염 증상이 심하신 분
- 류마티스관절염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 위궤양때문에 관절염 약을 못드시는 분
- 수술후 후유증이나 회복이 잘 안되시는 분
- 교통사고 이후에 통증이 심하신 분
- 신경통, 류마티스, 오십견, 디스크 등이 아프신 분

윤량한의원 상담문의 080-598-9832

인연을 짓다 (상)

황해성(군산시 지곡동)



그림 · 문병성

아주 어릴 적 초등학교 시절 가정환경 조사서를 쓰면서부터 종교란에는 '불교'라고 동그라미를 치면서 30여년을 살아왔지만 정작 절에 가본 것은 중 · 고등학교 수학여행 때 잠깐 들러 본 것이 전부였다.

그럼에도 그렇게 아무 거리낌 없이 종교란에 불교라고 동그라미를 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초파일이면 등을 밝히러 절에 다녀오시는 어머니를 보고 자란 탓일 것이다.

하지만 학교를 졸업 한 후 군대를 다녀오고 취직을 하고 결혼도 해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두고 소박하지만 행복을 느끼며 살아오던 나에겐 불교는 그리 큰 부분이 아니었다.

아니 불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에 대한 어떤 오만함 같은 것이 있었던 것 같다. 부처님이나 예수님께 빌고 기도하며 무엇을 바라고 의지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랄까?

그러던 어느 날 한 친구에게 '마음공부'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친구는 '마음공부'를 배우러 '한마음선원'에 다닌다고 했다.

'마음공부? 아니 마음도 공부를 해야 하나? 한마음선원은 또 뭐야?, 혹시 그거 아니야, 도를 아십니까 하는….'

지레 짐작으로 피식 웃음이 나왔다. 하지만 평소 또래 친구들과 달리 평온한 인상에 마음도 넓어 친구들 말을 잘 들어주고 가끔 도인같은 말도 곧 잘 해서 황당할 때가 가끔 있기도 했지만 믿음직스럽던 그 친구가 진지하게 한번 가자고 권유했고, 궁금증이 일어 같이 가보기로 하였다.

일요일 아침 전철을 타고 도착한 한마음선원의 첫 인상은 내 짐작이 맞는 듯한 모습이었다. 도심 한가운데 현대식의 대리석 건물. 절이라면 조용한 산속의 고풍스러운 목조 건물에 예쁜 단청과 맑은 풍경 소리를 연상했던 나에게 한마음선원의 모습은 조금 당혹스럽기까지 했다.

친구를 곁눈질로 따라 하며 어설프게나마 법회를 마친 후 친구의 주선으로 스님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도 있었는데, 스님께서는 "한마음 주인공에게 맡겨라, 그리고 지켜 보아라" 뭐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다. 하지만 그때 나에겐 스님의 귀한 말씀이 귀에 들어 올 리가 없었다. 그저 괜히 왔다 싶고 빨리 집에 갔으면 하는 생각뿐이었다.

친구가 선물한 <삶은 고가 아니다>라는 책을 손에 들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다. 그 후 침대에 던져놓았던 책을 다시 찾은 건 며칠이 지나서였다.

야간 근무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읽을 책을 고르다 '한 번 읽어나 보자'는 마음으로 <삶은 고가 아니다>를 들고 출근을 했다.

책 표지에 실린 대행스님의 사진을 보며 왠지 모를 푸근함을 느끼고 읽어 내려간 책

마음공부한다는 친구 말에 궁금증 일어
법회 참석하고 큰스님과 대화 기회도 가져
공부에 대한 생각 잊혀질 무렵 교통 사고 내

속엔 힘들고 고단한 삶 속에서도 오직 주인공을 믿고 구도의 길을 걸으신 스님의 이야기가 때론 눈물겹고 때론 흥미진진하게 그렇게 생생히 살아있는 이야기로 내 가슴 속으로 들어왔다. 하지만 책 속에서 대행스님을 만난 후 '마음공부'라는 것과 선원에 대한 첫 인상이 조금 달라지는 것을 느끼면서도 선뜻' 마음공부'를 해봐야겠다는 생각까지는 하지 못했었다.

그 후 그렇게 '마음공부'라는 단어를 천천히 잊어갈 즈음이다. 온 나라가 크리스마스와 연말 분위기에 모두들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던 그 해 겨울 내겐 너무도 감당하기 힘든 일이 일어났다.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둔 그 날은 겨울 비치곤 꽤 많은 비가 내렸다. 3교대 근무를 하는 나는 저녁 출근을 하기 위해 집을 나섰다. 저녁 6시에 집을 나섰는데도 밖은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 앉아 있었고 모두들 자동차 불빛을 밝히고 서둘러 귀가를 서두르고 있었다.

비가 내리는 출 · 퇴근길은 언제나 혼잡하다. 그날도 매일 다니는 사거리 길이 꽉 막혀 있었다. 이렇게 막히다가는 출근이 너무 늦을 것 같아 지름길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고 핸들을 돌렸다. 지름길은 차량 통행이 뜸한 왕복 2차선의 좁은 도로였다.

비 때문에 앞이 잘 보이지 않아 조심하며 달렸다. 그런데 갑자기 앞쪽 도로에 하얀 것이 보이는가 싶더니 차에 "쿵" 하고 무엇인가 부딪치는 소리가 들렸다.

'뭐지?' 하고 차를 세우고 내려보니 아주머니 한 분이 내 차 앞에서 넘어졌다 일어나며 신발을 찾고 있었다. 난 내가 사람을 치었다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덜컥 겁이 났다.

아주머니를 일으켜 세우면서 "괜찮으세요?" 하고 물었다.

아주머니는 "내 신발, 신발 좀 찾아 줘" 하며 일어나더니 신발을 찾으러 다녔다. 다행히 많이 다치지는 않은 것 같아 안심이 됐다.

그런데 차에 치인 사람은 아주머니 혼자가 아니었다. 차 옆에 아주머니 한 분이 더 쓰러져 있었다. 그 아주머니는 의식이 없는지 쓰러진 채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특별히 외상은 없는 것 같은데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신음 소리만 내고 있었다.

가슴이 꽉 막혀왔다. 어떻게 해야 되지? "도와주세요!! 아무도 없어요?"

아주머니를 가슴에 안고 난 소리를 질렀다. 뒤따라오던 차들은 멈칫거리며 옆으로 비켜 갈뿐 누구 한 사람 도와주는 이가 없었다.

'정신 차리자! 정신 차려야지.' 하며 나 자신에게 소리쳤다. 그리고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몇 번이나 잘못 눌러가며 가까스로 119에 구조를 요청했다. 119에 구조 신고를 하고 구급차를 기다리는 5분 여 동안 너무 무섭고 두려웠다. 골목길에 혼자 버려진 아이의 심정이 그랬을까? 막막하고 무섭고 자꾸만 눈물이 나왔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 아주머니들은 왜 여기에 있었던 거야?'

쓰러진 아주머니를 안고 우산으로 비를 막으며 119 구급차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다행히 119 구급차가 와서 아주머니를 병원으로 후송하는 것을 보고 난 후 조금 정신이 돌아왔다.

우선 경찰서에 사고 신고를 한 후 경찰이 현장 조사를 마치고 경찰서로 가서 조사를 받았다. 현장 사진과 차 상태를 보니 아마도 아주머니들이 우산을 쓰고 무단 횡단하는 것을 비 오는 밤이라 잘 보이지가 않아 사고가 났던 것 같았다.

경찰서에서 나오면서 우선 아내에게 전화로 사고 소식을 전하고 가까운 선배에게도 도움을 청했다. 새파랗게 질린 아내와 선배가 함께 병원으로 찾아왔다.

'제발 아무 일이 없어야 할 텐데…. 아무 일 없을 거야. 빨리 달리지도 않았는데 많이 다치기야 했겠어?' (계속)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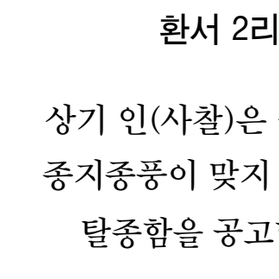
일상의 생활에서 또는 신행의 현장에서 자신의 가슴에 차곡차곡 담아두었던 체험을 수기로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귀중한 신행체험 수기는 많은 불자들의 신행생활에 좋은 지표가 될 것입니다.

- 주제: 일상속의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삶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장 안팎(A4용지 4장)
- 접수처: (110-030)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2004-8241
- 인터넷 접수: bypark@buddhapia.com

상쾌한숙면 건강한하루 **신비의은행석** | 배개속에 넣고 평생 사용 늘~건강하고 편안한 잠자리

※ 음이온을 첨가하여 어깨 통증완화 및 각세포의 기능 향상

건강도 지켜주고 젊음을 유지하는 **은행석 안심목걸이, 팔찌**



"부모님께 최고의 효도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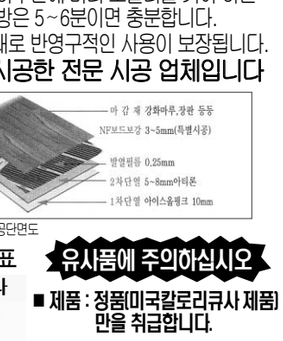
베개속에 은행석을 넣고 주무시면 평생 뇌졸중, 중풍, 치매, 고혈압 천식등이 치유됩니다. 그리고 기억력이 살아나고 혈압이 떨어지며 기미가 줄고 하얀 얼굴로 미백효과도 뛰어나요. 하루에 5시간만 주무셔도 8시간 잔것과 같은 효과가 있어 머리가 맑고 상쾌하며 아침에 가볍게 일어납니다.

죽어가는 것도 살리는 은행석

북한에서온 은행석은 죽어가는 것도 살린다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야에다 수돗물을 받아 붕어를 넣으면 붕어는 배를 뒤집고 헐떡이며 죽어갑니다. 이때 은행석을 넣으면 붕어는 씽씽하게 살아납니다. 고급난, 분재 등 죽어가는 것도 살릴 수 있어요.

생명의 빛! 생명의 기!

북한 일부 고위층만 사용하며 저를 믿고 주무시며 건강하게 장수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의심이 많아요. 심하게 코를 골거나 기침을 하시는 분에게 적극 권장합니다. 손발이 자주 붓거나 저린 분은 은행석 목걸이, 팔찌와 같이 사용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목걸이, 팔찌 : 머리를 맑게 함, 손발저림, 어깨결림해소, 혈압조절, 혈압상승억제, 전신에 氣를 고루 전달. 기력회복, 심장박동이 원활하여 마음을 안정 시킴, 신진대사촉진, 피가 맑게 하며, 다이어트에도 효과

은행석 108염주, 손목합장주도 제조 판매합니다

◇ 현재 많은 스님 ,불자님들의 사용 후 기적같은 사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

금강닥터 문의전화 (02)723-9184 www.dk21.net

◆ 입금계좌:농협 1143-12-049474 송명화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탈종공고

- 사찰명 : 목련사
- 주 지 : 보타(성낙오)
- 주 소 : 경북 경주시 양남면 환서 2리 325-1

상기 인(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06년 9월 27일

한국불교원효종 총무원장 법하

탈종공고

- 사찰명 : 다보사
- 주 지 : 현덕(김관근)
- 주 소 : 부산광역시 영도구 신선2가 156

본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06년 10월 11일

대한불교법화종 총무원장 법하

최첨단 "원적외선 복사열 필름난방"

아직도 심야전기보일러를 생각하시고 (난방비 50% 절감)
전기온돌판넬을 생각하시고 (난방비 70% 절감)
기름보일러를 생각하시고계셨다면 (난방비 80% 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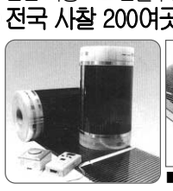
최첨단 원적외선 복사열필름난방으로 생각을 바꿔보세요.

◆ 월간난방비 비교표 ◆ *실난방 평수 10평기준 *하루 10시간 사용 * 2005 12월 기준

구 분	필름난방	심야전력	도시가스	전기판넬	L.P.G	보일러 등유
소비자 가격	66.8원/kw	36.8원/kw	640원/㎥	66.8원/kw	1250원/㎥	1000원/ℓ
열효율(%)	100	95	90	100	90	85
연료소비량(월)	588kw	1650kw	124㎥	1569/kw	124㎥	182ℓ
월간난방비	39,200원	60,700원	79,360원	104,800원	155,000원	182,000원
단가지수	100	155	202	267	3950	4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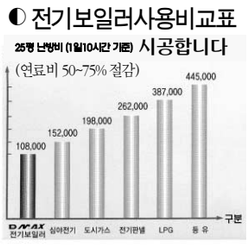
※ 사찰에는 이런점이 유리합니다.

- 쓰지않던 방을 사용할때 하루전에 미리 보일러를 켜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본 난방은 5~6분이면 충분합니다.
- 한번 시공으로 건물수명대로 반영구적인 사용이 보장됩니다.
- 전국 사찰 200여곳 시공한 전문 시공 업체입니다



■ 시공단면도

◐ 전기보일러사용비교표



유사품에 주의하십시오

■ 제품 : 정품(미국칼로리큐사 제품)만을 취급합니다.

설치하면 좋은 곳
법당, 요사채, 선방, 어린이집, 식당 등

대체에너지(주)
천안 · 아산총판

041)545-5593, 010-8120-3592

진심으로 수행하고 깨달음을 얻어 해탈을 원하시는 분들께 드립니다

이 세상에는 원래 불법이 없습니다. 다만, 부처님의 자비와 중생의 수요로 인해 불법이 생긴 것입니다.

- 당대 불법수행으로 큰 깨달음을 얻으신 금보리 상사님의 말씀

보리법문의 창시자 금보리 상사님은 어려서부터 청장고원(青藏高原)에서 수행하셨습니다. 18년의 고수고행(苦修苦行) 끝에 수많은 고난을 이겨내고 원만한 자비와 수승한 법력(法力)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관세음보살님과 같은 대원을 발원하여 세간(世間)에서 포교를 하고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금보리상사님은 자신의 수행과 득도한 경험을 통해 지금 우리 현대인의 수행과 깨달음에 가장 적합한 수행방법들을 창시해 내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진심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분이라면 7일간의 실증실수(實證實修)를 통해 보리법문만의 우수함을 몸으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시대에 맞는 적당한(應機) 수행방법을 통해 여러분을 깨달음으로 이끄는 것이 상사님의 제일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보리수행방법을 통해 무수히 많은 수행자분들이 큰 성취를 얻으셨습니다. 이생에서 해탈하고 깨달음을 얻고자 하신다면 수행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不可不修). 여러분이 "금보리(金菩提)" 세 글자를 들으시고 희열과 놀라움을 느끼셨다면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사님께서 제자를 보내 한국에서 포교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인연이 있는 대중들을 위해 7일간의 수행반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인연이 있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수행반 일정 : 2006년 10월 13일(금) - 10월 19일(목)
■ 주 소 : 서울 서초구 방배동 899-16 한국보리법문
■ 문의전화 : 02)3471-9183 / 02)586-6176

사찰생태연구소·현대불교신문이 함께하는
108사찰 생태기행
(67) 소백산 희방사

바람산 위에 펼쳐진 꽃들의 잔치


투구꽃.

희방사를 경계로
산지대·아고산대로 구분
자연관찰로 주변 숲
노각나무 2000여 그루 자생
82종 조류상 등산객·관광객
영향으로 10여종만 관찰


진범.

일반적으로 식물의 수직분포대는 저산대, 산지대, 아고산대, 고산대로 나뉜다. 아고산대(亞高山帶, subalpine zone)는 해발 1000m에서 2000m 사이의 산으로 수평분포대로 볼 때는 아한대에 속에 있다.

삼국시대 국경이었던 백두대간은 소백산-월악산-속리산-민주지산-덕유산-지리산 등의 아고산대로 이루어져 있다. 당시 변경의 아고산대 산에 국찰(國刹)과 관문(關門)과 산성(山城)들이 집중해 세워졌다.

해발 1439m인 소백산에는 특히 호국을 목적으로 지어진 신라 고찰들이 많이 자리하고 있다. 최고봉인 비로봉 아래는 비로사와 용천사, 국망봉(1420m) 아래는 초암사와 성혈사, 연화봉(1383m) 아래는 희방사가 자리하고 있다. 또, 동쪽으로는 부석사가 자리하고 있다.

소백에 흩어져 있는 절들은 대개 의상대사 또는 그의 문도들에 의해 삼국통일 직후에 창건되었으나, 유독 희방사만은 통일 전에 두운조사에 의해 창건되었다. 부석사 창건(676년)보다 23년이나 앞선 선덕여왕 때 신라가 소백산 지역의 잔존 고구려 세력들을 잠재우기 위해 다분히 정치적 목적을 띠고 창건한 것으로 짐작된다.

소백산은 한자로 '小伯'으로도 쓰고 '小白'으로도 쓴다. '白'자는 단순한 '흰색'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주먹을 쥐고 엄지 손가락을 세운 모양이 '白'자이니, 바로 '첫째'와 '으뜸'을 상징한다. 이름에 '小'자가 있지만, 생태적으로도 소백산은 결코 작거나 낮은 산이 아니다.

희방사의 고도는 해발 1000m에 육박한다. 희방사 아래 계곡 주변은 해발 1000m 미만인 '산지대'에 속하고, 희방사 위쪽으로는 '아고산대'에 속한다. 같은 산이라도 고도가 다르면 식생에 차이가 나고, 서식하는 곤충들의 종류도 달라진다.

희방사 생태탐방은 희방사를 중심으로 2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주차장이 있는 집단시설촌에서부터 희방사까지를 제1구간으로, 희방사에서 천문대가 있는 연화봉까지를 제2구간으로 설정하여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생태모니터링이 이루어졌다.

매표소를 지나면 길이 두 갈래로 갈라진다. 오른쪽으로는 산허리를 굽이굽이 도는 찻길이 희방사까지 이어져 있고, 왼쪽으로는 희방계곡을 끼고 자연관찰로가 희방사까지 나 있다.

희방계곡의 물은 소백산 연화봉에서 발원하여 희방사 앞을 지나 희방폭포를 만든 후 풍기-영주로 내려가 내성천에 합류된다. 내성천은 예천 지보에서 낙동강 본류를 만나 흡수된다.

자연관찰로를 따라 희방사까지는 약 2km, 이 구간은 거의가 낙엽활엽수숲이다. 숲에도 남성과 여성이 있어서, 수종이 한두 종으로 된 단순림은 남성의 숲으로 보고, 여러 수종과 풀꽃들이 어울어진 혼효림을 여성의 숲으로 본다.

이 지역 숲의 특징으로는, 노각나무 군락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특히 이 지역은 노각나무 자생지의 최북단지역으로, 약 2000여 그루가 자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노각나무는 껍질이 사슴뿔과 비슷하다고 해서 '녹각(鹿角)'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음운이 변하여 '노각'이 되었다.

제1구간은 딱정벌레류들이 서식하기에 좋은 혼효림이지만, 등산객들과 관광객들의 왕래가 잦아서 몸집이 큰 곤충들은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하늘소 종류들도 몸집들이 모두 고만고만하다.

가을 조사에서 나타난 것으로는 먹세줄흰가지나방이 있다. 날개를 편 길이가 3cm 가량으로, 주로 깊은 산지에서 관찰된다. 우리나라와 일본과 대만지역에서만 서식한다.

희방폭포 못 미친 곳에 몇 해 전까지 상가들이 있었으나, 아래 시설촌으로 모두 철거되고 현재는 작은 연못과 야생화 화단이 조성되어 있다. 화단이 끝나는 지점에서 왼쪽으로는 희방사 전용 시멘트 도로가 나 있고, 직진하면 희방폭포를 거쳐 희방사로 가는 계곡로이다. 돌계단과 다리를 지나면 왼쪽으로 희방폭포가 높이 28m의 위용을 드러낸다.

소백산은 지리산과 함께 기반암의 노출이 적은 평탄한 구릉을 이루는, 백두대간의 대표적인 육산이다. 기암절벽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다만 계곡 주변에서 겨우 바위들을 볼 수 있을 뿐이다. 소백산의 지질은 화강암질 편마암과 화강암으로 크게 나누지는데, 희방계곡 일대는 대부분 화강암질 편마암이다. 특히 희방폭포 주위에 광범위하게 노출되어 있다.

물보라로 습도가 높은 희방폭포 주변은 음이온이 가장 왕성한 지역이다. 음이온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미립자로, 전기를 띠고 있다. 폭포가 있는 계곡이나 파도가 있는 해변에서 상쾌함을 느끼는 것은 건강에 좋은 음이온 때문이다.

작은 물까마귀 한 마리가 쳘다리 아래로 쏜살같이 몸을 숨긴다. 소백산의 조류상은 82종으로 보고되어 있으나, 여름과 가을 두 차례의 조사에서 관찰된 조류는 노랑할미새, 물까마귀, 박새, 쇠박새, 곤줄박이, 동고비, 딱새, 어치 등 모두 합쳐서 10여종에 불과했다. 평일에도 끊어지지 않는 등산객들과 관광객의 발걸음 때문에 그리 다양하지 않다.

희방사는 지명도에 비해 사역(寺域)이 좁은 편이다. 식생조경으로는 이렇다할 특징이 보이지 않는다.

희방사에서 연화봉까지는 1시간거리이지만, 초입에 해발 1050m의 깔딱고개가 있어서 숨이 가쁘다. 소백산에다 케이블카를 놓자는 이야기가 솔솔 나오는 것도 바로 이 깔딱고개 때문이다. 깔딱고개로 오르다보면 지난 여름의 집중호우 때 생긴 산사태가 곳곳에 보인다. 임시방편으로 마대를 덮어서 토사가 더 이상 유출되지 못하도록 해두었다.


남색초원하늘소.


먹세줄흰가지나방.


노각나무 수피.

깔딱고개를 지나 연화봉에 이르는 구간은 비교적 평탄한 길이다. 희방사-깔딱고개-연화봉에 이르는 구간에 투구꽃, 눈괴불주머니, 물봉선, 노랑물봉선, 가시여뀌, 송장풀, 승마, 가는장구채, 까치고들빼기, 까실쑥부쟁이, 정영엉겅퀴, 단풍취, 오리방풀, 꼭두서니, 참취, 진범, 흰진범 등이 꽃을 피우고 있다.

가을꽃 하면 국화과가 대부분이다. 국화를 제외하고는 투구꽃이 돋보인다. 중부 이북의 깊은 산에서 자라는 여러해살이풀이다. 덩굴도 아닌 줄기는 다른 물체에 비스듬하게 기대어 1m나 자란다. 이름 그대로 투구를 닮은 꽃은 보라색이며, 뿌리에 강한 독을 지니고 있다.

이 구간 안에 기록해둘 만한 것으로는 수령이 20년 안팎되는 신갈나무 군락이 있다. 특히 깔딱고개 주변은 단순림이라해도 좋을 만큼 무성한 신갈나무숲이다. 신갈나무는 다른 참나무에 비해 비교적 높은 산에 잘 자라므로 능선 부근에서 많이 나타난다.

연화봉이 가까워지면서 신갈나무와 철쭉이 바톤터치를 한다. 천문대가 있는 연화봉에는 자연관찰로가 있다. 연화봉을 지나 비로봉까지는 4km 남짓하다. 이 구간은 '천상의 화원'으로 불려지는 야생화 초원지대로, 역시 말잔등처럼 부드러운 능선길이 나 있다. 이처럼 1000m 이상의 고지대에 부드러운 구릉으로 이어지는 지형을 고위평탄면(高位平坦面)이라고 한다. 소백산의 고위평탄면은 백두대간이 형성되기 이전의 모습이라고 한다.

아고산대 정상과 능선 주변은 어디나 바람이 세고 안개가 자주 끼며 기온 변화가 심해서 식물의 생장에 부적합하다. 소백산을 일컬어 '바람의 산'이라고 하는 까닭도 겨울철 북쪽에서 불어오는 차갑고 강한 북서풍의 영향 말고도 주능선에 숲이 없어서 바람을 더욱 강하게 받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곳에 소백산 주목이 살고 있다.

글·사진=김재일(사찰생태연구소장)
http://cafe.daum.net/templeeco

2006년 한국불교박람회에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불교 최대규모의 전시회와 함께 하고 싶다면
불교계의 가장 효과적인 마케팅을 원한다면

2007한국불교박람회에 참여하십시오

2007한국불교박람회 2007. 3. 22 ~ 25 / 서울무역전시장
문의 : 2007한국불교박람회사무국 TEL 02)2004-8213~9 www.bexpo.org